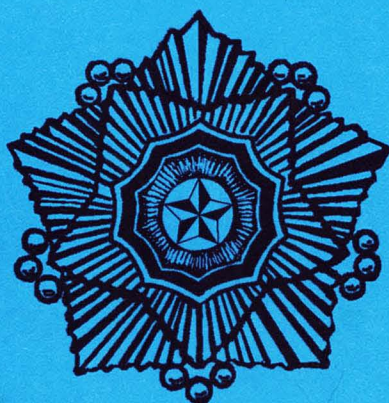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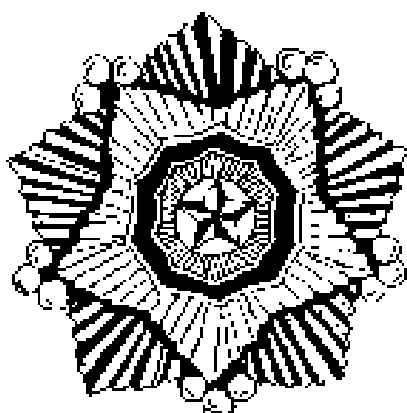
조선문학



3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7)년 제3호

(루계 제 713 호)

◇◇◇◇◇◇◇◇◇◇◇◇

차 례

◇◇◇◇◇◇◇◇◇◇◇◇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자.....	3
가야산의 백두마을	5
이 봄, 이 땅, 이 노래와 함께	8
토지개혁의 그 봄날에	9
선군의 랑만	9
인생의 등불	10
내 마음의 눈빛	10
랑심의 향기	10
랑심의 자욱	10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11
종소리 울린다.....	11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오늘도 설레입니다.....	13
새 력사의 려명을 안으시고	13
칼산은 번뜩인다	14
영원히 변치 않는 동지	15
수령님의 천리길	16
행복의 씨앗	17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17
붉은기의 천만리에 새겨진 력사의 진리	18

대보름달 좋아라	20
무재봉 봄날의 서정시	35
우리 집	36
인정의 불빛	37
정의와 량심에 살려는 작가를 믿어주고 이끌어주시여 (2).....	38
주체문학의 대강	41
평범한 생활과 작품의 문제성	41
우리가 찾는 사람.....	43
미곡벌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44
경구, 격언.....	46
락수물	47
귀밝은 땅	47
일요일이 전하는 이야기	47
행복의 조건	49
조국과 나무 한그루	60
고기떼가 흘러든다.....	61
동해의 배길	61
꽃밭을 가꾸는 안해여.....	62
《보중》 선 까마귀들.....	62
《폭탄》 기사.....	63
산-녀인.....	75
포쇄별감	76
고전의인소설 《연태자전》	77
《그 령감을 깨우지 마십시오》	78
개성은 문을 열고... ..	79
함께 지읍시다.....	79
토마스 하디와 그의 창작.....	80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자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로 아로새겨질 희망찬 새해 주체96(2007)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은 지금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로 수놓아진 지난해의 특기할 민족사적사변들과 력사적승리를 두고 끌어오르는 민족적공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올해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올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95돐을 일대 민족적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경사스러운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이 더욱 활짝 꽃피는 해, 온 나라가 흥성거리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선군혁명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를 시위하는 전인민적인 경사로 빛내여야 한다.

올해에 맞게 되는 뜻깊은 정치적사변들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선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뜻깊은 이해에 선군문학건설과 시대의 명작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올해를 선군문학의 빛나는 년륜을 새긴 가장 자랑스러운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었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작가들이 당의 신임과 기대에 참답게 보답하는 길이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력사적인 날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조국과 혁명, 민족의 앞길에 빛나는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형상창조에 창작적탐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누리에 존엄떨치는 선군조선의 번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온갖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면서 오로지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

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

천고의 백두밀림에서 온갖 시련을 다 겪으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였고 세상으뜸의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의 위대성을 깊이 간직하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을 담아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을 더욱 품위있고 형상수준이 높게 창작하며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모든 문학형태작품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적극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인 선군의 기치가 더욱 세차게 휘날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모든 창작적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장구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년대기에서 지난해처럼 나라의 지위가 당당한 강국의 높이에 오르고 민족의 존엄이 힘있게 떨쳐진 때는 없었다.

지난해의 특기할 사변들과 력사적승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특별히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나라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였으며 전당, 전군, 전국, 전민을 새로운 비약을 위한 총진군으로 확신성있게 이끈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는 형상으로 폭넓게 보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길우에서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왔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만만시련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지위를 비상히 높여주시고 불패의 국방력을 갈망하여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장편소설창작을 더욱 활력있게 다그치며 수령형상단편소설창작에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수령형상작품의 인간학적풍격을 높이는것은 매우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은 그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주체의 선군문학건설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올해를 선군문학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난 혁신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시대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한다.

해당 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는 그가 어떤 인간을 자기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는가 하는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선군시대에는 사람들이 선군의 기치밑에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적풍모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도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에 형성되고 꽃피난것이다. 이것은 문학작품에 우리 시대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선군문학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작가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간,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할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오직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열혈투사의 감동깊은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인민답게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원대한 포부와 래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불굴의 인간의 전형의 창조하는 것은 격동적인 우리 시대가 작가들앞에 내세운 역사적과제이다.

최근 우리 당에서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산인간의 형상을 감동깊이 창조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선군시대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체현하고있는 다정다감한 인간이다.

오늘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우리의 선군이 그렇듯 위대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고 고상함은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 누구보다 생활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창조하며 가장 아름답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체현하고있는 다정다감한 인간들이기때문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문학이 선군시대인간의 전형적성격을 고상한 정서와 랑만을 지닌 참다운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형상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또한 고상한 정서와 랑만을 참된 애국심의 발현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선군은 애국이며 누구보다도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총대를 들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나갈수 있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모든 창조물들과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를 보아도 거기에 담겨있는 당과 수령의 위대한 령도와 고매한 품

모를 뜨겁고 감동깊이 느낄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만이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숭고한 조국애를 지닌 인간의 성격창조에서 고상한 정서와 랑만을 지닌 인간의 특질을 형상하는데 웅당한 탐구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락관으로 비관을 이기고 랑만으로 절망을 짓부시며 보다 높은 창조적의욕을 가지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선군위업에 충실하도록 적극 고무하여야 한다.

올해에 선군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형상의 새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도식과 류형을 극복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는것이다.

오늘의 격동적이고 장엄하고 전투적인 벽찬 현실은 문학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혁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낡은 창작관점과 자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창작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분발하여야 한다.

올해를 선군문학창작의 새로운 양양이 이룩된 빛나는 해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문학의 본질적요구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활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다. 우리의 작가들은 작가가기전에 혁명가이며 작가에게 있어서 문학창작활동은 곧 사회정치활동, 혁명활동이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95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문학축전을 통하여 우리 문학의 전반적사상예술적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올려세울 투지와 각오를 가지고 창작적열정을 끓이고 있다.

모든 작가들은 그 어느때보다 우수한 작품을 내놓기 위한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 조선의 작가된 영예를 힘껏 펼쳐야 하며 자기의 창작생활에서 뚜렷한 자욱을 남겨야 한다.

창작의 성과는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작가들은 현실적요구에 맞게 창작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실력전을 벌려 더 좋은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라는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여기에 제시된 모든 전투적과업들을 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올해를 선군조선의 새로운 변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되게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가야산의 백두마을

가야산은 소백산줄기가 뻗어내린 대소군봉속에 비교적 우뚝 솟아있다. 해발고가 1,470미터로서 령이 높고 골이 깊으며 사철 맑은 물이 소리치며 계곡을 흘러내린다.

해방전 이 깊은 산골에 《백두》성을 가진 크지 않은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옛 문헌들인 《동국여지승람》이나 《신창성씨록》을 보면 우리 나라에는 간혹 《을지》, 《제갈》, 《황보》와 같은 두자 성이 있지만 《백두》성이라는 성씨는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산의 깊은 골안에 이런 희성의 마을이 생겨난것인가.

…울긋불긋 단청을 입힌 가야산너머의 한 골짜기에는 땀기밭과 사양업에 명줄을 건 30여호의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힘한 이 산골에 언제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는지는 알수 없으나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산삼캐기, 짐승잡이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인생들이었다.

이 마을의 좌상은 김로인이라는 사람이였다.

그는 3.1인민봉기때 이 골에 들어온 대바른 사람이였다.

몸집이 우람하고 역대우같이 굼었을적에는 장사로 불려왔다. 그러한 늙은이가 요즘은 두어개가 축 쳐져내렸으니 그러지 않아도 한적한 마을의 공기는 더 숨막힐듯 했다.

바로 3일전 먼 호적계의 왜놈계장이 나타나 마을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지껄여댔었다.

《황송하게도 천황폐하께서는 너희들 반도인들에게 우리 일본사람과 똑같이 은총을 베풀어주시였다. 말하자면 〈동조동근〉, 〈내선일체〉란 말이다. 그러니 누구나 천황폐하의 적자로 되는 이런 〈창씨개명〉사업에 빠짐없이 참가해야겠다.》

그러나 그놈이 온종일 목에 피대를 돈구어 소래기를 쳤으나 《창씨개명》에 응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부모가 붙여준 성과 이름만은 고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다.

왜놈계장은 그에 대한 분풀이로 순사들을 불러 한동안 닥달질을 해대고 마을좌상인 김로인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조오타!… 만일 3일내에 이 마을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집기둥들을 몽땅 뽑아버리고

불 싹 지를줄 알아!》

마을의 크고작은 일을 주관하는 김로인은 그날부터 무거워진 어깨를 쳐들지 못하고 다녔다.

왜놈들이 어떤 악한들이라는것을 체험해본 그였다.

이 마을은 장차 어찌 될고…

매일같이 동리어른들이 무릎을 마주하고 걱정을 했지만 그 누구도 어찌할 방도를 내놓지 못했다

김로인은 너무도 기가 막혀 말조차 나가지 않았다.

고현놈들, 강도질도 류만부동이지 백주에 남의 나라를 타고앉아 땅을 빼앗고 5천년 력사국을 송두리채 삼키더니 이제는 말과 글, 지어는 조상이 붙여준 성까지 빼앗겠다니… 이런 억울할데가 어디 또 있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놈들에게 왜 천벌이 내리지 않는고…

사람들은 모여앉으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어이쿠!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못한다니 이게 어인 일인가?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들어온 말을… 하늘을 하늘이라 부르지 못한다면 뭐라 해야 하는가요?》

《헛… 병어리들도 살아가는 세상인데 아예 입을 벌리지 않으면 되는거지. 문제는 그보다 〈창씨개명〉이요! 그걸 안하면 호적등록도 안해주고 기차표, 배표도 안주고 저 읍거리의 다리마저 건들수 없다니 이게 야단이 아닌가? 좌상어른, 어찌면 좋아요?》

김로인은 그 말에도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쉴 뿐 묵묵부답이였다.

그날 밤을 김로인은 뜬눈으로 꼬박 밝히였다. 낮에 마을사람들이 주고받던 말이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3일후면 찰거마리같은 왜놈들이 와서 마을을 란탕칠것이다.

얼마나 왜놈들의 성화가 심했으면 고을의 한 선비는 면호적계에다 《견자웅손(개자식이 된 단군의 자손)》이란 성과 이름을 제출하고 경찰에게 매질을 당했고 또 어떤이는 《견분식형(개같은놈똥이나 먹어라)》이라고 제출하여 크게 욕을 보았다 하겠는가.

왜놈들이 달려들어 마을을 불지를건 뻔한 일이니 이를 어찌면 종단 말인가.

이날 밤 이런저런 생각에 자리에 누워서도 궁
싹거리던 김로인이 별안간 두루마기를 꺼입고 밖
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날이 밝아서도 돌아
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좌상로인은 어디로 갔는가?...

가족들도 로인의 행처를 알수 없었다.

단지 마을앞산이 가야산이니 그곳에 가지 않았
는가 하는 막연한 추측밖에 할수 없었다.

한밤중 온다간다는 소리없이 집을 나간 로인은
다음날 정오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였다.

사람들은 혹 산에서 호환이라도 입지 않았는가
하여 걱정을 했다.

어슬넙 마을의 젊은이들이 로인을 찾아 떠나자
던 참에 김로인이 불쑥 땅에서 솟아나듯 나타났
다. 그것도 어디서 난것인지 가라말까지 척 타고
서.

김로인은 자기를 반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했다.

《난 성을 갈기로 했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성을 갈다니?! 왜놈의
요구대로 《창씨개명》을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좌상어른, 그게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시오?
...》

《분명 성을 갈겠다는 말이웬까?...》

김로인은 의혹을 풀지 못해하는 사람들을 진정
시키고나서 풍채좋은 흰수염을 내리썰었다.

《방금 나는 가야산에 올라 하늘의 계시를 받고
오는 길이요!》

좌상로인의 말마디들이 하도 놀랍고 이상스러
운것이어서 모두들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에게 김로인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지난밤 자정이 넘도록 잠들지 못하던 로인은
문득 창호지를 바른 문틈으로 밖이 흰해움을 느
꼈다. 벌써 날이 밝았는가 하여 무심코 방문을
열던 로인은 눈을 크게 떴다.

저게 뭐고?! 산마루에 웬 불기둥인가?...

김로인은 산불인가싶어 황망히 옷을 주어입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산마루에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터가 있으니
거기에 불이라도 달렸다면?! 그랬는데 자세히 보
니 불기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져내리는 별
비같다.

지금껏 별찌가 떨어지는것은 흔히 보아왔어도
이러한것은 난생 처음이라 김로인은 주저없이 산
마루로 치달아올랐다.

숨이 턱에 닿아 산마루에 오른 김로인은 그 자
리에 떡 굳어지고말았다. 밑에서 올려다본 휘황
한 별비는 다름아닌 금빛번쩍이는 말들이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모습이였다.

금빛안장을 엮은 하나같이 끼끗하고 날랜 말들
이 분명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있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말우에 주인이 한사람도 타
지 않은것이였다.

《참 이상한 일이군. 웬일로 주인없는 말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두루 주위를 살피던 로인은 두
런 두런 울리는 말소리를 들었다.

인기척이 나는쪽을 보니 성황터쪽에 귀를집이
한채 지어져있고 말소리는 그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런 희한할데라구야. 이곳은 자기가 한해에도
여러차례 오르는 곳인데 전에 없던 귀틀집이 생
겨난것을 내가 왜 여직 몰랐을까?!

이때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총
을 멘 군사들이 귀틀집에서 나왔다.

그들중 한사람이 김로인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로인님, 이밤중에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
까?》

로인은 그의 첫 물음에 벌써 젊은이가 나쁜 사
람이 아니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
곳으로 오게 된 경위를 대충 말해주었다.

그의 말을 듣고난 젊은이는 자기들은 백두산대
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의 군사들로서 그분의 령
을 받들기 위해 잠시 이 가야산에 머무는 중이라
고 소개했다.

《백두산대장수님!...》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 많이 퍼져
있어 김로인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군
사들을 이렇게 직접 만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
했다.

젊은이는 김로인이 이곳 마을의 좌상로인이라
는것을 알고는 이것저것 자세히 캐물었다.

김로인은 요즘 왜놈들의 《창씨개명》바람이 더
우심해지고있다는것과 그때문에 자기가 골머리를
썩인다는것까지 다 털어놓았다.

그때 귀를집문이 열리며 젊은 사람이 또 나왔
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의 주위는 어둠이 가셔
지고 밝은 빛으로 둘러싸여있었다.

보매 보통분이 아닌듯 했다. 김로인과 이야기
를 하던 사람이 그분에게로 가서 무엇인가 말씀
드렸다.

그러자 그 젊으신분이 어둠을 휘휘 몰아내며
김로인에게로 와서 두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로인님,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
으십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로인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왜놈들을 몰아내고 꼭 나라를

되찾겠습니다.》

《...》

김로인은 자기가 꼭 무슨 꿈을 꾸고있는것만 같아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저 그 젊으신 분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걷기만 했다.

샘터앞에 이르자 그 젊으신 분은 샘물을 달게 드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의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역시 백두산천지에서 흘러온 물이어서 샘물이 이처럼 달고 시원하군요》

김로인은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물은 가야산에서 흘러나오는 샘이올시다.》

그러자 젊으신 분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며

《가야산도 근본을 따지고보면 백두산의 지맥인즉 어찌 이 물이 천지의 물이 아닐수 있겠습니까?》라고 겸손히 말씀하시었다.

순간 김로인의 머리속에서 무엇인가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자기가 며칠째 고심하고있는 두통거리를 이런 말로 깨우쳐주시는 것이 아닌가싶었다.

젊으신 분은 갈 길이 바빠 떠나야겠다면서 멀리 않아 왜놈들이 꼭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분과 헤어지자 날이 흰히 밝았는데 눈앞에 있던 귀틀집이랑 군사들이랑 모두 보이지 않았다.

그때에야 로인은 아뿔싸 하고 자기 무릎을 쳤다. 그 젊은분이 백두산대장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던 것이다.

틀림없는 백두산대장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자자구구 음미해보니 자기의 결심이 새롭게 섰다. 그길로 로인은 가야산을 내렸다. ...

여기까지 단숨에 이야기하고난 김로인은 정기가 도는 눈에 갑자기 젊음을 되찾은듯 청청한 목소리로 기본문제를 꺼내었다.

《그러니 우리 조선사람들의 성씨의 본은 무엇이겠소? 두말할것없이 그것은 삼천리금수강산의 모든 산줄기와 물줄기가 근원을 두고있고 혈맥의 원뿌리가 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이 아니겠소!

저 백두산에는 우리 겨레가 우러러 받드는 장군별이 솟아 빛나고있소. 그래서 나는 빼앗기 왜놈들앞에서 이 자랑스러운 <백두>로 성을 고치자고 하오. 또 우리 마을전체가 이 한성, 한 본으로 등록을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네들의 궁냥은

어떠한지?》

로인의 이 말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너도 나도 로인의 제기를 따르겠다고 했다.

약속된 3일후의 아침,

호적계원이 산골길로 자전거를 끌고 비지땀을 흘리며 나타났다. 그놈은 다짜고짜로 마을좌상인 김로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령감, 어떻게 되였는가? 자, 이 용지에 다 황송하웁게도 천황폐하의 적자가 되겠다는 맹세와 <창씨개명> 할 새 성명을 써놓으라! 내가 제격 호적계에 제출할것이다.》

가시돋친 그 목소리는 조그마한 흥정도 없다는 암시를 풍겼다.

김로인은 머리를 크게 끄덕거리고나서 백설같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정자관까지 정히 쓰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진한 먹물을 듬뿍 묻혀 그놈이 내민 종이우에 힘주어 붓을 움직였다.

《백두창민》.

그러자 마을사람들도 그아래에 자기들의 성과 이름을 써넣었다.

온 마을이 하나같이 《백두》성으로 갈고 자기의 이름자들을 붙였다.

30호가 모두 새 이름들을 써넣었을 때 호적계원은 입이 귀밑까지 찜지게 웃음을 지었다.

이날 의기양양해서 호적계장앞에 신청서문테기를 쏟아놓았던 호적계원은 뜻밖의 호령소리에 심장이 덜컥 멎는듯 했다.

《고랏! 이견 뭐가? <백두창생>! 뭐뭘, 한 마을이 몽땅 <백두> 성이라구? 백두라면 김일성장군 유격대가 있는 백두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자기네들은 천황폐하의 적자가 아니라 김일성장군의 적자라는 말이다!》

노발대발하던 호적계장놈은 호적계원의 뺨을 후려치고나서 그길로 경찰서장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해바쳤다.

경찰놈들이 가야산마을로 달려왔다. 그러나 마을은 이미 텅 비여있었다.

놈들은 오막살이추녀밑에 불질을 해대는것으로 맥을 뽑고 돌아갔다.

후날 이 지방 사람들속에서는 《가야산의 백두 마을사람들이 자기들의 본적지인 백두산을 찾아 떠났다.》는 말과 《가야산의 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백두마을을 다시 꾸리고 왜놈없는 세상에서 살고있다드라.》하는 말이 전해졌다고 한다.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
이입니다.》

김정일

이 봄, 이 땅, 이 노래와 함께

김명철

하얀 명주필인양
들가득 새벽안개 고요히 흐르는데
어찌면 저기
허리에 한손을 얹으시고
아버이수령님 서계시는듯

뵈울것만 같습니다
이 3월 초닷새날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신 그 아침처럼
우리 농민들을 만나보고싶으시여
아버이수령님 들로 나오실것만 같습니다

어리신 시절부터
조부모님 농사일 도우시며
빛값에 끌려가는 처녀들의 그 눈물
살길 찾아 떠나가는 겨레의 한숨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새겨안으셨기에

피어린 싸움으로 날이 새고 저물던
그 유격구에서도
소방을 활랑질랑
제땅을 제가 가는 희한한 새 풍경
꿈같은 별천지를 펼쳐주신분

수령님이 아니시고야
그 누가 해방된 조국 별방산골 다 찾아
소작살이 피명든 가슴속소원을
나라의 시책으로 풀어주었겠습니까

지주들의 땅을 모두 몰수해
밭가는 농민들에게 거저 나누어준
그 천지개벽의 봄은
우리 농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수령님의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까

보잡이녀인들이 부른

그 밭갈이노래를 뜨겁게 외우시며
전쟁의 불비속을 헤쳐오신 자욱자욱
물걱정 비료걱정 근심도 많으시여
이른새벽 깊은 밤 천리 또 천리를 가시던
우리 수령님

몸소 키우시여
정히 받아주신 그 귀중한 씨앗들이
오늘은 온 나라 이랑에 뿌려지고
눈비속에 익혀오신 그 농사법이
모판마다 실한 움을 튀우고있나니

지금 오시면
산기슭에 줄지어선 저 새 집들을
얼마나 즐거이 돌아보시겠습니까
이 규격포전들을 바라보시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담장가에 과일꽃 망울지고
뒤산에 양떼가 구름처럼 흐르니
그리운 정 더더욱 사무치는 봄
기계소리 웃음소리 해종일 넘쳐날수록
그 은덕에 목메이는 땅

이처럼 고마운 봄
이처럼 소중한 땅
이처럼 아름다운 로동의 노래가
선군의 총대우에 받들려있어
위대한 그 생애는 길이 빛나려니

아 꽃피는 봄과 함께 해마다
젊어지는 땅과 함께 세세년년
우리는 수령님을 우러를것입니다
감사의 노래와 함께 대를 이어가며
행복을 가꾸고 무르익힐것입니다

토지개혁의 그 봄날에

곽명철

은하수도 기운 깊은 밤
농에 넣어두었던 새 무명바지저고리 정히 입고
등잔불심지 한껏 돋구어놓은 분이 아버지
떨리는 마음 애써 진정하며
퍼놓은 흰 종이우에 또박또박 써나간다
《오매불망 뵈고싶은 김일성장군님께...》

땅이 없어 두자식은 끝내 굶겨서 죽이고
땅이 없어 빚진 종이 되어
어린 딸마저 피눈물속에
지주집 부엌데기로 빼앗겼던 분이 아버지
해방된 오늘엔
땅을 가지고싶은 하늘같은 소원 더는 누를길
없어
이밤 수령님 그리며 편지를 쓴다

장군님께 이 편지가 가닿기나 할가
이 편지를 보시면 무어라 하실가
엄청나고 외람된 소청이라 나무람하지 않으실가
그렇지 않아도 건국일때문에 몹시도
분망하실텐데
분이 아버지 걱정은 가지에 가치를 뺀고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깊어만 지고

아, 허나 아직은 다 몰랐구나 분이 아버지
바로 그 시각에도 우리 수령님
꿈결에도 제땅을 가지고싶어하는
이 나라 농민들의 세기적인 그 숙망을 안으시고
조국땅 곳곳의 농촌들을 몸소 찾고계신줄

다 몰랐구나
한생의 가장 큰 소원인
제땅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하는 농군들이
분이 아버지 한사람만이 아니었음을
하여 날마다 수령님 집무실엔
그와 같은 편지들이 쌓인다는것을

추녀낮은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나서자라시여
누구보다 이 나라 농민들의 마음 그리도 잘
아시는분
못 잊을 고향엔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는 년로한 조부모님을 두신 그분이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이신줄
정녕 그날에 분이 아버지인 다 알수 없었구나

아, 진정 그날에 우리 수령님
이처럼 하늘에 닿은
수많은 분이 아버지들의 절절한 그 소망을
더는 미룰수 없는 력사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밤을 지새우시며
한조항 또 한조항
토지개혁법령을 작성하셨나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라
수령님께 올린 그 편지가
어서 빨리 가닿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분이 아버지
그로부터 얼마후
온 나라를 들었다놓으며 발포된
토지개혁법령이라는 위대한 어버이의
가슴후련한 회답을 눈물속에 받아안을줄

선군의 랑만

김춘호

잠을 깬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예는 전선길의 아침
야전차를 조용히 멈춰세우신
우리 장군님

허리우에 두손을 얹으시고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네
백학들이 나래편듯
덩실 솟은 문화주택마을
산언덕엔 연분홍빛살구꽃 복숭아꽃
물안개 피는 양어장기슭엔
실실이 휘날려진 수양버들 푸른 아지...

한쪽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마주하신듯
선군의 그 모습이 하도 정겨워
발걸음 못 떼시는 장군님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소
이 멋에 우리가 선군을 하는거지!

오 긴긴밤 전선길에 쌓이신 피로
이 순간에 다 푸시는가
전설같은 무릉도원 그 모습에서
선군의 보람 선군의 멋을
가슴가득 안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네
한드레벌의 지평선에서
북변의 꽃그릇공장에서

동해안의 드넓은 제염소와
북변의 새 발전소 언제우에서
환희를 안으시던 그때처럼

해빛같은 그 웃음에
선군조선의 랑만이 비껴 흐르네
고난의 눈보라속에서도
신념으로 미래를 보며 웃던 그 랑만
가는 길 험난해도
희망안고 노래안고
신심드높이 가고가던 그 랑만이

가사

길은 멀고 힘겨웠어도
승리로 빛나는 우리의 선군
총대를 앞세워
행복과 번영의 시대를 창창히 펼친
선군은 아름다워
선군은 멋들어져

동산우엔 노을빛 물들고
야전차는 또다시 전선길을 달리네
더 좋은 래일을 위해
래일의 더 큰 보람을 위해!...

인생의 등불 외 3편

권오준

랑심이 인생의 등불이라면
그 등불로 자신을 비쳐보시라
내 홀로 밤길을 걷는다 해도
이 등불 밝히면 가는 길 열리리

랑심이 인생의 등불이라면
그 등불로 발자취 비쳐보시라

한생을 끝은 길만 걷고싶어도
이 등불 꺼지면 갈길을 잃으리

랑심이 인생의 등불이라면
그 등불로 앞길을 비쳐보시라
머나먼 그 길에 갈래 많대도
당을 따라 한길을 곧바로 걸으리

내 마음의 눈빛

내 삶의 순간마다 심장의 문을 열고
말없이 살펴보는 눈빛이 있네
높은 령 막아서도 에둘지 말라고
순결한 자옥만을 인생길에 새기라고
걸음걸음 따라서며 귀찮해주네
아 랑심이어 내 마음의 눈빛이어

꿈에도 내 마음의 웅달샘 흐릴가봐
그 눈빛 이밤에도 잠들지 않네
진심앞에 자물쇠 걸지 말라고
거짓앞엔 자물쇠 든든히 채우라고
변함없는 눈빛으로 속삭여주네
아 랑심이어 내 마음의 눈빛이어

랑심의 향기

투사들 뒤편으로 불타는 심장은
눈속에 묻힌대도 얼지를 앓아
그 심장이 꽃피운 순결한 랑심은
아 이 한몸 흠어져도 날려가도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남으리

영웅들 숨결로 높뛰는 심장은
인생의 먼길 가도 식지를 앓아
그 심장이 간직한 참다운 랑심은
아 이 한몸 부서져도 불에 타도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남으리

랑심의 자옥

인생의 한걸음은 귀중하여라
그 걸음이 모여서 한평생을 이룬다네
그러나 랑심을 어지럽힌 자옥 있다면
이 땅에 생의 흔적 남지를 앓아
아 조국에 새겨가리 랑심의 참된 자옥을

인생의 한걸음은 귀중하여라
그 걸음이 모여서 한평생을 이룬다네
그러나 랑심을 잃고 걸은 자옥 있다면

그 삶은 세월의 눈비에 씻기리
아 조국에 새겨가리 랑심의 참된 자옥을

인생의 한걸음은 귀중하여라
그 걸음이 모여서 한평생을 이룬다네
불뽕은 화점 향해 영웅이 달려간
랑심의 그 길을 나도 걸으리
아 조국에 새겨가리 랑심의 참된 자옥을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봉화리로 찾아 왔다. 아버지자신도 동지들을 찾아 평안남 북도와 황해도일대를 자주 돌아다니였다. 그 과정에 핵심들이 육성되고 군중적지반이 축성되었다.

이런 준비에 토대하여 아버지는 장일환, 배민수, 백세빈 등 애국적인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 있는 리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였다. 조선국민회에 망라된 청년투사들은 손가락을 잘라 〈조선독립〉, 〈결사〉라는 혈서를 썼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조선국민회는 간도에 동지들을 파견하여 그곳을 독립운동의 책임지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도 세웠다.》

《조선국민회는 그 이후 조직된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으로써 철저히 위장되었다. 조선국민회는 산하에 구역장들을 두었으며 해외인사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베이징과 단둥에 통신원들을 배치하였다.》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고 확대해나가는 과정에 아버지는 장철호, 강제하, 강진건, 김시우 등 많은 동지들을 획득하였다.》

○조선국민회결성 90돐 기념작품○

수필

종소리 울린다

리성식

땡 땡 땡 ...

맑고 쟁쟁한 음향이 산촌의 아침공기를 흔들며 울려 퍼진다.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다.

얼마후 교실들에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랑랑히 울려나온다.

넓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아담한 교사를 바라보는 나의 귀가에선 종소리의 여운이 사라질 줄 모른다.

《조선국민회》결성 90돐을 맞으며 이곳을 찾은 나의 마음은 더더욱 생각이 깊어졌다.

학교들에서 수업시작과 끝을 알리는 소리로만 여겨왔던 그 종소리가 이 시각 나에게 새로운 느낌을 안겨주며 가슴속에서 울리는 그 메아리는 계속 울리고있다.

이곳 벽동군 동주리에서 만난 교원이 들려준 가슴뜨거운 이야기와 함께 종소리는 새로운 의미로 울려오고있다. ...

우리 나라가 섬나라 왜적의 발굽에 짓밟혀 신음하던 1920년 여름 어느날 《순천의원》이라 불리우는 젊고 의젓한 분이 동주리의 숯구이골에 찾아왔다.

우리 나라 서북부 압록강연안일대의 반일투쟁을 지도하시던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선생님께서 벽동일대 청년단간부들의 모임을

지도하신 후 험준한 산밭을 누비며 뻗어나간 옛 성터의 해묵은 새초밭을 생각깊이 걸으시다 나직이 시 한수를 읊으시었다.

달밝은 완월루 마루에 올라
동주성 바라보니 감회깊어라

...

그날 밤 김형직선생님께서 장쇠(교원의 할아버지)네 오두막에서 묵으시었다. 그때 장쇠는 토질병을 심하게 앓고있었다.

장쇠의 아버지가 방이 루추한데다 환자까지 있어 불편할테니 집을 옮기자고 수차례 말씀드렸으나 선생님께서는 그때마다 웃으시며 조용히 만류하시었다.

《바로 환자가 있기때문에 제가 이 집에 든겁니다. 저야 의원이 아닙니까.》라고 하시면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장쇠의 병에 전염성이 있다는것을 아시면서도 전혀 그런 내색을 앓으시고 온밤 그의 곁에 지켜앉아 뜸도 놓고 약물치료도 해주시었다.

이튿날 아침 다시금 바쁜 길을 떠나야 했으나 장쇠가 격정되어 떠나지 못하시었다.

여러날에 걸친 선생님의 성의있는 치료덕에 장쇠의 병은 호전되기 시작했다.

어느날 장쇠네 송아지동무들이 버들치를 잡아가지고 병문안을 왔다. 하나같이 누데기를 걸친 데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해 그 정상이 말이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는 허물없이 애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으시어 나이와 이름을 물으시었다.

쇠독이, 바우, 첫째 …

온전한 이름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아명뿐이었다.

《너흰 아직 글도 모르겠구나.》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학교는 고사하고 글도 모르고 온통 검댕이칠을 해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솟구이를 하는 그 애들의 정상을 가슴아피여 여기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솟구이골에 며칠 묵으시면서 그들의 까막눈을 띄워주기로 걱정하시었다.

압록강 건너에서 찾아온 사람이 독립군부대들의 통합문제 때문에 빨리 떠나야 한다고 재촉하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안겨주는 일도 중하고 급하다고 하시면서 《지원》의 사상도 뜻을 멀리 두라는 것인데 품을 들여 미래를 키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심심산골의 무거운 정적과 인생살이의 고달픈 한숨소리만이 흐르던 솟구이골에선 동네가 생겨 처음으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기억, 너은…》

《땅, 하늘, 나라…》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손이 바쁜 집 일을 돕다가는 여가시간에 아이들을 이끌고 옛성터로 오르시었다.

이기묘인 성벽에 그들을 앉히고 외적을 무찌르던 슬기롭고 용감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직접 지으신 《남산의 푸른 소나무》 노래도 불러주시며 우리가 그 《양촌》을 찾다가 못 찾으면 너희들이 대를 이어 찾아야 한다고,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선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어서 빨리 몸과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러던 어느날 급한 소식을 가지고 한사람이 선생님을 찾아왔다.

더는 피치 못할 사정이어서 선생님께서는 솟구이골을 떠나야만 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새 정들어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마을사람들의 손을 따듯이 잡으시며 후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꼭 다시 오십시오. 앞으로 차차 우리 솟쟁이들의 생활도 퍼질테니 쌀밥이라도 한그릇 대접하게 꼭…》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섭섭해했다.

《선생님, 진짜 오세요. 우리가 돌배랑 다래랑

따놓고 기다리겠어요.》

오구구 장쇠네또래 아이들이 옷자락에 매여달리며 떨어질줄 모르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다음 나라가 해방되면 이곳에 다시 와 아이들에게 글과 노래를 배워주는 교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압록강을 건너가시었다.

솟구이골사람들은 실지로 나라가 해방된 다음 애써 옥백미를 장만해놓고 그 고마운 《순천의원》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후날에야 그들은 군에 토지개혁준비사업을 위해 내려온 파견원을 통해 잇을수 없는 그 《순천의원》이 바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이시였으며 선생님께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 왜놈들과 싸우다가 젊으신 나이에 낫설은 이국땅에서 세상을 떠나시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어른으로 자란 장쇠네는 아이때처럼 다래를 익혀놓고 매일 나루터에 나가 선생님을 기다리던중 그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울었다.

아, 선생님! 그렇게 영영 가신단 말입니까.

하늘아래 첫 동네인 여기 벽동산골 솟쟁이의 자손들이 글과 노래를 배워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

아니였다.

선생님은 영영 가신것이 아니였다.

김형직선생님은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선생님의 그 낮은 솟구이마을을 찾아왔다.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을 그대로 이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제날의 솟구이골인 이곳 동주마을에도 나라에서 품들여 키운 유능한 교원들을 보내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도록 하시었다.

그 옛날 인생막바지에서 헤매이던 솟쟁이의 후손들이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엿한 대들보감으로 자라났다.

땡, 땡, 땡 …

그 배움의 종소리를 안고 김형직선생님은 솟구이골, 아니 온 나라 학교들과 저 김형직사범대학과 더불어 인민들의 마음속으로 돌아오신것이다.

빼앗긴 내 나라를 찾고 금수강산삼천리에서 조선사람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천신만고 혈전분투하시는 그 나날에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심혈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

위대한 《지원》의 사상과 더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치신 그 숭고한 뜻을 깨우쳐주며 산골마을학교의 종소리는 오늘도 울리고있는것이다.

땡, 땡, 땡 …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오늘도 설레입니다

홍현양

만경대의 정가로운 길을
생각깊이 걷고 또 걸으면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설레입니다
운명의 길이 무엇인지
이 세상 찬바람 눈비가 무엇인지
그 푸른빛으로 가르칩니다

뜻을 멀리에 두셨기에
김형직선생님이시여
남산의 소나무는 오늘도 푸르려
해가 쏸고 또 쏸고
동녘하늘을 향해 설레입니다

열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어도
나라없는 망국노의 설음은
그것을 넘어서야 벗어버릴 멍에임을
그것을 각오하고 나서야
반드시 맞이할 해방의 봄임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피로써 뜻으로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해방의 봄이 찾아와
어버이수령님 불러오신 락원의 강산에
인민의 행복이 창가마다 넘쳐나도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오늘도 서있습니다

그 푸른빛으로
빠속도 깎아내리는 모진 혹한
기약할수 없는 피눈물의 리별도
혁명의 길에 달게 받으시며
압록강을 넘나드시었고
겨레의 가슴에 제힘을 심어주시었습니다

꺾이여도 굽히지 않는
선생님의 불굴의 기상이
남산의 소나무
아지로 뻗고 푸른빛으로 솟아올라

세월의 눈비도 덮지 못한
조선의 봄이 만경대에 있습니다

아 만경대
선생님의 눈빛이
이 나라의 가없는 하늘로 열리고
아지랑이 피는 들판에 새싹을 튀워
밟으면 밟을수록
선생님의 사랑이 젖어드는 땅

이 땅에
어버이수령님 부르신
백두의 《사향가》가 감돌고
김정숙어머님 사랑하신
진달래가 붉게 타고있어
우리 장군님 가시는 굽이굽이 전선길에
남산의 소나무는 푸르려 설레입니다

뜻을 멀리에 두셨기에
김형직선생님이시여
천만의 군대와 인민이
그 뜻을 따라 폭풍도 격랑도 헤치는
선군의 조국이 솟아올랐습니다

파도사나운 외진 섬마을
랑림의 깊은 산골 토장에도
아이들을 부르는 배움의 종소리가
한초도 못지 않는
배움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아 바라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은 조국의 가없는 하늘은
남산의 소나무
그 푸른빛입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선생님의 불멸의 그 기상입니다!

새 력사의 러명을 안으시고

장선국

짓밟힌 동포들의 신음소리에
하늘땅이 무거웠다
총대를 꺾어든 의병들이
뿔뿔이 흩어져가고있었다

온 삼천리강토가

일제의 칼에 맞은 상처를 부여안고
울고울던 그날에
《조선국민회》여
너는 새 력사의 화불높이 태어났다

-조선아 뭉치자

반일전에 펼쳐나서자
조선의 독립을 조선의 힘으로!

너의 이 선언은
민족의 동란속에 떼구름처럼 흐르던
조선의 냇들을 하나로 부여잡았고
나라잃은 설움에 눈물짓던
인민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너의 이 부름
깨어진 배전에서 한숨짓던 어부가
꺾어진 노대를 틀어쥐고 일어서게 하였고
장리빛에 목숨이 매여
지주집 대문간에 섰던 농부를
반일투쟁의 전선에 세웠다

오 너의 이 웨침은
황해, 구월산 외진 남해기슭

삼천리 금수강산 그 어디라없이
반일의 씨앗을 뿌려갔다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일제격멸의 함성으로 노도치게 하였다

새 력사의 화불
《조선국민회》여
너는 캄캄했던 이 나라의 려명이였다
갈길 몰라 헤매이던
이 나라 인민의 길잡이였다

오오 력사의 려명을 안으시고
두자루의 권총을 넘겨받으신
김일성동지
이 길을 이어
조국해방의 아침을 불렀더라
선군조선의 오늘을 열으셨더라

칼산은 번뜩인다

서봉제

깊숙한 회린골
화산의 돌물을 한데 모아
엄엄한 이 산악을 세웠느냐
그 기상 서슬이 푸르다

북방의 칼산이여
네 산정에 올라
내 사방천리 둘러보니
이 가슴 뜨거움에 들먹인다

아 우리의 김형직선생님
저 멀리 산발을 넘어
사품치는 장진강도 해쳐오시였구나
발아래 깊고깊은 저 강줄기
허천강물도 건너오시였구나

후치령과 송암령의 이슬젖은 밤길
삼수의 험한령을 넘어온 무장대성원들
차디찬 물 줄줄이 흐르는
그이의 옷자락 부여잡고
목이 메던 가슴들 얼마나 들먹였던가

자나깨나 그리웠고 뵈고싶었던
탁월한 지도자
기다리고기다리던 선생님을 모시고
뜨거운 열풍안고 열린
칼산의 력사적인 회합이여

총이 없어
겨레가 피 흘렸고

나라를 빼앗긴 그 원한 가실 길은
오로지 총대에 달려있었기에
절벽에 찌렁찌렁 마주치던 그날의 음성
오늘도 너 칼산이 우뢰로 터치는것이나

-무장대오를 백배천배로!
설음긴 2천만동포의 심장에
희망과 신심의 불을 달라!
국내깊이에서 필승의 총성 울리라!

선생님 총대의 그 불
무겁게 다진 그 화약을 안고
구름너머 정방산과 구월산이라
재령과 원산의 바닷기슭이라
중부와 서북단을 뒤흔든 총대의 메아리여
온 강토를 반일성전에 불려준 총대의 폭풍이여

세월은 멀리
세기를 넘어왔어도
만경대가문의 총대의 철리
민족의 피값은 오직
총대모만 결산할수 있음을 깊이 깨우쳐주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아 그날의 의지 그날의 신념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키우신
무적강군 천만총대숲에
백승의 총탄을 재워주며
칼산은 더 높이 치솟는다!
칼산은 불을 품고 번뜩인다!

영원히 변치 않는 동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는 뜻깊은 어느 해 명절날, 당중앙위원회 한 책임일군은 집에서 옷차림을 정리 하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경애하는 장군님께 달려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고 그이의 밝은 미소, 정다운 음성을 한껏 받아내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갈수 없었고 또 가면 안되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자기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제 더 소생할길 없는 몸을 보신다면 얼마나 피로와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심정을 편지이라도 담아보려는것이였다. 물론 그 편지를 보시면 장군님께서 걱정하시겠기에 보내드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굳히면서도 쏟아지는 눈물로 종이를 적시며 그리움속에 한자두자 적어나갔다.

바로 그때 불쑥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다급히 그를 부르며 들어섰다.

일군은 병석에 있는 일군에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부르신다고 알려주었다.

《예, 지도자동지께서요? ...》

너무 기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던 그는 다음 순간 스트르 주저앉았다.

《아니, 전 못 갑니다. 가면 안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동무가 그럴줄 알고 일부터 차까지 보내셨습니다. 어서 갑시다.》

눈물속에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지장군님께로 달려가는 그의 마음은 어떻게하나 그이께 기쁨만을 드릴 각오로 가다듬어지고있었다.

하여 이날 그는 병마의 고통속에서도 앓는 사람 같지 않게 경애하는 장군님께 노래를 불러드리었다.

그가 선택한 노래는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 앞에서 안해와 함께 불러 그이의 웃음을 자아냈던 흥겨운 타령이였다. 그때 노래를 한참 불러나가던 그가 그만 가사를 잊었는지 찢찢매는데 성격이 활달한 안해는 그러거나말거나 천연스럽게 혼자서 청을 뽑아대는 바람에 그 모습이 너무 가관이여서 장군님께서는 소리내어 크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최근에 이렇게 눈물이 나도록 웃어보기는 처음이라고, 아주 인상깊다고 하시였다.

그때처럼 탄생일을 맞으시는 그이께 웃음을 드리려 그는 수많은 노래중에 굳이 그 노래를 골랐던것이다.

하지만 노래부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저미는듯 한 아픔을 느끼시였다.

그이께서는 노래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는 그를 제지시키시더니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팔을 꼭 껴안으시며 절절하게 그 일군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자신과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자고 말씀하시였다.

노래를 부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히시였다.

...

천금주고 살수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노래를 따라부르는 일군의 두눈으로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그토록 믿고 아끼시던 사랑하는 혁명동지의 쓰러져가는 모습에 너무도 가슴이 쓰리며 비분에 우시는 우리 장군님과 생의 마지막한계점에 이른 시각까지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령도자의 그 품이 너무도 따사롭고 고마와 목메여 우는 전사...

장내에는 걱정의 파도가 일고 우렁찬 합창소리가 울려 퍼졌다.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앓고있는 일군은 끝내 경애하는 장군님께 와락 안기며 세차게 어깨를 들먹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두손을 꼭 잡으시며 오늘 이렇게 나도 동무를 보고 동무도 나를 보았으니 됐다고, 앞으로 동무를 보고싶을 때마다 부르겠으니 몸도 편찮은데 이젠 그만 집에 돌아가 쉬라고 하시며 자신의 차까지 내어주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일군은 생을 마쳤다. 하지만 지금도 조선혁명박물관 전우관에는 그의 사진이 있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죽어도 변치 않는 자신의 영원한 동지로 내세워주신것이다.

수령님의 천리길

리래식

침략자의 발굽에 짓밟혀있어도
영영 잃고 살수 없는 조선의 넋을
크나큰 심장에 안고 걸으신 길이였다
끝내는 해방의 길로 이어진
성스런 배움의 길이였다

낯설은 타향으로
살길 찾아 떠나가던
수난의 발걸음들과 엇갈리시며
걸음걸음
억눌려 신음하는 조국의 모습을
가슴에 뼈아프게 새기며 오신 그 길

고향 만경대에서
그 천리길은 끝났어도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다시한번 절감하신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엔
끝나지 않은 천리길, 천리길이었나니

그 길이 이어진것 아니냐
또다시 건너야 했던 압록강가에서
기어이 독립을 안아오실
큰뜻을 가슴에 안으시고
조국산천 돌아보며 떠나신 천리길이

천리
또 천리
그 길은 이어졌어라

《사향가》를 부르시며
신들메를 조이시던 혈전의 수만리길에
조선의 위대한 아들이 걸어오신 길
맹세를 남기고 떠나온 조국땅에
해방의 기쁨 안고온 개선의 길로...

피바다 불바다도 굴함없이 이겨냈고
그 언제나 승리만을 펼치신
아 우리 수령님의 혁명의 길은
그 천리길에서 시작된것 아니던가
순간순간 조국을 위해 불같이 사신
우리 수령님 한평생의 보폭이
그 천리길에서 떼여진것 아니던가

천리길
이 땅에 부강번영을 안아오시고
조선의 빛나는 새 모습을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의 성장의 길이여
김일성민족의 참다운 애국의 인생길을
후손들의 가슴마다 길이길이 새겨준 길이여

이 땅에 태를 묻고
운명을 맡긴 사람이라면
아 수령님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을
마음속의 이정표로 세우고
조선을 빛내가는 애국의 천만리를
끝없이 걷고 또 걸어야 하리



행복의 씨앗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의 기쁨이 끝없이 물결치던 해방된 이듬해의 봄날이었다.

해방된 조선의 첫봄을 증산으로 맞이하자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농민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시기 위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동군 고평면 신흥리(당시)를 찾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군중을 감화시키고 각성시키고 동원시킬 줄 아는 비상한 솜씨가 있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땅에서 흥겹게 일하는 농민들을 만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제는 평생소원을 풀었으니 모두 농사를 잘 지어보자고 정답게 말씀하시며 씨앗다래끼와 호미를 드시고 밭에 성큼 들어서시었다.

그처럼 명성이 높으신 백두산녀장군을 뵈온 것만도 영광인데 자기들의 일손을 도우시려 그이께서 밭에 들어서시자 농민들은 당황하여 만류하였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첫 씨앗을 뿌리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데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부드러운 흙에 호미날을 박아나가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다리쉽 한번 안하시고 내쳐 씨앗을 묻으시었다.

한낮이 되어서야 발머리에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지주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아버지수령님의 덕분으로 5,000평이나 되는 기름진 땅을 분여받았다는 한 녀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참말 꿈만 같은 일이라고, 한때기의 땅이 없어 머

가사

슴을 살던 집에서 많은 땅을 분여받아 농사를 짓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지난날 농민들이 겪어온 설움과 오늘의 행복을 자신의 일처럼 헤아리시며 하시는 다심한 말씀이 농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순박한 농민들의 모습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농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기나긴 세월 산밭을 타고다니시며 일제와 싸우시었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땅에서 선참으로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시었다고 뜨겁게 이야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오랜 세월 소작살이로 등살이 깎이며 살아오던 우리 농민들이 드디어 땅의 주인으로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천지개혁이 아닌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제 땅이 없는 설움과 고된 로동으로 등이 굽은 농민들을 땅의 어엿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과 고마움을 심장깊이 새겨주시는 뜻깊은 말씀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걱정으로 가슴을 들먹이는 농민들에게 우리는 장군님께서 주신 것처럼 귀중한 이 땅에 풍년씨앗을 뿌리고 만풍년을 가꾸어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자고 호소하시었다.

봄빛같이 파스한 미소를 지으시고 농민들의 심정을 속속들이 헤아리시며 정을 담아 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농민들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다.

화창한 봄날에 백두산녀장군께서 농민들에게 하신 뜻깊은 가르치심은 그들의 가슴에 행복의 씨앗으로 소중히 간직되었다.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허 일

정깊은 어머니의 눈빛이런가
날마다 우러르는 사랑의 글발
내 사는 락원의 창가우에서
비오고 눈내려도 밝게 빛나네
아,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이 글발 지붕처럼 없고 살기에
행복의 집집마다 웃음 넘치네
이 글발 하늘가에 찬란하기에

내 조국은 밤이 와도 어둠 모르네
아,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장군님 펼치시는 선군이 있어
우리의 푸른 하늘 영원하리라
세기를 떨쳐가는 선군이 있어
주체의 내 조국은 번영하여라
아,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붉은기의 천만리에 새겨진 역사의 진리

-서사시 《붉은기의 천만리》에 대하여-

김 학

자주시대의 러명을 불러오며 화전의 하늘가에
《ㄷ.ㄷ》의 붉은기가 휘날린 때로부터 장장 80년,
류레없는 역경을 찬란한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으며
근 한세기를 달려온 조선혁명을 가슴에 부동
켜안고 우리 시인들이 격정에 목메었다.

과연 붉은기의 천만리는 어떤 천만리였던가,
무엇이 붉은기의 생명력을 천만리로 이으며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의 러명이 비껴온 오늘의 언덕에
올려세웠는가.

시대의 이 물음에 대한 심오한 대답을 우리는
서사시 《붉은기의 천만리》(문용철, 한광춘 작)
에서 감동깊이 듣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
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지로 되여야 한다.》**

서사시의 감화력은 한마디로 주체의 붉은기의
자랑찬 80년력사를 선군시대의 안목으로 새롭게
더듬으면서 또 하나의 역사의 진리를 웅심깊이
밝혀낸데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

붉은기의 천만리는 선군혁명의 천만리, 이것이
서사시가 내세운 주되는 형상과제이다.

조선혁명은 시작부터 선군이였다. 주체혁명위
업의 첫 출발을 선언한 《ㄷ.ㄷ》의 강령, 이것은
벌써 총대의 사명을 파악한 위대한 선견지명, 비
범한 철학적예지의 산물이었다.

무장한 적은 무장으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숨
결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기에 서사시는 이렇게 읊조린다.

-가자

총대의 힘, 단결의 힘으로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자
우리 조선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세계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혁명이여 앞으로!

숨죽었던 이 강산에 맥박이 뛰었다
산천초목이 새 생명을 지니고 설레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
이는 총대를 돛대로 세우고
반제의 붉은기를 돛쪽으로 펼친
조선혁명의 전투함

한가정의 대문밖을 나서기도 이른 그 시절
반만년의 민족사가 오직 그이에게 다 맡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그 전함에 실으시고
수령님 떠나신 선군의 첫 기슭이여
...

웁다, 총대의 힘이 없이는 조선의 해방과 독립
도 이룩할수 없고 세계의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
할수 없다. 숨죽였던 이 강산에 진정으로 맥박이
뛰고 산천초목이 새 생명을 지니고 설레일수 있
은것은 정녕 총대철학, 선군사상의 발견에 있었
다. 그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돛대는 정녕
총대였고 반제의 붉은기는 그 돛대의 돛폭이여서
그렇게도 끄떡없이 조선혁명의 전투함에 나뭇기
는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그 전함에 실으시고 선
군의 첫 기슭을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장
이 무엇이었던가. 서사시의 사색이 여기에 미친
다.

...

그날에 수령님 갖추신 령장은
김형직선생님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
민족운명의 무게
조국의 미래를 다 얹고
위대한 령장의 한생을 실은 그 령장

그것은 제국주의원썬들을 타도하는
무자비한 징벌의 우뢰를 재우고
백만천만이 함께 메고온
선군혁명의 령장-총대

우리 가슴 뜨겁게 하는 서정적해명이다. 《ㄷ.ㄷ》
의 시대적의미는 서사시가 탐구선택한 감동적인
시적세부에 의하여 더더욱 심오해진다.

...

그 령장으로
항일대전
반미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
그 불멸의 생애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우리 장군님 엄숙히 선언하시였어라
-《ㄷ.ㄷ》는 곧 선군이며

《ㄷ.ㄷ》의 강령이자
 선군의 강령입니다
 대원수복을 입으신 수령님의 동상을
 10월 17일을 맞으며
 김일성정치대학에 세웁시다

...

력사가 위인을 낳는것이 아니다. 위인이 력사를 창조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의하여 선군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다. 시대가 진리를 창조하는것이 아니다. 위인이 시대의 진리를 발견한다. 우리 수령님의 한생, 선군의 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그 심오한 의미가 밝혀졌다.

《ㄷ.ㄷ》는 곧 선군, 《ㄷ.ㄷ》의 강령이자 선군의 강령, 이 얼마나 명쾌한 진리의 해명인가.

10월 17일,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일에 대원수복을 입으신 수령님의 동상을 군정치일군양성의 최고전당에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숭고한 뜻...

서사시는 대담하게 위인의 심중에 간직된 붉은기 천만리의 철학을 풀어내고있다.

서사시가 《우리의 당기/ 우리의 국기/ 우리의 군기》가 《〈ㄷ.ㄷ〉의 한 기폭에서 태어나 거세차게 나뭇길》다고, 《가없는 저 하늘엔 기둥이 없》지만 《우리 수령님/ 총대로 들어올리신/ 인민의 하늘에는/ 억척불변의 기둥/ 총대기둥이 있》다고 격조높이 노래했을 때 그것은 총대철학의 정당성과 생활력, 선군사상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폭넓은 시적일반화이며 《ㄷ.ㄷ》로부터 시작된 붉은기 력사의 영광스러운 로정에 대한 가장 정확한 형상적 확인이다.

서사시는 우리 붉은기의 천만리는 선군의 천만리이며 그 위대한 계승에 의해 조선혁명의 미래는 창창하다는것을 긍지높이 노래함으로써 시의 철학성과 감화력을 한층 높였다.

...

영광스럽구나
 개척도
 위대한 태양에 의해 시작되고
 계승도
 위대한 태양에 의해 이어진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창창한 래일이

...

하면서 서사시는 《총대를 한생의 려장으로 삼고/ 오늘도 야전복차림으로/ 전선길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때로는 《야전숨웃》세부로, 때로는 《당중앙청사의 붉은기》, 《고요한 이른새벽》이 세부로 감동깊이 노래하면서 위대한 선군사상의 계승에 천만근의 형상적 무게를 부여하고있다.

2

붉은기의 천만리는 동지애의 천만리이다. 서사시는 여기에도 응당한 탐구의 시선을 돌리고있다.

하여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의 원천과 중국적완성의 필연성을 정서적인 철의 론리로 확인하고있다.

...

혁명의 려장을 갖추고 떠난 길은
 그리도 멀고먼 초행길이여서
 혼자서는 못 가 몇몇이서도 못 가
 생사를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애로
 우리 수령님 이끄신 조선혁명

...

심오한 철학이 울리고있다. 그렇다. 혁명의 려장-총대는 그저 쇠붙이가 아니다. 뉘이 있고 숨결이 있고 사상이 있는 생명체이고 동지이다. 총대가 가는 길은 이미 누군가가 걸어본 길이 아니라 전인미답의 초행길, 멀고 험하고 힘든 천만리이다.

때문에 총대에는 동지애의 뉘이 있어야 한다. 동지애의 숨결이 맥박치지 않는 총대는 막대기만도 못하며 그런 총대를 가지고서는 혁명은 커녕 자기 운명조차 지킬수 없고 천만리는커녕 단 십리도 갈수 없다.

이런 심오한 진리를 벌써 10대의 나이에 새기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의 첫 기슭을 떠나시면서 총대에 동지애의 뉘를 붙여넣으시였다.

그리고 동지애의 천만리를 수놓아오시였다.

정녕 《뜻을 품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로부터/ 수령님의 언문을 덥혀줄 집이/ 어뎜던 그밤엔 단 한채도 없었던만 그이에겐 더없이 귀중하고 위대한 집 ... 동지애의 집》이 있었다, 《그이는 언제나 그 집에 계신분》이였고 《동지들의 후더운 숨결 따뜻한 집/ 고난속에서도 함께 웃을줄 안/ 동지들의 그 다정한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이에게 있어서/ 동지는 혁명이였고 뉘를 나누고 피를 나누는 혈육이였고 / 자기자신》이였다.

서사시는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그 숭고한 동지애를 짙은 서정으로 더듬으면서 천품으로 된 그 동지애가 얼마나 심원한 혁명의 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우리의 총대가 무엇으로 그토록 변함없이 꺾겼는가, 동지애의 원동력이 없었더라면 조선혁명의 전함이 과연 승리의 향로를 곧바로 헤쳐올수 있었겠는가 하는 사색의 세계에로 독자들을 깊숙이 끌어들이고있다.

《ㄷ.ㄷ》의 행로는 동지애의 력사이고 우리 수령님의 동지애는 우리 장군님의 동지애이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동지애를 떠나서는
당도 혁명도 승리도 생각할수 없다는
그 혁명적동지관을
전선길 굽이굽이에 철리로 새기시며
동지애의 천만리를 이어가시는것 아니던가
...

서사시는 여기서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라는 이 한마디를 생의 전부로 남기고 떠나간 자
강땅의 한 전사를 못잊어 추억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애를 눈물속에 전하면서 빨
찌산동지애로 면면히 이어지는 조선혁명의 순결
성과 무한한 생명력을 긍지높이 확인하고있다.

...
정녕
세기를 이어 울리는 《동지행렬차》의
그 기적소리는
더 거세차게
더 질풍같이
《E.C》의 기관차가 달리는 소리
동지애의 기관차가 내닫는 소리
...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없이 행복하다. 그
《동지행렬차》에 네가 타고 내가 타고 《선군혁명
동지로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산다.》 경애하는
장군님 펼쳐주신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가 있어
우리는 모두가 한식솔로 《선군대가정의 크나큰
집》에서 산다. 참으로 긍지롭다. 이제 우리는 《혁
무기와 그 어떤 미싸일로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선군조선은/ 이 세상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보
유국〉》이다.

서사시는 이렇게 우리의 동지애의 헤아릴수 없
는 가치를 규정하였다. 아니 《발견》하였다.

그렇게 자기의 형상적가치도 높였다.

형상성의 가치는 예술적형식의 측면에서도 빛
나고있다. 여기서 선참으로 지적하고싶은것은
《려장》에 대한 세부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것은 서사시의 생명력을 담보한 예술적발견이다.

가사

《먼길을 가는 사람들 누구나 려장을 갖추더라》
라는 시문장에서 처음 등장한 《려장》은 서사시
의 전면에 사상정서적지평점을 마련하면서 작품
의 기본서정을 즐기치게 밀고나가고있다.

《그날에 수령님 갖추신 려장은/ 김형직선생님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

《위대한 려장의 한생을 실은 그 려장》

《선군혁명의 려장-총대》

《그 려장으로 / 항일대전/ 반미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려장 김일성대원수님》

《선군의 려장을 풀지 않은/ 위대한 군인의 모
습으로》

《아, 백두의 영원한 려장》

《혁명의 려장을 갖추고 떠난 길은/ 그리도 멀
고먼 초행길이여서》

《총대를 한생의 려장으로 삼고/ 오늘도 야전복
차림으로》

《장군님은... 총대의 려장을 풀지 않으리라》

《빨찌산려장을 메고 떠나온/ 우리의 길》

《선군혁명의 려장을 풀지 않으리라》

...

이 시문장들을 그대로 이어놓아도 뜻이 통한다.
려장의 개념, 려장의 본질, 려장의 의미가 밝혀지
는 과정이 곧 서사시의 종자가 심어지고 주제가
뻗고 사상이 해명되는 서정흐름이 되었다. 서사
시의 균재미와 명료성, 립체미와 박력을 보장한
주요한 형상적탐구이다. 일부 서사시들이 내용을
폭넓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산만하게 라
벌하면서 사상주제적초점을 흐리우는데 대한 일
종의 경고라고 말할수 있다. 이 서사시 3절에서
의 《숨옷》세부를 놓고도 같은 말을 할수 있다.

서사시는 사상정서적씨앗을 배태한 전형적인
사적내용의 간명한 제시로써도 최근 경향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자료의 과도한 램발로 정서의 나래
를 엮어매는 편향에 대해 시사적인 경중을 울리
고 있다.

서사시 《붉은기의 천만리》가 올려놓은 사상미
학적웨침은 진폭이 크다.

대보름달 좋아라

김용업

정월이라 대보름 달맞이 어서 가자
아이들이 꽃볼들고 뒤동산에 오르자
쟁반같은 대보름달 두동실 솟는다
오곡백과 주렁지라 우리 소원 담아보세
얼씨구 좋아 절씨구 좋아 우리의 대보름달

보약이라 오곡밥 명길이 국수로다
아홉가지 나물찬은 더위 안타 더 좋아
대보름달 동실 비킨 수정샘도 마시니

너도나도 새힘 부쩍 무병장수 문제없네
얼씨구 좋아 절씨구 좋아 우리의 대보름달

웃놀이라 웃음판 어절씨구 출판일세
기쁨절로 노래절로 온 마을이 떠들썩
등근달도 병실병실 한식구 되었다
선군덕을 노래하며 밝은 빛 뿌리네
얼씨구 좋아 절씨구 좋아 우리의 대보름달

단편소설



배경희

나는 부모님들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것이 많았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 알고있는것이란 어머니가의사로서 남조선에 고향을 두고왔으며 한생 남조선의 어느 지방 토질병약을 연구하였고 끝내 성공했다는것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자랐다는것, 어머니도 나를 만나면 고와서 불을 비비며 꼭 안아주곤 했지만 그 연구때문인지 내 곁을 떠나있을 때가 많았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였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는 아버지가 왜 서른살이 쯤 지나서야 결혼했으며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고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부모의 과거는 나에게 감히 들여다볼수 없는 불가침의 세계였던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마련되였다.

얼마전에 남조선의 어느 한 제약회사에서 어머니가 연구한 토질병약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기관에 편지를 보내여왔다.

《...타지방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질병에 대해 연구하던중 저희들은 그 병원체가 한때 그 지방에 만연되였던 토질병균 〈H〉의 변종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위생조건이 향상되어 그 토질병이 근절된것으로 알았으나 일시 억제되였던 그 병균이 공해로 인한 심한 환경오염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새롭게 변이되어 나타난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의학자료들을 료해하는 과정

에 10여년전 북조선에서 이 토질병약을 개발했다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변이된 병원체가 〈H〉균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귀측이 개발한 그 토질병약이 새로운 질병치료에서 효과적역할을 하리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귀측에 그 약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청탁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당부문 일군이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전달해준 그날 저녁 비로소 아버지는 나와 나의 남편을 앉혀 놓고 어머니가 그 약을 만든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내가 아직 모르고있던 새로운 이야기였다.

그날에야 나는 아버지의 가슴속에 어머니에 대한 얼마나 피로운 추억이 새겨져있는가를 알게 되였다.

X

《내가 너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것은 1950년 가을이였다.》

이렇게 서두를 댔 아버지는 뜨직뜨직 무겁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부대의 철수를 보장하고 뒤늦게 후퇴의 길에 오른 우리 중대가 전선부근 어느 산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우리가 차지한 고지와 잇닿은 바로 결봉우리를 향해 적들이 까맣게 기여오르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쌍안경으로 봉우리 정점을 유심히 살피던 나는 설된 나무들사이로 위장복을 입은 모습이 언뜻하는것을 발견하였다.

(아군정찰이다!)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때렸다. 경찰병은 한명밖에 보이지 않았다. 위협에 처한 경찰병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팽팽한 긴장이 전류처럼 온몸을 휘감았다.

다급히 전투조직을 한 다음 나는 연락병을 데리고 룡선을 따라 그 봉우리로 달려갔다.

우리를 발견한 사람이 총을 내들었으나 아군임을 알자 총을 내리쳤다. 그들은 두사람이었는데 한사람은 나무에 기대어 반쯤 누운 자세였고 다른 한사람은 무전기를 전개하고있었다. 무전수는 처녀였다. 반쯤 누워있던 사람은 우리가 오자 맥을 놓고 의식을 잃은듯 눈을 감아버렸다.

《동무, 놈들이 포위하고있소. 빨리 빠져야 하오.》

내가 다급히 부르짖으며 다가가자 처녀는 침착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중위동지, 본부에서는 우리의 소식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그리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레시바를 쏘았다. 그 단호한 행동과 침착한 태도에는 뭔가 상대방을 위압하는것이 있었다. 나는 묵묵히 그를 쳐다보았다. 속눈썹이 긴 매혹적인 큰 눈, 가름한 얼굴에 오흘한 코, 꼭 다문 도도룩한 입술, 흔히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얼굴이었으나 그 얼굴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위엄이 깃들어있었다. 그것은 임무수행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있는 아녀, 죽음을 초월한듯 한 모습이였다.

나는 돌아서서 연락병에게 지시를 주었다.

《2소대장에게 소대를 저 바위밑에 전개시키라고 하오. 그리고 3소대는 부상당한 경찰병을 후송하라고 하시오.》

싸움이 붙으면 우리가 포위에 들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병을 도와야 했다.

적들이 점점 가까이 올라왔다. 카빙총소리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울리고 눈먼 총알에 맞은 나무가지들이 머리위로 떨어져내렸다.

나는 적들을 바짝 접근시킨 다음 눈앞으로 다가오는 푸르끼레한 군복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온 숲이 떠나갈듯, 벼락치듯이 일제사격이 터졌다.

전투를 하면서 나는 무전수쪽을 살피는것을 잊지 않았다.

드디어 처녀가 무전기를 거두는것을 본 나는 소리쳤다.

《2소대장, 무전수를 데리고 철수하라, 빨리!... 연락병, 나팔!》

이윽고 철수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총성을 짓누르며 류랑하게 울려 퍼졌다.

사격을 하면서 벌떡 몸을 일으키던 나는 오른쪽가슴 윗쪽에 뜨끔하는 느낌과 함께 쓰러지고말았다. ...

내가 의식을 회복한것은 흔들리는 담가우에서

였다. 오른쪽가슴과 어깨, 목에 찌르는듯 한 동통이 느껴졌다. 흰한 하늘을 배경으로 춤추듯 움직이는 컴컴한 나무우듬지들이 어렴풋이 안겨왔다. 그 나무들과 하늘을 가리우며 누군가의 얼굴이 흐릿하게 나타났다.

《중대장동지가 정신을 차렸어요.》

기쁨에 넘친 녀자의 맑은 목소리, 누굴가? 중대엔 녀자가 없었다.

아, 그제야 나는 무전수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기쁨에 젖은 그 얼굴은 그냥 나를 내려다보며 옆에서 걸었다. 그걸로 눈물이 글썽한 연락병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린 연락병은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며 말하였다.

《난 중대장동지가... 그만 잘못되는가 했습니다. 무전수동무가 중대장동지를 살려냈습니다. 자기의 피를 넣어주구, O 형이라면서 ... 그리구...》

그는 처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끊어버렸다.

나는 처녀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한순간 엄해졌던 얼굴이 다시 풀어졌는데 그 얼굴에 어리는 수집은 미소가 나의 온몸을 따뜻이 쓰다듬어주는듯싶었다.

《이름이 뭐요?》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김은숙입니다.》

《고맙소.》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중대장동지가 아니었다면... 저때문에 중대장동지가...》

나는 아픔을 누르며 나직이 힘겹게 대꾸했다.

《우린 군인으로서 응당한 일을 했을뿐이요.》

그리고 연락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1소대장을 찾소.》

《저기 읍니다.》

은숙은 시종 내결결을 떠나지 않고 간호해주었다. 후에 안바이지만 중상당한 그의 조장은 그가 송신을 끝냈을 때 숨을 거두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았지만 이따금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면 그가 속삭이듯 묻곤 했다.

《상처가 아프세요?》

간절한 기대와 근심으로 떨리던 그 가냘픈 목소리. 그 목소리는 강심제마냥, 진통제마냥 내 혈관속으로 흘러들었다. 동통에 시달리는 나를 내려다보며 안타까움에 젖어들던, 런민에 찬 그 애타는 눈길을 나는 잊을수 없다. 어머니외에 그이상 더 살뜰하고 친근한 모습을 나는 상상할수 없었다.

다음날 밤, 우리는 전선을 넘었고 은숙이와도 헤어졌다.

어둠속에서 나는 은숙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눈이 나를 뚫어지

게 응시하고있음을 느꼈고 그 시선앞에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쥐더니 허리를 굽히고 속삭였다.

《중대장동지, 고마웠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다음 거수경례를 하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묵묵히 그의 뒤모습을 바라봤다. 허나 가슴속엔 뜨거운 용암이 서서히 차오름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가 떠나간 다음에야 런락병은 나에게 말해주었다. 내 목구멍에 피가 차서 질식되었을 때 은숙이 입으로 그것을 빨아내주었다고, 한시간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래서 나를 살려냈다고...

나는 멍히 나무라듯 런락병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야전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난 후에도 나는 침상에서 줄곧 은숙을 생각하였다. 나의 몸에 자기의 피를 넣어주고 생명을 구원해준 그 아름다운 처녀, 어둠속에서 신음하는 내 얼굴우에 허리를 굽히고 속삭이듯 《아프세요?》하고 묻던 근심스런 목소리, 애타던 그 눈길을 생각하면 내 가슴은 화끈 달아오르고 견잡을수없이 높뛰었다. 나는 애뜻한 정을 담아 입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보곤 하였다.

《은숙동무.》

그러면 그가 불쑥 눈앞에 나타날것만 같았다.

허나 그의 소식은 들을수 없었다. ...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은숙은 종무소식이였다. 그날밤 어둠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것만 같았다.

많은 군인들이 제대되어 고향으로 떠나갔다.

제대군인들을 떠나보내던 어느 자그마한 산간역에서 나는 눈앞을 언뜻 스치는 한 녀성군관의 모습을 띄어보고 지나쳤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돌아보았으나 배낭을 멘 뒤모습만 보고서는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 마음은 (은숙이다!) 하고 부르짖었으나 선뜻 발길은 돌리지 못했다. 그렇게 속아넘어간것이 처음이 아니기때문이었다. 꼭 은숙이 같아서 달려가 《은숙동무!》하고 불러보면 낯선 녀성군관이 놀란 눈으로 의아히 쳐다보곤 하였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가 꼭 은숙일것 같은 생각에, 확인해보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것 같은 생각에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돌아보니 어느새 그 녀성군관은 다른 군인들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시금 천천히 걸음을 내짚던 나는 그 녀군관을 놓치면 안된다는 불같은 충동에 휩 돌아서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녀성군관을 발견했다. 승강대손잡이를 잡고 막 오르려고 하는...

《저 ... 군관동무!》

나는 다급히, 그러나 자신없이 불렀다.

그가 돌아섰다, 우리는 한순간 굳어져버렸다. 의아히 나를 쳐다보던 그의 눈이 긴장해졌다가 놀람과 기쁨으로 확 밝아졌다. 잊어본적 없는 그, 매혹적인 눈... 입이 벅글썩 벌어진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묵묵히 마주보며 서있었다.

내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만나는걸... 못 만나는가 했소.》

《살아계셨군요.》 속삭이듯 나직이 대답하는 그의 눈에 물기가 뽀얗게 어리었다.

《그래 ... 어디로 가요?》

《평양의학대학으로 갑니다.》

호각소리들이 울리고 기적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쳐갔다.

《편지를 하오. 내 주소는...》

X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운명이 달리 되지 않았겠는지 ... 아니, 은숙의 생활제도에선 큰 차이가 없었을것이다. 그때 이미 그에게겐 뚜렷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은숙에게서 편지가 왔다.

은숙의 편지를 보면 그가 대학생활에 얼마나 큰 긍지를 느끼는지, 그의 생활이 얼마나 희열과 랑만에 넘쳐있는지 알수 있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자기들의 현재 생활뿐 아니라 미래의 꿈에 대하여, 희망찬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청춘의 랑만을 담은 편지들이였다. 하지만 이성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

은숙은 방학때 내가 제대되어 배치된 이 도시로 오곤 하였다. 고향이 남반부인 그는 갈 곳이 없었다. 아니,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찾아왔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나는 역으로 마중나가곤 했는데 기차에서 내리는 그를 볼 때면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던지 그때의 흥분과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는... 반가와하고 기뻐하기는 했지만 나와 같은 열정, 구김살 없는 순진한 기쁨의 분출은 없었다. 지내 내성적이라고 할가, 지나치게 자제한다고 할가... 무엇인가 서름서름한것이 우리사이에 계선을 긋고있었다.

나는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고있는 심정을 고백하고싶었지만 그의 학업에 방해가 될가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결심을 하고있었다.

드디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있는 도시의 의사로 배치되어왔다.

상봉의 기쁨을 안고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거닐었다. 서쪽하늘에선 노을이 붉게 탔고 부드러운

미풍이 우리의 얼굴을 시원하게 어루만져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뒤끝에 나는 말하였다.

《은숙동무, 동무만 반대없다면… 우리 결혼하
지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떨군 그의 얼굴은 웬일인지 심각하게 굳어져있었다. 녀자가 남자의 청혼에 선뜻 응하기 어려워할수도 있겠지만 처음 만난 우리가 아닌만큼 그의 그러한 태도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그리워해왔다고 믿어왔었고 서로 힘이 된다고 확신했었다. 나는 은숙이 없는 자기의 생활을 상상할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러오?》 나는 의아히, 조심스레 물었다.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게 있소?》

강물이 가볍게 칠씩이는 소리뿐 사위는 고요한 데 멀리서 배고동소리가 들려왔다.

이윽하여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늘한 시선을 강건너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쪽에 던지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저에겐 아들이 있어요. 저 남쪽에… 늙으신 시어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저를 기다리고계세요.》

너무도 뜻밖의 말이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멍히 바라보기만 하다가 떠듬떠듬 물었다.

《애아버지도 남쪽에 있소?》

《애아버지는 전쟁전에 놈들에게 학살되었어요.》

《…》 그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는가?

그가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중대장동지, 지금까지 지내여온것처럼 그렇게 지낼수 없을까요? 진실한 우정으로?…》

《…》

나는 대답할수 없었다. 뭐라고 하겠는가. 머릿속에선 《아들》, 《시어머니》하는 말들이 맴돌아쳤다.

나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해도… 나의 마음만은 변함이 없소.》 그리고 불을 토하듯 부르짖었다.

《동무의 아들도, 시어머니도 우리모두 한가정이 되면 될게 아니요?》

은숙은 눈물이 그렇게서 나를 쳐다보았다.

《중대장동지, 우리 이전처럼 지내자요, 예?》 그가 속삭이듯 뇌이는 말이었다.

이전처럼? 언제까지? 과연 그렇게 지낼수 있겠는가.

피로움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가슴이 활활 타올라 견딜수 없었다.

우리는 묵묵히 걸었다. 사위는 점점 어두워왔다. 칠씩이는 물소리만이 단조롭게 무엇인가 쉽없이 이야기하고있었다. 배에서 비치는 불빛인듯 멀리 수면우에서 무엇인가가 번쩍거렸다.

불타는 마음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며 출로를 찾았으나… 출로는 없었다. 출로는 은숙의 대답이었는데 그 대답은 이미 부정적으로 주어졌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순응할수 없었다. 그것은 은숙의 나에 대한 감정을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왜 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가? 아들, 시어머니? 희생된 남편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별로 크게 생각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상 무슨 문제될것이 있는가? 그래서 은숙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다. 왜? 왜?

그러던중 불현듯 머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희생된 남편에 대한 추억, 머느리를 기다리고있을 시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감과 죄의식… 그것이 그에게는 넘을수 없는 장벽으로 될수 있다는것이였다. 비로소 나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에게서 느껴지던 그 서름한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러서기에는 나의 심장이 너무도 세차게 고통쳤고 나의 피가 너무도 뜨거웠다.

더 다가서지는 못해도 물러설수는 없었다.

《약속하지요?》 은숙의 물음이었다.

《음-》 나는 갈린 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요.》 은숙이 속삭였다.

고맙다구, 무엇이? 내가 자기를 리해해주어서? 과연 그는 내가 물러설것을 바라는가? 나의 이 어정쩡한 태도에서 위안을 느끼는가?

내가 바란것은 그런 말이 아니였다.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 서로 힘을 주고 기쁨을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고통을 주고 있었다. …

무정한 강물은 장난질하듯 단조롭게 칠씩이며 쉽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서늘한 강풍이 불어왔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 시내쪽으로 향하였다.

《우리 래일 영화구경을 갈가?》

내가 불쑥 꺼낸 말이었다. 무엇으로든 우리의 마음에 드리운 그늘을 지워버리고싶은 몸부림이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가자요.》

그가 선뜻 찬성해나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어둠속이지만 그의 얼굴도 한결 밝아진듯싶었다.

X

다음날 병원사정이 허락치 않아 우리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다음엔 내가 일하는 기업소의 사정이 허락치 않았다.

우리가 영화구경을 간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

나서였다.

날씨는 얼마나 상쾌하고 따뜻한지 하늘도 우리의 그 걸음을 축복해주는듯싶었다.

아직 여기저기 폭탄구덩이들이 눈에 띄고 전쟁의 피해가 채 가셔지지 않았으나 젊은 심장들은 아름다운 랑만에 취하고 싶어하였으니 우리의 그 걸음엔 훨씬 더 큰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영화관으로 가는 길옆에 건설장이 있었는데 그 날은 휴식일이라 조용하였다.

우리가 그옆을 지날 때였다. 서너명의 작은 애들이 모여서있는 가운데에서 녀인의 울음섞인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섬찍하게 하였다.

우리는 급히 그리로 다가갔다. 애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웬 젊은 녀인이 천진한 사내애를 부둥켜안고 어쩔줄을 몰라하고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애가 기증기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진 것이었다.

《내가 좀 보지요.》

은숙은 아이의 상처입은 머리를 살펴보더니 다급히 지혈을 시키고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정하듯, 안타까이 쳐다보는 그 눈이 나의 가슴을 일었다.

《미안하지만...저... 혼자 가세요. 전 병원에 좀...》

나는 허전해지는 마음을 어찌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야 영화구경이 무슨 의의가 있는가.

《아니. 나도 같이 가지요.》

그리하여 나는 그날 영화구경이 아니라 병원구경을 하게 되었다. 아직 불비한것이 많은 병원, 낡은 2층건물에 자리잡은 병원이었다. 은숙은 나에게 미안해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나는 죄스러워하는 은숙에게 늦어보이며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너무 마음쓰지 말라고.

나는 은숙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있었다. 의사로서, 더구나 소아과의 의사로서 부상당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었을것이다. 또한-피투성이된 어린이의 정상을 보았을 때 남쪽에 두고 온 아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운하고 쓸쓸했다. 내가 발기하고 것처럼 별렀던 영화구경이 맹랑하게 류산되고보니 내가 은숙에게 주고싶은 뜨거운 마음이 결국 그런 운명을 지닌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갈마드는 것이었다. 그 예감은 결코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X

며칠후 우리는 퇴근길을 함께 걸었다.

그날따라 은숙은 말이 없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눈앞을 응시하며 묵묵히 걷기만 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아니요.》

나직한 대답이었다.

《그럼 왜 그러오? 몸이 아프오?》

《아니, 아무것도 아니예요》

마침내 우리는 갈림길에 이르렀다. 거기서 은숙은 옆길로 가야 했고 나는 곧바로 가야 했다.

《저... 중대장동지.》 은숙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고는 갑자르다가 말을 이었다. 《중대장동지, 우리더는 만나지 맙시다.》 그러더니 고개를 푹 떨거버렸다.

나는 아연하여 멍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건 무슨 소리요?》

《...》

《갑자기 그건 무슨 흥두깨비같은 소리를 하는 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그 역시 피로와하며 고민해왔다는 깨달음이 나의 가슴을 쳤다. 이 상태로 계속 있을수 없다는것은 그에게나 나에게나 명백한 일이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출로를 그는 나와 정반대로 찾고있었다.

불현듯 그가 머리를 쳐들며 입을 열었다.

《지난 기간 정말 고마웠어요. 중대장동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예요.》 내가 말을 막으려 하자 그는 다급히 말을 이었다. 《그러지 마세요. 중대장동지가 그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자폭하는 길밖에 없었을거예요. ... 중대장동지는 정말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에도 중대장동지의 그 마음에 떠받들려 만시름을 잊고 학업에 전념할수 있었어요. ...》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화물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갔다. 한줄기 바람이 먼지를 옆으로 밀어가버리자 다시금 눈앞이 선명해졌다.

《중대장동지가 결혼에 대한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기쁘고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요구에 응할수 없어서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중대장동지가 더 강하게 요구할가봐 두려웠어요.》

내가 다시 말을 꺼내려 하자 또다시 그는 다급히 내 말을 막았다.

《제가 끝까지 말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저의 심정을 그대로 다 터놓고싶어요.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겠으니깐요.》

저 분계선 남쪽에는 저를 기다리는 아들이 있어요. 살아있다면 말이지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혈분이인 그 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터질것 같아요. 그 애를 데리고 저를 기다리고계실, 이제는 일흔이 가까우신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늘 저로 하여금 죄스러운 마음으로 안정을 잃게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자기의 행복만을 찾아 새 가

정을 이루겠어요? 그러구 과연 이런 마음으로… 행복할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그렇게 한다면 통일된 후에 어떻게 그들을 만나겠어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을 부정하고싶었지만 무엇인가 마음속에 입을 열지 못하게 막는것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은숙이 계속하는 말이었다. 《중대장동지를… 잃고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지내자고 했던거예요. 그러나 일단 결혼문제가 상정된 이상 이전처럼 지낸다는것은 저자신이나 중대장동지에게 고통밖에 줄수 없다는걸 깨달았어요. 저때문에 중대장동지까지 독신으로 그냥 제실수야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것이 옳은 방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피로한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잊어지겠지요. …》

《아니, 안돼. 그건 안되요.》 내가 부르짖었으나 은숙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 부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책 몸을 돌려 달려가듯 총총히 걸어갔다.

《은숙동무, 은숙이!》

황급히 부르며 내가 뒤쫓아가자 그는 손으로 입을 감싸쥐며 달려가기 시작했다. 살이 타는듯한 쓰라림이 가슴을 훑어내렸다. 속이 텅 빈듯한 허전함과 줄지에 가장 귀중한것을 잃은듯한 상실감, 그를 돌려세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환멸과 허무감. … 아니, 아니야, 이렇게 헤어질순 없어. 그렇다. 그를 잃어버릴수는 없었다.

멀리서 무엇인가 하소하는듯, 꾸짖는듯 길게 울부짖는 기적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X

나는 여러번 병원으로 찾아갔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다. 낮에는 환자들앞에서 그를 불러내올수 없었고(그가 응하지 않았다.) 저녁에는 어느새 사라진 그를 찾을수 없었다.

나는 혼자 그와 나의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결과 그의 결심이 옳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만약 그의 시어머니와 아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어딘가에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것이였다. 그런데 그들은 남조선에 있었다. 그런즉 나라가 분열된 현조건에서는 그의 마음을 풀어줄 길이 없었다. 그가 말한것처럼 그 모든것을 무시하고 결혼한다면 과연 그가 행복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의 마음속 피로움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지 않겠는지… 거기에 대해 나는 대답을 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녀자를 생각하고싶진 않았다.

결국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통일이 될 때까지… 아니면 은숙의 생각이 달라질 때까지.

어느날 나는 어느때보다 일찍 퇴근하여 병원정문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윽하여 퇴근하는 사람들속에서 진곤색양복차림을 한 은숙의 날씬한 자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세차게 뛴뛰었다. 반가우면서도 피로왔다. 긴 속눈썹아래 서늘한 빛을 뿜는 그 아름다운 눈, 추연한 빛이 어린 가름한 얼굴이 그때 내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던지. 항상 곁에서 보고싶으면 서도 멀리 피해서야만 하는 가슴찡는 안타까움…

나를 본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한순간 밝은 빛이 스쳐지나갔을뿐 엄엄한 빛으로 굳어진 그의 얼굴은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적후에서 사경에 처한 그를 만났을 때의 그 표정이였다. 활기가 사라진 그 그늘진 눈이 나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우리는 묵묵히 함께 걸었다. 저벅저벅하는 발자국소리들만이 우리의 애타는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은숙은 통일을 멀지 않은 앞날로 믿고있었고 통일의 날 깨끗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자식앞에 나서고싶어 하였다. 부모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시부모에 대한 죄스러움과 세상 떠난 남편에 대한 순정이 통일을 눈앞에 보게 하는지… 그 마음, 그 의지를 나는 존중해주고싶었다.

누가 사랑은 자기를 바치는것이라고 했던가. 그렇다. 나는 그를 위해 자기를 바치고싶었다. 그래서 말하였다.

《동무가 피로울 때, 동무에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찾아주요. 언제까지건 난 동무를 기다리고 있겠소. 그럼 잘 있소!》

아니, 그것은 바치는것이 아니였다. 은숙이 아닌 다른 녀성을 나는 생각할수 없었던것이다.

X

아버지는 이야기를 끊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파르스름한 연기가 회색문양지를 바른 천정으로 구불구불 떠오르다가 사라진다.

《나라의 분열이 우리 민족에게 준 고통과 불행을 너희들은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절감하지 못할게다.》 하고 아버지는 무거운 시선을 창밖으로 던지였다. 《남반부에서 애인과 갈라져 북으로 들어온 한 녀인이 남쪽에 있는 애인과 만날 날을 그리며 일생 홀로 늙는것을 나는 보았다. 너의 어머니도 남쪽에 있는 시어머니와 자식을 생각하며 홀로 살 결심을 했었지. … 조국의 분열은 우리의 청춘시절에도 그들을 던졌었다. 하마트면 우리가 영영 가정을 이루지 못할번 했으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남편과 나는 묵묵히 아버지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담배연기를 후 내뿜고 담배불을 비벼 끄고나서 입을 열었다.

X

그후 나는 은숙을 만나지 않았다. 아니, 매일 만났다, 꿈속에서.

해마다 설날과 그의 생일이면 나는 그에게 엽서를 보내곤 하였다. 은근히 회답을 기다렸으나 ... 회답은 없었다. 그는 마치 나의 존재를 무시해버린것 같았다. 영영 잊어버린듯싶었다. 아니, 잊으려 애쓰고있다는것을 나는 알고있었다.

천리마대고조로 들끓던 그 시기 청춘남녀들의 생활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피어났던가.

나와 함께 제대되어온 청년들은 다 가정을 이루었다.

우리 공장에는 처녀들도 많았다. 멧쟁이 처녀도 있고 마음씨 곱고 순박한 처녀도 있었다. 모두가 나를 따랐고 존경해주었다. 그들이 나에게 그 어떤 다른 감정을 품고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나에게겐 그들이 훌륭한 동무들이고 우수한 로동자들이긴 했지만 그저 그뿐이었다.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내가 목석이 되어버렸는지 ...

나에게 처녀를 소개하는 사람도 많았다. 동무들속에도, 일꾼들속에도... 그들은 자기가 잘 아는 어느 처녀를, 아니면 자기의 친척이나 형제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내가 응하지 않자 의아해하였다. 약속한 처녀가 있는가? 어디에? 그런데 왜 편지도 없이 종무소식인가? 괜찮은 청년이 로총각으로 늙어가다니 ... 참 이상도 하다, 혹시 병이 있는게 아닌가, 별의별 의혹과 억측이 뒤따랐다.

한해, 두해... 세월이 흘렀다.

내 나이도 이제는 서른다섯이 되었다. 이제는 나를 총각이 아니라 홀아비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때로는 허무한 생각도 들고 당장 은숙에게 달려가고싶은 불같은 충동에 몸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은숙이만큼 훌륭한 처녀들이 없진 않았다. 그러나 어느 처녀도 은숙을 대신할수는 없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누를수 없이 치밀어오르는 그리움에 심장이 끓어오르곤 했다. 은숙이 나를 아무리 멀리 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포기할수 없었다. 비록 그를 만나지는 않았어도 나는 그에 대한 《정보》를 받는 소식통이 있었다. 그 소식통을 통해 은숙이 유능한 의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다는것, 그 무슨 약을 연구하느라고 고심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한 때 우리 직장에서 기계들이 파손되어 공장의 전반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생겼다. 원인은 운전공의 기계조작상 결함이었다. 부직장장으로 교대를 책임졌던 나는 사고의 책임을 지고 강직되어 원료직장에 나가 일하게 되었

다.

부끄럽고 괴로웠다. 스스로도 자기를 용서할수 없었다.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주던 모든 사람들 앞에, 때없이 눈앞에 떠오르는 은숙의 모습앞에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고 나의 초라한 꼴을 그가 불가봐 두려웠다. 비록 그런 일은 있을수 없는것이지만 ...

그날은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다.

앞을 가려보기 어려운 눈보라속에서 나는 갈단을 메고 절룩거리며 천천히 걸었다. 사고때 다친 다리가 아팠고 다져진 눈이 미끄러워 조심조심 걸어야 했다.

갈단을 내려놓고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돌아보니 직장장이 손짓을 하고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누가 찾아왔소.》 그가 손짓하며 소리쳤다.

직장장이 가리키는 곳에 흰 목도리로 머리를 감싸고 진곤색외투를 몸에 꼭 맞게 입은 날씬한 여자가 서있었다. 흰눈을 배경으로 두드러지게 안겨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울리었다. 은숙의 모습을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굳어진듯 서있었다. 그러다가 허둥지둥 다리를 절지 않으려 애쓰며 다가갔다. 수척해진,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운 귀중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러나 그는 긴장해진 눈길로 내 걸음새만 지켜보고있었다.

《다리가 몹시 아프세요?》

그가 한 첫마디였다. 다심한 정이 어린 그 목소리에 나는 아픔이 다 가셔지는것 같았다.

《일없소. 어떻게 여길?》

그는 미소를 지었다.

《중대장동지를 찾아왔지요 뭐.》

순간 나는 솟구치는 기쁨과 함께 저으기 긴장해짐을 느꼈다. 꼭 나의 도움이 필요했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성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나의 몸을 훑어보고 얼굴을 뜯어보는 그의 눈에 물기가 어리었다.

나는 어쭙게 웃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일하고있소 그런데 무슨 일이게? 아니, 우리 휴계실로 가 이야기하지요.》

그는 중기난방으로 덥기는 하나 화려하지는 못한 우리의 휴계실안을 빙 둘러보고 나의 장이 어는것인가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왜 원료직장에 와서 일하는가를 묻지 않았다. 다리를 왜 상했는가도... 그 사연을 이미 다 알고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도 나와 같은 《소식통》을 가지고있었는지 ... 하여튼 그는 다 알고있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고생이야 뭐... 누구나 하는 일인걸.》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사이 앓지는 않았소? ... 썩 축갔구만. ...》

나는 정말 근심스러웠다.

그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려버렸다. 허나 그 찰나 발깃해진 눈가에 반짝이는 물기를 그는 숨기지 못하였다.

순간 무어라고 말할수 없는 전파가 그에게서 날아와 내 심장을 두드리는듯싶었다. 그의 심장이 내 심장을 때린것 같았다.

나는 당황히 시선을 떨구었다.

《중대장동지.》

그가 불렀다.

시선을 든 나는 은숙의 눈길과 마주쳤다.

애끓는 심정을 담은 피로움에 찬 눈에서 맑은 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허나 그는 눈물을 닦을념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었다. 떠들떠들 떨리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제가 뭐길래... 저같은 여자때문에 ...》

떨리는 그 음성이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 들었다. 불시에 터질듯 높뛰는 심장의 박동으로 몸이 떨려왔다.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목을 째 메워버려 나는 굳어진듯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었다.

《나에게는 은숙이밖에 없소.》

그러자 그의 눈에 맑은 빛이 스치였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용서하세요. 중대장동지.》

그 들릴듯말듯 한 목소리가 내 흉벽을 광광 두드렸다. 나도 잠겨버린 소리로 겨우 속삭이듯이 대답했다.

《난... 믿었소.》

그때 그의 눈에 비졌던 정에 넘친 파스한 미소를 나는 잊을수 없다. 나는 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를 와락 그리안았다.

X

지나온 과거를 투시하는 아버지의 얼굴빛은 여전히 밝아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혼은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할수 있지. 그러나 그 행복이 공고화되자면 그들의 꿈과 지향이 실현될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거다.

결혼한 후에야 나는 네 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X

이따금, 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찬 저녁이면 은숙은 웬일인지 불안해하였다.

그럴 때면 무엇엔가 귀를 기울이며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도 하였다.

《왜 그러오?》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것 같아서 ...》하고 대답하였다.

나도 귀를 기울여보았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썩-》하는 바람소리와 비소리뿐.

처음에 나는 그런 일을 심상히 스쳤으나 점차 은숙의 그 불안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어느 가을날, 때늦은 비가 장마비처럼 구질구질 내리던 밤이었다. 저녁상을 거두던 은숙은 문득 굳어진듯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었다.

《왜 그러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하고 반문하는 그의 얼굴엔 누를수 없는 불안이 떠돌고있었다.

나도 귀를 기울였으나 비소리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난 모르겠는데.》

내가 고개를 기웃하자 그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귀를 강구며 중얼거렸다.

《꼭 아이울음소리가 들리는것 같았는데 ...》

순간 번개처럼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환각처럼 그의 귀에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언젠가 그가 하던 말이 다시 귀전에 울려왔다.

《전 아들에 대해 어느 하루도 잊어본적이 없어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혈분이인 그 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터질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근심이 얼마나 쌓이고 쌓였으면 저렇가싶어 나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다.

《너무 근심마요. ... 아무 소리도 없소.》

그날밤에 은숙은 나에게 말하였다. 자꾸만 반복되는 속에 이제는 자기도 의례히 착각이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고막에 울려오면 그 소리를 무심히 넘길수 없다고. ... 그 울음소리와 더불어 귀여운 사내애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둥글둥글하고 환한 얼굴을 애처롭게 찡그리며 서글피 우는 그 모습은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철부지 어린 아들의 모습이였다.

힘없이 엄마를 부르던 눈물에 젖은 얼굴,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팔을 내뻗치던 그 모습이 은숙의 심장을 비틀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안타까이 자기를 찾는 아들의 그 애절한 부름을 들으며, 폐부의 피를 짜내는 고통속에 은숙은 속으로 부르짖곤 하였다.

(영수야, 어디에 있느냐, 영수야?)

그러면 영수와 헤어지던 그밤의 일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며 가슴을 찢어놓곤 하였다.

아, 운명적인 그날밤... 그밤의 일을 은숙은 영영 잊을수 없었다.

깜깜한 하늘에서 비꽃이 떨어지고있었다. 등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며 은숙은 천방지축 걸음을 옮기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집에 가닿아야겠는데...

남편이 학살된 후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아기는 보름달처럼 환하고 투실투실한것이 얼마나 잘 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차며 불을 쓸어주지 않고는 못견뎌하였다. 은숙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겁다가도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온갖 시름이 잊혀지고 기쁨과 희망에 젖어들곤 하였다. 아기가 어머니를 보고 웃을 때면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듯 하였다.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고 그 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바치고싶은 심정이였다. 때로는 의문스럽게, 때로는 믿음어린 시선으로, 때로는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그 포렛포렛한 검은 눈이 은숙의 온넛을 뿔아가는듯 하였다. 왼쪽입귀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는 참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웠던가.

남편이 없는 그에게 시어머니가 생활의 기둥이였다면 아들은 꿈이고 미래였으며 억센 생명력의 원천이였다.

그 아들이 그만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기는 그저 엄마를 부르며 울음으로 아픔을 호소할뿐이였다.

《엄마, 엄마...》

의원의 집에서 약을 사가지고 돌아오던 그밤도 아이는 잔등에서 힘없이 울었다. 처량한 그 울음소리에 은숙은 가슴이 바질바질 타들었다.

고인 비물에 침범침범 빠지며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는 은숙의 눈앞에는 고개를 기웃거리던 늙은 의원의 어두운 얼굴이 자꾸만 얼른거리며 천근무게로 마음을 짓누르고있었다.

《선생님, 무슨 병입니까?》

은숙의 물음에 의원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얼마후 약을 내주면서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써보시우. 쓰면서 경과를 봅시다.》

웬일인지 그 말이 가슴에 걸려 은숙은 다시 물었다.

《이걸 쓰면 나을까요?》

《효험이 있을거요. 하지만... 아직 그 토질병에 대한 약은 알려진것이 없소. 그렇다구 락심할건 없구. 아이니까 나을수도 있지. 하여간 치료해보지요.》

의원이 하던 말을 곱씹으며 허둥지둥 걸음을 옮기는 은숙의 귀전에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와 힘없는 울음소리뿐 다른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가 집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을어구에서 개들이 유난스레 짖어댔으나 그것이 은숙의 가슴속엔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하였다. 오직 한시바삐 파듯한 아래목에 아기를 눕히고 약을 달여먹여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이 온몸을 불태울뿐이였다.

눈앞에 어슴푸레 삼짱문이 나타났다.

문을 밀고 들어서려는데 《애에미냐?》하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허여스름한 형체가 허겁지겁 다가왔다.

《예.》

《빨리 떠나거라. 놈들이 잡으러 온단다. 감나무집 머느리가 왔됐다.》

(감나무집 머느리?)

그것은 조직의 연락선이였다.

불시에 형언 못할 불안감이 가슴을 옥죄였다. 은숙은 아무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멍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구 이걸 샘골에 전하라우 하더라.》

절반 접은 종이쪽지를 내미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과 공포로 떨렸다.

《애는 이리 다구. 우는 애를 업구는 못 뛰여.》

개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와오며 소란스러워졌다.

《빨리!》 로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통이를 내밀었다.

《길에서 먹어라. 갈아입을 옷이다. 자, 어서!》

그때에야 정황이 긴박하다는 직감적인 깨달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다심한 정이 은숙의 심장속으로 젖어들었다. 무의식적으로 포대기끈을 푸는 손이 떨리며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엄마...》

아들의 맥없는 울음소리에 심장이 갈가리 찢기는것 같았다.

할머니가 반아안은 아이를 그는 다시 와락 그리안았다. 애를 두고 가다니, 아니, 그건 안돼. 그렇게는 못해!

《애에미야, 빨리! 빨리 뛰거라!》

시어머니가 아이를 뺏으며 안타까이 속삭였다.

《아... 어머니, ... 어머니 ... 애를...》

《오냐, 빨리 ... 빨리 ...》

시어머니가 등을 떠밀었다.

아이는 더 크게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빨리 뛰거라, 빨리!》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재촉의 웨침!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내디디자니 심장이 터질것 같았다. 그는 아이 대신 보통이를 꼭 그리안고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강잉히 몸을 돌렸다. ...

뒤에서 전지불이 비쳐왔다. 목갈린 웨침소리, 총소리 ...

은숙은 숨이 턱에 닿아 달렸다. 목에서 거불내가 나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었다. 논둑으로 달리다가 산을 낀 달구지길로, 다음엔 산속으로 접어드는 오솔길로...

허둥지둥 풀숲을 헤치던 은숙은 숨이 막히고 기력이 진해 걸음을 멈추었다. 뒤쫓아오는 소리가 이젠 들리지 않았다.

부지중 허리춤을 더듬는 손에 무언가가 미치였다. 엉겁결에 만져보던 그는 눈을 홑뜨며 굳어져

버렸다. 약, 약이었다. 아들에게 달여먹일 약!... 불시에 귀전을 울리는 아들의 숨가쁜 울음소리에 머리가 핑 돌았다. 맥없이 늘어진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밟혀오며 심장을 비틀었다. 아, 어쩌면 좋아.

그는 저도 모르게 발길을 돌렸다. 정신없이 오던 길을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발이 돌부리를 걸터쳐 피가 흘렀으나 별로 아픔을 느끼지도 못했다.

산밑에서 전지불빛이 번쩍거렸다.

놈들이었다.

그 순간에야 그는 샘골에 전해야 할 비밀쪽지가 품안에 있다는것을 의식하였다. 비밀쪽지!

그는 우뚝 멈추어섰다. 희생된 남편의 엄한 얼굴이 뇌리를 스치었다.

가슴에서 무언가 쿵 떨어져내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빠져버리는것 같았다. 아-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말았다. 흑흑 느끼며 풀포기를 마구 쥐어뜯었다. 두볼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엄마!》

애절하게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귀전을 어지럽혀 그는 두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엄마!》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냥 귀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힘없이 부르짖었다. 아, 영수야,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피로움에 몸부림치면서 그는 끝없이 아들에게 빌고빌었다. 며칠만 기다려다오, 내 돌아갈게. 래일모레까지만...

얼마후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비틀비틀 숲속으로 걸고있었다.

때는 1950년 6월이었다.

샘골에서 그는 전쟁을 맞이했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그후로는 시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그때에도 그것이 영원한 리별로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

조국해방전쟁 전기간 그리고 전후에도 은숙은 그 약을 소중히 보관해왔다. 약을 찔던 종이가 낡고 닳아 부스러져 다른 종이에 옮기고 옮기는 과정에 여러첩 되었던 그 약이 이제는 한첩도 되어나마나하게 줄어들었지만 그것을 버릴수는 없었으니 생사를 모르는 아들과의 련계가 그 약을 통해 이어지는것 같았고 그 약을 버린다는것은 아들을 버리는것과 같이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X

아들에게 주지 못한 그 약으로 하여 은숙은 고향의 토질병약을 연구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헌데 그가 연구하려고 한 약은 공화국북반부가 아닌 남조선의 토질병약이었기에 연구과정에 난

감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현지에 가볼수 없으므로 그 지방의 물과 토양에 대한 분석자료를 얻을수 없고 순전히 문헌자료에만 의거해야 하는 조건에서 자료연구에만도 막대한 품이 들었다.

우선 토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본래를 파악하고 해당한 균주를 선택하여 한천배양을 해야 했고 그 다음 그 균주를 잡기 위한 항생물질을 얻어내야 했다.

분별의 장벽이 가로놓이지 않았다면 단번에 쉽게 할수 있는 일도 그는 문헌자료에 파묻혀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것은 마치 한낮이라면 단번에 찾을 물건을 어둠속에서 순전히 기억과 감각에 의해 더듬어찾는것과도 흡사하였다.

옷방에 있는 책상우에는 늘 《미생물학》과 《생물학》, 《우리 나라 고려약의 성분과 약리작용》을 비롯한 고려의학참고서들이 쌓여있었고 밤깊도록 그는 그 책들속에 파묻혀 지냈다.

낮에는 치료사업을 해야 하고 아침저녁에는 가정부인으로서 잡다한 가정사를 피할수 없었던만큼 그에게는 늘 시간이 모자랐다. 휴식일과 명절 휴가기간이 그에게 있어 연구과업을 위해 짜낼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였다.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하여 그는 전문연구기관에서라면 단 몇달동안에 할 일도 여러해를 두고 해야 했다. 국립도서관(당시)의 서고에서 필요한 자료를 뽑고 약초들을 채취하러 다니느라고 불가피하게 출장을 자주 다녀야 했는데 그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연구사업이 주위에 알려진 다음에야 조직과 집단의 방조로 일정한 시간을 보장받게 되었다.

은숙이 출장을 가면 내가 집안의 주부노릇을 하였는데 영옥이가 젖을 떼 후부터는 《보모》노릇도 해야 했다. 그래서 탁아소에서는 우리 영옥이를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렀다.

내가 다시 부직장장사업을 하게 된 후에도 그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저녁.

부엌에서 밥을 짓던 나는 방에서 《팡》하는 소리에 이어 《와》하고 터치는 딸의 울음소리에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놀이감, 옷, 양말, 수건... 닥치는대로 널어놓은 방안은 기가 막힐 정도인데 여기저기에 깨여진 유리조각들이 반짝거렸다. 영옥이가 창문앞에 있는 책상우에 기여올라 갔다가 꽃병을 뒤편에 깨고는 제풀에 울음을 터뜨린것이였다. 혼자서 곧잘 놀더니 ... 끝내 사고를 친것이였다.

계집애가 어쩌나 벌찬지 사내애를 찹찹먹을 정도였다.

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애어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지만 집에서 너자가 할 일을 해야 하는 나도 어지간히 뼈근했다. 허나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평범한 의사로서 10여년간 짬짬이 약을 연구해온 안해에게 있어서 그 연구사업

은 삶의 한 부분으로 되어있었고 그것을 포기한다는것은 인생의 파탄으로 될것이기때문이었다. 피로와도 그를 탓할수는 없었다. 아니, 그래도 그를 탓하고싶었다.

가정부인으로서 본신과업외에 하는 그의 연구사업은 너무도 고달프고 힘겨운것이였다. 그에겐 그것이 운명적인것으로, 필생의 과업으로 되어있었기에 놀라운 투지로 이악하게 한걸음, 한걸음 걸어나갔지만 은숙의 정상이 너무 애처로와 그를 만류하고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솟구치곤 하였다.

지나친 과로로 하여 은숙은 얼굴이 몹시 축가고 자주 앓았다.

한달전에도 그는 고열속에 심하게 앓았었다.

저녁에 내가 집에 들어가니 은숙이 이불속에서 가느다란 소리로 묻는데 그 눈길의 심상치 않게 느껴졌었다.

《영옥이 아버지, 약, 약이 어디 있어요?》

《무슨 약, 해열제?》

그의 머리맡에는 해열제며 기타 필요한 약들이 다 놓여있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약 있잖아요?》

고열로 터갈라진 입술을 간신히 움직이는 그 충혈된 눈에는 극도의 불안과 의혹, 간절한 기대가 착잡하게 어려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그를 멍히 내려다보았다.

《그 약, 아이 약...》

그제야 영문을 알아차린 나는 서둘러 구석의 장우에 없어놓은 트렁크에서 종이에 싸고 또 비닐로 싸, 이제는 곰팡이가 낀 약재를 꺼냈다.

《이것 말이요?》

은숙의 얼굴이 약간 밝아졌다. 빼앗듯이 그것을 받아들고 서둘러 속의것을 꺼내보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꿈에 당신이 이것을 불속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깨어서 찾아보니 암만 해도 보이지 않아서... 잃어졌나 했었어요.》

《전번에 방을 정돈할 때 내가 치워놓고 잊었됐구만. 난 또 무슨 큰일이 난줄 알았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방금전 미칠듯 불안에 싸여 안타까와하던 그의 얼굴이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몸의 고통을 덜어줄 약보다 이제는 쓸모없게 된 그 약재들 더 소중히 여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지금도 그것이 그토록 그에게 귀중한것인가. 그 연구해서 성공하기전에는 절대로 저 약을 버리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에 갈마들며 어쩐지 무거워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방을 거두고 다시 부엌에 나와 서성거리는데 부름종소리가 울렸다.

문을 여니 하얗게 성애가 앓은 목도리를 두른 은숙이 문가에 서있었다, 범도 제 말 하면 온다

더니 ...

《아, 우리 〈연구사〉 선생이 왔구만.》 하고 내가 환성을 터치는데 어느새 방에서 뛰어나온 영옥이가 《엄마-》 하고 매달렸다.

은숙은 딸의 얼굴에 불을 비비며 추켜안았다.

《요 귀염둥이야. 그새 앓지 않았니? 아버지 말도 잘 듣구?》

영옥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코웃음을 쳤다.

《잘 들을게 뭐요. 얼마나 애꾸러기라구.》

《아니야, 아버지 말 잘 들었어. 세면두 하구 밥두 먹구, 혼자서 잘 놀구.》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는데 《혼자서 잘 놀았다》는 소리에 나는 가슴이 찌르르 울림을 어쩔수 없었다. 딸을 꼭 껴안은 은숙의 눈에 물기가 펴 돌았다.

은숙은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부엌으로 나왔다.

《이젠 들어가세요. 저때문에 정말... 안됐어요.》

《허허, 안되긴... 〈연구사〉 선생은 먼길을 왔는데 들어가 쉬거나 하오. 오늘은 내 〈료리학교〉를 〈졸업〉하는 날이니 솜씨를 보여야지. 하긴 졸업이 좀 앞당겨진것 같긴 하지만.》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하긴 예정보다 빨리 왔어요. 차편이 있길래.》

《그래 성과가 좀 있소?》

나는 기대를 안고 물었다.

대답대신 한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별로 큰 진척이 없는 모양이구나 하는 깨달음에 나는 위로의 말을 던졌다.

《일없소.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밤도 그는 옷방에서 탁상등을 켜놓고 두툼한 책들을 펼쳐놓았다.

먼길에 피곤할텐데 일찍 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러한 그를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불안했다. 저렇게 과로하다가 쓰러지거나 않겠는지 ...

과학탐구의 길이 험난한 가시덤불길이라고 하지만 은숙은 어느 과학자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고있었다. 그것은 그가 전문연구사가 아니라 의사로서 짬짬이 연구사업을 해야 했기때문이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그의 연구과제가 눈앞의 당면한 치료사업과 결부된것이 아니라 남조선의 토질병약이라는데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결심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의혹과 반신반의가 커가고 뒤에서 시비하는 목소리들도 들려왔다. 눈앞에 더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가 많은데 하필이면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조건에서 연구하기도 어렵고 성공한다고 해도 실지 치료에 도입할 가능성이 막연한 일을 가지고 모태길 필

요가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은 그의 연구사업에 대한 정열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어 병적인 현상으로까지 보면서 질시하였다. 그가 자주 출장을 다니는데로부터 다른 의사들에게 지워지는 이러저러한 부담이 그런 의견을 더 폭발적으로 야기시킨것이 아닌지. 아마 의사로서의 그의 높은 자질과 책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당조직과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정녕 그 정신적중압감을 이겨내기 어려웠을것이다.

병원에 있는 친구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격분을 금할수 없었고 그런 물리해와 편견을 통탄했으나 점차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엔 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은숙의 마음속고충이 어떠하겠는지도 짐작이 되었다. 일을 하면서 주위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는것처럼 괴로운것은 없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괴로운 생활을 계속하겠는가.

이럴 때 세대주로서 응당 방향을 바로잡도록 충고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싶었다.

나는 옷방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보니 은숙은 책을 보는것이 아니라 심중한 얼굴로 창문을 응시하고있는것이였다.

《피곤하지 않소?》하고 내가 묻자 은숙이 놀란듯 고개를 돌렸다.

《일없어요. 밤이 깊었는데 왜 주무시지 않으세요?》

《이제 자지, 당신이 나보다 더 피곤할텐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왜? 무슨 일이 있었소?》

나의 근심스런 물음에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저... 아무일도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해서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안해구실도, 어머니구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괜한 고생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을...》

어두운 창밖에 망연한 시선을 박은채 쓸쓸한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나는 책상결 침대에 걸터앉으며 속으로 망설였다. 그만둘까? 후에 말할까?

만약 내가 그때 그의 심중을 알았다면, 그 쓸쓸한 어조에 깃든 그의 고심을 좀더 깊이 이해했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그 일이 일생 뼈아픈 후회로 남을줄을 그때 나는 몰랐었다.

나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 입과 눈가에 전에 없던 잔주름들이 보였다. 랑미간사이에 패인 깊은 고뇌의 흔적, 어두운 시선, ... 가슴이 얼얼해왔다.

《당신의 얼굴이 요새 말이 아니요.》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차라리 보다 현실성있고

절박한 다른 문제를 연구하는게 어떻소?》

《아니, 현실성있고 절박한 다른 문제요?》

은숙은 놀란듯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에 비친 강한 의혹이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오. 나도 생각끝에 하는 말이니... 병원에서 당신의 연구를 놓고 뛰뛰하게 돌아가는 말을 나도 알고있지만 개의치 않았소.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심중히 대할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난 당신의 연구가 꼭 성공하리라고 믿고싶지만, 성공한다고 해도 그 연구성과가 치료에 도입되지 못하면... 그러니 현실적의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부정할수 없지 않소? 차라리 당신이 지금 립상에서 제기되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연구하면 사회적인 인정도 받을수 있고 더 크게, 더 빨리 성공하지 않을까. 당신은 유능한 의사인데 그 정열이면 치료사업에서도 더 큰 성과를 거둘거요. 그게 나라에 더 큰 이익을 주는게 아닐가?》

은숙은 굳어진듯 꼼짝하지 않고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문만 응시하고있었는데 이따금 눈에 격렬한 빛이 스치였다. 이윽해서 그는 단 한마디를 나직이 입밖에 냈을뿐이였다.

《저에겐 이 이상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없어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마음은 허전하고 쓰라렸다. 그의 결심이 정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괴로와한것은 그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로서는 어떻게 더 도와야 할지 방도를 찾지 못했기때문이었다.

그후 나는 그 일에 대해 더 생각지 않았고 잊어버렸다.

먼 후날 우연히 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며 뜻하지 않은 아픔을 주는것이였다.

돌이켜보건대 그때 내가 한 말들은 그에 대한 뒤소리의 골자를 옮긴것이였고 그것을 긍정한것이었다. 그것은 그 말에도 타당성이 있었고 은숙을 만류하자니 그 립장에 설수밖에 없었기때문이었다. 제판에는 은숙을 위해서 한 말이였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뜻하지 않은 타격이였다.

남편에게서, 자기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자기를 질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물리해와 불신을 보았을 때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는가.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영옥이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줄은 몰랐었다. 영옥이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병원의 일부 사람들과 같은 립장이라는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가슴이 비수에 찔리워 펄 구멍이 뚫리는 감을 느꼈다. 그 구멍으로 심장의 피가 쏟아져나가고 텅 빈 공허가 깃든것 같았다. ...

이런 허무감, 이런 쓰라림을 맛보자고 천리길을 달려왔던가싶었다.

영옥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아닌 영옥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타격을 줄줄은... 그럴줄은 몰랐었다. 이런 일이 있을줄은...

아마...영옥이 아버지는... 내가 애처로워서 그랬을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바란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에게 힘을 줄것을 바라서 그에게 피로움을 하소했었다. ...

헌데 믿고 기대려는 순간 그 담벽은 무너지고 발밑의 땅은 꺼져버렸다. ...

과연 영옥이 아버지까지 믿지 않는 일을 내가 성공해낼수 있을까...

물론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내가 약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약은 필요없는것으로 될수 있다. 하지만 나는 통일을 믿으며 영수와 만날 날을 눈앞에 본다. 그날을 보기에 아무리 힘들고 피로와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연구를 계속하는것이다. 하지만 힘들다. 너무도 힘에 겹다. 오직 때없이 눈앞에 떠오르는 어린 영수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나를 채찍질하며 일으켜세울뿐이다.

이럴 때 영옥이 아버지에게 의지할수 있다면, 그가 나를 힘있게 떠밀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 영옥이 아버지 ...

어쩌면 당신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나요? 어쩌면?... 왜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주시나요?

울음이 터져나와 더 쓰지 못하겠다. 입술을 깨물어도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려 글줄이 보이지 않는다. ...》

그 피로움을 그는 혼자 남몰래 묵새졌었다. ...

실로 연약하고 부드러운 녀성인 그가 그 처절한 심리적싸움에서 어떻게 디디고 일어설수 있었는지?...

결국 나는 본의는 아니지만 자기를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을 등뒤에서 찢은 격이 되었다. 그리고도 그를 사랑하고 위해주었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통탄할 일인가.

은숙은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에게 내보이며 하지 않았다. 혹시 환멸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는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나에게서는 피로움을 주지 않으려고 모지름썼다.

강의하면서도 다심하고 부드러운 그의 마음을, 그 연한 살에 생긴 피흐르는 상처를 때늦게나마 내 그때 들여다보았다면 그후 다시는 그런 아픔을 그에게 주지 않았을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 ...

그후 어느해 늦은 여름, 나는 약초를 채취하러 갔던 은숙이가 사태를 만나 굴러내려오는 바위에 부딪쳐 심한 부상을 입고 그 근방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부상? 입원?)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만류하는걸 듣지 않고 그냥 몸을 혹사하며 다니더니 이제는 사고까지?... 억이 막혔다. 바위에 치웠다니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불안으로 떨리

는 가슴을 안고 그리로 달려갔다. 그때 비는 왜 그리 많이 오던지... 바지를 온통 진탕범벅으로 만들며 나는 병원에 들어섰다.

넓은 입원실 한 구석에서 헐쭉해진 얼굴에 눈만 커진 은숙이 모포속에서 나를 보더니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다가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풀썩 쓰러졌다. 그리고는 움푹 꺼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해요. 저때문에 또 이렇게 고생시켜서...》

《쓸데없는 소리. 가만히 누워있소. 어딜 상했소?》

모포를 들쳐보니 한쪽다리가 절구통처럼 굵어졌었다.

진단은 분쇄골절이었다.

은숙이 일하는 시병원에서 대책을 취해주어 그를 우리가 사는 도시로 후송해왔다. 촬영, 협의, 다시 촬영... 키브스... 그후 두달동안 병원의 간호원, 간병원들이 정말 수고했다. ...

그때 나는 다시는 은숙을 집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의 건강이 나에겐 무엇보다 더 소중했다. 건강해야 연구도 할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약은 사실 의학과학원에서도 연구할지 모르며 남조선에서도 벌써 누가 연구했는지 알겠는가.

그런데 은숙은 운신할수 있게 되자 다시 떠나려 하였다. 사태를 만났을 때 잃어버린 약초를 다시 캐와야 한다는것이였다.

나는 그만 버럭 성을 냈다.

《남편이 그만큼 말했으면 좀 들을줄도 알아야지. 아직 완전히 낫지도 못한 몸으로 어딜 또 간다는거요? 이젠 아무데도 못 가오!》 그리고는 선언하듯 못을 박았다. 《정 가겠으면 대신 돌아오지 마오.》

은숙은 놀란듯 나를 쳐다보더니 시선을 떨구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본의아니게 성을 낸 나도 마음이 언짢아 집에서 나오고말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은숙은 없고 편지만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영옥이 아버지, 당신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영옥이 아버지가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은 알고도 남지만 전... 떠나지 않을수 없어요. 얼마전에 7.4북남공동성명이 나오고 온 나라가 통일열기로 들끓는데 그 약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치료만 받으며 집에 앉아있자니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오지 않아요. 당신 곁에 마음 편히 앉아있지 못하는 제 심정을 이해해주세요. ...

언제나 저를 위해 묵묵히 자기를 바쳐오신 당신에게 기쁨을 드릴 대신 피로움만 드리는 자기 자신이 한스러워요. 하지만 우리도 함께 기뻐할 때가 있겠지요.

영옥이 아버지, 절 이해해주세요. 너무 제 마음대로만 한다고 나무람만 마시고...》

그때의 심정을 은숙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끝내 떠나왔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영옥이 아버지가 뒤에서 노여운 눈길로 지켜보는것만 같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를 아껴주는 영옥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지 않으면서 엿서나 가자니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다. 내가 없는 빈방에 들어와 쓸쓸해하실 영옥이 아버지와 영옥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서 못견디겠다. 하지만 이 약을 만들어내고 통일의 날 영옥이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갈 그날을 그리며 이를 악물고 집에서 나왔다...》

영옥이 아버지, 저를 용서해주세요. 당신의 그 진정에 보답할 때가 올거예요...》

실로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가.

나는 은숙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으로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것이 아니라 제동기가 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만 실어주었다...

때늦게나마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그를 괴롭힌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죄하고싶었지만 이미 그는 이 세상사람이 아니었다. 그 고통으로 하여 그렇게 일찍 떠나간것이 아닌지? 나는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가 하던 말이 떠오른다.

《저에겐 이이상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그때 그에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안겨왔을가.

그렇다. 그는 언제나 분리의 아픔을 안고 살았고 사랑하는 아들 영수와 만날 통일을 내다보며 살았다. 그랬기에 그 약에 대한 연구를 끝까지 해낼수 있었다고 본다. 가슴속 상처를 가실 길은 통일밖에 없었기에. 실로 우리 인민에게, 우리 민족에게 통일보다 더 절박한 현실적문제가 있겠는가.

누구나 통일을 바라고 통일을 위해 애쓰다고 한다. 그러나 은숙의 심장속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태워버린 애절한 통일의 열망을 나는 얼마나 깊이 이해했던가.

그처럼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사심없이 깎그리 바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통일을 바라다고 하랴.

진정 그렇게 간절한 소원-피라는 통일의 갈망이 은숙을 그렇듯 강毅한 녀자로 만든게 아닐가. 그 갈망이 없었다면 아무리 이악한 녀자였다고 해도 연구를 끝까지 해낼수 없었을것이다.

은숙은 약의 완성단계에서 인체실험을 자기 몸에 하였고 그 다음엔 딸에게 하였다. 몇번 실패한 그런 실험의 후파로 그가 더 오래 살지 못한것 같다.

하지만 그는 한생을 바쳐 끝끝내 고향사람들에게 줄 약, 아들에게 줄 약을 만들어냈다. 약은 만들어냈으나 그 약을 치료에 도입하지는 못하였다. 그 약이 실지로 치료에 쓰일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그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순간에 그가 나의

손을 잡고 안타까이 하던 말을 나는 잊을수 없다.

《통일되면... 우리 고향에... 영수를 찾아봐주세요. ... 그리고... 약... 약을...》

X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가슴을 허비는 괴로움과 흥분을 누르려는듯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고 침묵을 지키다가 뜨적뜨적 입을 열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우리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북남 교류가 활발해지고 남조선에서 그 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정말 통일이 다 된것만 같구나. 너의 어머니가 오늘을 봤으면 ...》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싶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헌데 그 회사에서 약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자료들을 요구했다는데 ...》

나는 눈이 커졌다. 끝맺지 않은 아버지의 뒤말이 가슴에 마쳐왔다.

그 약은... 그저 하나의 발명품이라고 할수 없었다. 물론 어느 발명품이나 다 과학자의 고심참담한 행로가 깃들어있는데이지만 이것은, 이것은 어머니의 생명과 우리 가정의 력사가 깃든것이였다. 통일을 갈구하는 우리 어머니의 녀이 깃들었다고 할수 있는, 그 어떤 채부와도 바꿀수 없는 우리 가정의 가보였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더우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어머니 그자신이였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버지, 그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며 무엇인가 재촉하는듯 하였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나도 너와 같은 심정이다만...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것 같으나?》

어머니라면 ...

나는 대답할수 없었다. 그 약을 위해 생명까지 바친 어머니, 어머니는 그 어떤 명예나 자신을 위해 그 약을 만든것이 아니였다...

옷방에서 딸애가 록음기를 틀어놓았는지 부드러운 녀성중음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

통일 통일 통일아 어서 오려마

갈라진 아픔 더 못 참아

온 겨레 웨치는 통일

...

아버지도 나도 남편도 모두가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그 노래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피라

는 웨침처럼 들렸다.

x

나는 아버지의 바래움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나에게 해당 일군을 만나라고 하였다.
내 가방속에는 어머니의 한생이 깃든 푸른색 뚜껑의 자료철이 있다. 약에 대한 연구자료들이다.
그것을 넘겨주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다. 어머니의 넋과 우리 온 가정의 희망과 쓰라림과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있다. 그것을 오늘 넘겨주려고 간다. 어머니가 그것을 바랐을것이지기에...

그것이 통일으로 가는 한걸음이기때...

절로 눈물이 앞을 가리워 나는 손수건을 꺼냈

다.

어머니, 제가 약을 가져가요.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던 오빠에게 드리기 위해 제가 가지고 가요.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

통일 통일 통일이 어서 오려마

불러서 웨쳐서 울거나

일어나 싸워서 통일

...

그것은 내 심장속에서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오빠를 향해 달려가는 어머니의 노래소리였다.

무재봉 봄날의 서정시

리명옥

숨숨히 날리는 민들레 꽃솜방울
나불나불 따라가는 나의 아가야
어디까지 가려니 봄하늘 끝까지 가련
아서라 이젠 그만 사진을 찍자
엄마와 함께 이 봄날 사진을 찍자

저길 보렴

무재봉 푸른 숲이 손저어 부르지 않니
저기 저 모래불엔 타는듯 붉은 해당화
축복의 인사 보내는것만 같구나
네 돌생일사진엔 머리 숙였던 이 엄마
온 세상이 다 보게 기쁘게 웃으련다

쪽거울에 남몰래 비쳐보던 이 엄마 얼굴
오늘은 가없이 넓고 푸른 하늘에 비쳐보련다
맑고 순진한 네 눈동자에
그 아름다운 봄하늘 통채로 담아주련다

어서 오렴 나의 아가

너를 꼭 껴안고 저 산기슭까지

달려보고도싶구나

이 엄마 병사시절

해풍에 해군병기 날리며

무재봉기슭 감돌아흐르는 시내물 따라

산나리꽃 군모에 꽃고 힘껏 달려본 길이다

뜻밖의 불길에 구호목숨이 타버릴 때

이 엄마 불새 되어 날아든 길이란다

얼굴에 난 화상자리 못내 가슴 아프시여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며 발걸음 못 떼신

장군님의 천리 먼 전선길이 이어진 길이란다
아, 언제면 너는 알게 될것이나
네 나이 이제 겨우 세살
너 하루에 열살씩 클수는 없는것이나
얼마나 크나큰 사랑속에 이 엄마가 다시 태어났는지

얼마나 자애로운 그 품에 네가 안겨있는지

수만리 하늘길은 너를 위해 열려진 길이란다
엄마를 세상의 전부로 아는
너의 그 티없는 눈동자에 그늘 질세라
나라의 천만재부를 들어
세상이 다 아는 제일 고운 엄마로 내세워주신
그 사랑

너를 낳은것은 이 엄마지만

너에게 엄마를 주신분은 장군님이시구나

네 이제 크거들랑 노래짓는 사람이 되거라

너에게 온 세상을 다 주신

위대한 그분의 노래, 태양의 노래를 짓는

봄의 가수, 태양의 가수가 되거라

아가, 어서 사진을 찍자

이 엄마 모습 다 비껴담은 봄하늘 배경으로

해빛을 다 모아 온 세상이 환하게 웃으며 찍자
선군태양이 피운 꽃- 아기를 안은 엄마

아, 무재봉 봄날의 서정시 같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 사진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선참 보내드리자!

우리 집

박정애

《우리 인민반장》

새벽도 이른새벽
남먼저 문을 열고
어제는 마을 울담 땀흘려 손질하더니
오늘은 꽃나무마다 듬북듬북 북을 주는
언제 보아도 부지런한 우리 인민반장

마주서면
그 눈빛에 흐르는 정 따스하고
입가에 핀 웃음 얼마나 부드러우나
한치마아래 모여사는 서른세대
극진한 후더움으로 보살펴가더라

날마다 가지가지 사연을 안고
집집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사랑과 정으로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
말없이 심장을 움직이게 하거니

그 고운 살뜰한 인정미
우리 생활에 흐르는 그윽한 향기되어
마음속 근심도 다 터놓고
마을을 꾸려가는 일이라면
누구나 한모습으로 펼쳐나서거니

늘 젖은 손 마를 사이없이 어려운 그 나날에도

영예군인가정에는 친딸이 되고
로병들 가정에는 만며느리 되어
봄빛같은 그 정다움 그 부드러움으로
고향도 성격도 서로 다른 큰 한식술에
다정히도 화목의 꽃을 피워라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사회주의 꽃술을 가꾸는 원예사인듯
선군생활문화모범가정들로 꽃피워
영예의 붉은기인민반의 자랑 떨치며
우리 마을 새벽문 남먼저 열지 않았던가
깊은 밤 제일 늦어 그 문을 닫지 않았던가

인민반장!
인민이라는 그 숭엄함과 어울려부르는
고귀하고 값높은 부름
어른도 아이들도 스스로 따르며 부르거니

동산에 솟는 아침해런가
새봄 부푼 꽃망울 가웃이 바라보는
우리 인민반장의 기쁨넘친 그 웃음
우리 마을 창가들에 노을로 비껴
아 내 사는 우리 마을 정다운 나의 집이여

도 표

인민반 한식술이 여기 다 모여
날마다 키 솟구는 붉은 줄
서른세대 이름 나란히 한 저 도표

나라를 돕는 일에 양보가 있으랴
애국의 마음에 뒤횼자리가 있으랴
뜨겁고 열렬한 하나의 지향

거울처럼 비쳐주는 저 곧은 줄

높낮은 직급 따로 없이
순결한 량심들 어깨를 겨루며
조국을 받드는 장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인듯

《생활반실》

류다른 동심생활 펼쳐지는 집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돌아온 우리 마을 아이들
떠들썩 그림책을 읽고 즐거이 노래 배우며
영웅들 이야기도 들려주는 집

해빛 따사로운 한뜨락에서 걸음마 땀적부터
오빠야 누나야 덩굴며 뛰놀며
두볼에 앵두물 들도록 숭박곡질도 함께 한 사이

장난 세차 꾸지람도 함께 받던 사이
등근 책상에 오בות들 모여앉았구나

학교에만 선생이 있더라
마음 착한 고운 아이 되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깨우쳐주고
좋은 일 했을 때는
세심한 교양원 그 마음 되여주는 우리 인민반장

스스로의 량심으로 올라선 교단이어

집은 다름바 없건만
벽에는 《배움의 천리길》로정도 걸려있고
웃어른들께 지켜야 할 레의법절
그 걸그림이 걸려있는 집
조국애의 꿈을 키워주는 우리 마을 《교실》이어

기쁜 일 늘 기쁜 일

종구나
구름타고 실려온듯 바람타고 날아온듯
생활의 바다를 헤가르며
나래돌쳐 문을 두드리는 기쁜 일 늘 기쁜 일

언제부터였던가
3층 4호집 군대 나간 둘째아들
장군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었다던 소식
새벽안개 흔들며 온 마을 들썩케 하던
그날부터인가
현대과학의 새 발명으로 박사가 되었다던

개성집아들의 그 이야기 전해진 때부터인가

날마다 사람들 가슴들먹이게 하는
큰 기쁨 더 큰 기쁨
보아라
2층 6호집 장한 딸 만이 윤미가
세계녀자축구계를 뒤흔들고 왔다지 않느냐
걱정의 파도 일렁이는 바다처럼
선군승리 만세높이 흥하는 나라에
마음 진정할길 없는 기쁜 일 늘 기쁜 일
우리 집 우리 가정의 경사로다

인정의 불빛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정든 눈빛처럼
후더운 손길처럼
우리 마을 창가에 흐르는 저 불빛

자주 머나먼 취재차로 집을 비워두고
늘 일터에서 늦어 돌아오는
나의 집 창가에 불빛 흐르지 않아도
한번인들 그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던가

집으로 돌아온 이 저녁
아들아 내 불려 찾지 않아도
밝은 웃음 날리며 뛰노는 애뜻한 그 눈빛
따스한 저 창가에 비껴오거니

저 불빛들에 어려있지 않느냐
온 마을이 내 아들 탁아소적부터
막내인듯 손자인듯 한식구로 살며
유원지도 함께 가고 학부형도 되어주던 마음들

또다시 먼길을 떠나야 할 래일을 두고
마음 무거워할 때는
친어머니 심정으로 내 아들을 말아 안으며

등을 떠밀던 옆집 할머니의 그 진정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스스럼없이 문턱을 넘어서던
이웃들의 잊을수 없는 그 모습들

떨어져선 못살 정을 맺은 저 불빛 떠나
내 따로 이야기할 그런 생활 있던가
어머니되고 언니되고 친형제되는
눈물겹도록 고마운 마음들이
조국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소중한 불빛이어

그 불빛 안으면 바람찬 길을 가도 이 마음 혼 혼
하고
어둠속을 갈 때면 내 앞길 따라서며 비쳐주거니
저 불빛은 밤하늘의 별빛인가 은하인가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인정의 불빛

세월의 끝까지 나를 감싸줄 빛이어
더 아름다울 래일로 향한 이 땅에 흐르는 정이어
이 세상 그 어디서 찾아볼수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
온 나라 대가정을 한품에 안으신 우리 아버지
태양의 그 따사로움에서 흘러온 빛이어

정의와 량심에 살려는 작가를 믿어주고 이끌어주시어 (2)

박춘력

지성과 량심의 필봉을 들고 정의와 진리를 열렬히 노래하던 김사량에게 있어서 해방후 5년간은 창작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 그는 단편소설들인 《마식령》, 《칠현금》, 《남에서 온 편지》, 《대오는 태양을 향하여》와 희곡들인 《지열》, 《더병이와 배병이》 그리고 시극, 정론, 수필 등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자기 작품들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구현하고 새로운 현실을 열렬히 긍정하며 혁명전통과의 계승적 련관에서 생활을 그리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이고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창작자세였다.

특히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자기의 문학작품창작에 구현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흥미를 안고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와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을 형상한 장막희곡 《퇴성》을 창작할수 있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불굴의 항일혁명투사들을 형상한 이 작품은 주체35(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를 경축하여 공연되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대회대표들과 함께 연극을 보아주시고 작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연극을 곱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정신을 잘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의의있는 작품이라고 높은 평가와 치하를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작가들이 로동계급의 문화를 건설하는데서 그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김사량의 남다른 창작적열정과 패기, 높은 문학정신과 진취적인 창작자세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을 자양분으로 하고 토양으로 하여 배양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안목을 튀워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며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바로 그가 장막희곡 《퇴성》을 우리 희곡문학창작과 연극예술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작품으로 완성할수 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에게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력사적사적과 그 형상방도를 가르쳐주신 세심한 지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해방된 이듬해 화창한 봄빛이 짙어가던 어느 날 김사량은 몇몇 작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의 저택으로 가게 되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에게 보천보 전투이야기를 비롯한 항일유격대의 여러 전투담들을 감명깊게 들려주시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민족사에서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투쟁이며 조선민족의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투쟁행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웅적으로 희생되었는데 이 영웅적투쟁정신과 업적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있으며 세월이 흘러가면 아주 잊어버리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작가동무들이 글을 써서 인민들을 교양하고 후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영웅적사실과 희생된 혁명렬사들을 형상하는 문제가 작가들의 민족적사명과 의무로 된다는데 대하여 깨우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전설로만 들어오던 항일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사실과 빛나는 업적을 보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직접 듣는 김사량은 창작적충동과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기의 글들에서 민족의 태양, 전설적영웅으로서의 수령님의 업적과 품모가 미흡하게 그려졌음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럴수록 그이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새로운 작품을 써내고싶은 충동이 못견디게 그를 사로잡는것이였다.

김사량은 해방후 선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고 혁명전통주체의 문학작품창작에 자기의 넋과 모든 지혜를 바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그는 그 이튿날부터 작품창작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창작된것이 장막희곡 《퇴성》이었다.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이 것처럼 따사로웠기에 김사량은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창작활동을 왕성하게 벌려나갈수 있었으며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혁명적작가로, 문화전선의 투사로 자라날수 있었다.

이 나날에 그는 인생의 보람도 행복도 아버지 수령님의 품속에 있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터득하였으며 수령을 받드는 신념만은 변해서는 안된다.는 참된 인간의 넋을 간직하게 되었다.

당적작가로서의 김사량의 당과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가장 높이 발휘되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주체39(1950)년 6월 26일방송언설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종군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선참으로 종군의 길에 오른 김사량은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를 따라 서울, 수원, 대전, 락동강, 마산으로 진격하였으며 그 피어린 행군길과 포연탄우속에서 《서울서 수원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 《락동강안의 전호숙에서》, 《지리산유격구를 지나며》, 《바다가 보인다》와 같은 종군기들을 련속적으로 써냈다.

김사량의 종군기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의 위대한 력사와 승리에 대한 생동한 기록이며 남반부해방의 영웅서사시이다. 거기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고 어떻게 한강을 넘어 수원을 공격하고 대포위섬멸전으로 어떻게 대전을 해방하였으며 락동강을 거쳐 남해가 보이는 마산에 어떻게 육박하였는가 하는것이 생동한 화폭으로 묘사되어있다. 김사량의 종군기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대한 생동한 화폭이고 우리 인민군대의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한 열렬한 찬가이다. 동시에 그것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취약성과 패망상, 야수적만행을 온 세상에 폭로하고 고발하며 놈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준엄한 론고장이기도 하다.

김사량은 이 종군기들로 하여 인민군전투원들과 후방인민들속에서 더욱 사랑받는 작가로 되었다. 그가 조국해방전쟁시기 눈부신 종군활동을 벌리도록 떠밀어준 힘의 원천은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이었다. 그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한 김사량은 남해가 보이는 마산까지 달려와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동무들, 돌격앞으로!

우리들은 고기비늘같은 만신의 상처들을 더듬으며 거인파도 같이 이 산악에서 내려가리라.

...

오각별 삼색기 펄럭이며 위대한 령수 노래부르며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리라!

바다가 보인다, 거제도가 보인다.

바로 여기가 남해바다이다.》

주체39(1950)년 9월 남해가 바라보이는 마산계선에까지 나가서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를 쓴 김사량은 전선형편이 급변된것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적들의 포위속을 뚫고 북으로 헤쳐오던 그는 오래전부터 앓고있던 심장병이 도지며 그만 남한강나루에 이르렀을 때는 더는 운신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기때문에 친우들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김사량은 담가에 앉은채로 후방에 보내는 이런 편지를 썼다.

《나는 최고사령부 련락군관일행과 함께 후퇴도중 원주계선에서 이 글을 쓴다.

처음 일행과 행동을 같이하려 했으나 나는 도저히 그들의 뒤를 따를수 없다. 고질의 심장병이나를 여러 동무들과 섭섭하게도 갈라지게 한다.

...

나의 당증은 당중앙위원회에, 종군수첩은 작가동맹에 전해주오.

승리를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김일성장군 만세!》

이렇게 되어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는 대렬에서 떨어져 적후에 남게 되었다.

그후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전사의 신상이 걱정되어 늘 마음을 놓지 못하시였다. 그렇지만 것처럼 정의롭고 량심이 준결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던 그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신념과 지조만을 끝까지 지켜내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으시였다.

출신과 환경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실천속에서 단련되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견결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는것을 신조로 삼고계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각전원회의의 휴식시간에 김사량을 두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명의 최후순간까지 견결히 싸웠으리라고 믿는다고 하신 말씀

에는 그이의 이러한 숭고한 동지적민음이 담겨져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에 하신 교시에 따라 인차 김사량의 가족들에게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으며 한편 관계부문 일군들은 김사량의 소식을 알아내기 위한 사업을 벌렸다. 그러나 적후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좀처럼 해명의 실마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10년, 20년 세월이 흘러 김사량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그의 소식을 알아내는것도 거의 불가능한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당에서는 그를 잊지 않고 그의 최후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당에서는 김사량의 최후를 밝혀내는 문제를 단순히 한 인간의 생사여부에 관한 문제로가 아니라 한 작가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고 그와 그의 문학작품을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며 길이 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여기었다. 하여 남반부에서 적후투쟁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게도 하고 출판물자료들을 살살이 뒤져보게도 하였다.

이 과정에 드디어 김사량의 최후에 대한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김사량의 그후 투쟁과 최후는 참으로 영웅적인것이였다.

그때 부득이 대오와 떨어져 적후에 남게 된 그는 원주지방에서 활동하던 인민유격대에 의해 구출된 후 유격대에 들어가 다시 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는 앓는 몸이었지만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유격대의 출판사업을 맡아 하면서 원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전투적인 글들을 써냈다.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종군작가답게 임무를 수행하였다.

적후투쟁의 나날 김사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작가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귀중한 말씀도 해주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정성껏 차리신 메밀국수도 안겨주시고 사랑의 술잔에 손수 술까지 부어주시던 가슴뜨거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뜨거운것을 삼키던 일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불우했던 자기를 은혜로운 품에 안아 혁명을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다운 작가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정깊은 사랑과 믿음을 생각하며 불굴의 신념, 강한 정신력을 가

다듬었고 용기백배하여 싸워나갔다.

그러면 주체39(1950)년 늦가을 어느날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김사량은 대낮에 불의에 달려든 수많은 적들과 맞다들게 되었다. 그는 그 마지막순간에 생을 어떻게 값있게 마칠것인가를 생각했다. 적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투항하라고 고아댔다. 그러자 병동안에서는 김사량과 그 전우들이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나왔다.

악에 반친 놈들이 병동안으로 들이닥치는 순간 《김일성장군 만세!》의 찌렁찌렁한 웨침소리와 함께 골짜기를 들었다놓는 요란한 수류탄폭음이 터져올랐다.

김사량은 이렇게 서른여섯나이에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주체74(1985)년 9월 어느날 오래동안 찾고 있던 작가 김사량의 최후에 대한 자료가 당에 보고되었을 때였다.

제기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도리를 다한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비록 그는 일제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민족적량심을 지니고 문필활동을 벌린 진보적지식인의 한 사람이며 해방후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한 재능있는 작가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는 종군작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한 혁명적인 작가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록 시대적제약성이 있다하더라도 김사량이 쓴 작품들을 문학사에 서술하고 문학예술사전과 문학평론들에서도 취급하며 그의 작품집을 출판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참으로 김사량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열렬히 칭송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작가이며 새 조국 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싸운 애국자-작가이다.

김사량의 한생은 비록 짧았어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빛발아래 오늘도 영생하고있으며 그가 남긴 문학 작품들은 선군시대 군대와 인민들을 위훈으로 부르며 우리 주체문학의 아름다운 화원에 한떨기의 꽃으로 피여있을것이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적문학예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오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는 문화예술부문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실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

단평

평범한 생활과 작품의 문제성

-단편소설 《어느 일요일에》를 보고-

최준희

보람찬 로동의 하루해가 저물어가고있었다.

한달동안의 출장으로 하여 읽지 못했던 《조선문학》잡지 [주체95(2006)년 6호]를 펼쳐들었다.

단편소설 《어느 일요일에》[한웅빈 작]가 눈에 안겨들었다.

우연한 일치인가? 래일이 바로 일요일, 휴식날인데... 아마 이 소설에서도 어느 일요일의 휴식을 어떻게 보냈든지 또는 휴식일에 그 무슨 《큰 일》을 하였든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엮었으리라. 이렇게 제판에 쉽게 줄거리를 예상해 버리며 소설을 읽어나갔다.

소설을 마지막까지 단숨에 보고난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리고 지난날에 맞고 보낸 일요일, 휴식일들이 되새겨졌다. 행복에만 잠겨 래일-휴식일을 어떻게 보낼것인가고 공상만 했던 자신이 돌이켜졌다.

그것은 바로 이 소설이 제기한 문제가 심각하였고 그것을 오늘의 견지에서 나자신만이 아닌 우리 혁명의 3세, 4세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사회적문제로 승화시켰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적흥미는 바로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데서 생겨나는것이다.》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깃들 때까지 어느 일요일도 진정한 일요일로 될수 없다.

이것이 이 작품의 토양에 확고히 뿌리박은 사상적 핵이다.

작품은 이러한 의미심장한 종자로부터 오늘의 시대,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하고도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생활에서 개성이 있게 찾아내어 전면에 제기하고있다.

문학은 시대의 반영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의도 없는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 사상미학적가치를 가질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사회적문제-인간문제는 《특별한 생활》에도 있으며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생활에도 있다.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은 그 어떤 《특별한 생활》에서보다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생활에서 사회적문제를 개성적으로 찾아냈을 때 더 크다고 말할수 있다.

바로 이 소설에서는 너도나도 맞고 보내는 일요일-휴식일에 대한 평범한 생활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찾아 전면에 제기하고있다.

일요일은 휴식일이다. 하기에 소설의 첫 시작도 1년에 선번도 더 있는 일요일, 휴식에 대한 즐거움의 이야기로부터 펼쳐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자.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일요일-휴식일이 반세기이상 진정한 일요일로 될수 있었던가.

주체39(1950)년 6월 25일 미제침략자들이 청소하였던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그날도 바로 일요일이었다.

철천지원썩 승냥이 미제가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일요일뿐아니라 어느 하루도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수 없었다. 또 미제가 반세기이상 저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있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려고 새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함으로써 이땅에 언제한번 진정한 평화가 깃든적이 있었던가.

미제가 있는 한, 침략자의 원흉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이 땅에 진정한 일요일-평화가 있을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이다.

소설이 제기한 이 문제는 바로 오늘의 시대, 선군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사회적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 심각한 문제는 비단 소설의 《나》와 경팔이, 성철이를 비롯한 새 세대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것이 아니다. 바로 나자신과 선군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는것이다.

작품은 오늘의 시대가 제기하는 의미심장한 문제를 가장 평범한 생활에서 찾은것으로 하여 더욱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게 하고있다.

소설에서 《나》와 경팔이, 성철이는 애인들과 함께 토요일 밤이 깊어가도록 다음날 일요일의 휴식에 대한 공상으로 가득차있었다. 읍에 자동차를 타고 공연구경을 갔다 오자고... 아침에 만나는 장소와 방법까지 짚어가면서 ...

이러한 생활은 우리의 생활에서 늘 보게 되는 평범한 생활이다.

작가는 이 평범한 생활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그것은 오늘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한시도 평화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일요일과 휴식, 50년대 화선병사가 전호에서 쓴 편지와 2000년대 청춘들...

바로 이렇게 평범한 생활에서 의의있는 문제를 도출해낸데 작가의 기교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작가는 남들이 흔히 《버럭》이나 길가의 조약돌처럼 무심히 스쳐보내곤 하는 이런 평범한 생활에서 일요일-진정한 평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찾아내었다.

작가는 지난 시기 작품인 단편소설 《행운에 대한 기대》나련속단편소설 《채 쓰지 못한 총탄》도 다 이런 평범한 생활을 펼쳐보였지만 그속에

서 심각한 문제들을 찾아보게 된다. 이것은 작가가 시대와 숨결을 같이 하면서 그속에 깊이 들어가 사소한 생활도 스쳐보내지 않고 그 평범한 생활속에서 작가적안목으로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도출해낸데 기인된다.

이 소설의 사상미학적 감화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데 그친것이 아니라 정치적의의가 있게 심오히 해명한데 있다.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나는것처럼 작품이 제기한 사회적문제는 정치적의의가 있게 해명되어야 의의있는것이며 그래야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생활의 교과서로 될수 있다. 소설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호가에서 화선병사가 쓴 편지가 오늘에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게 되는 우리 혁명의 3세, 4세-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통하여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편지의 주인공-화선병사도 주체39(1950)년 6월 24일 밤에 다음날 휴식일인 일요일에 대한 랑만으로 가득차있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들은 행복에 잠겨 꿈속에 잠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일요일-휴식일 평화는 미제에 의하여 없어지고 말았다.

편지에서 화선병사는 이렇게 쓰고있다.

《그러나 여보, 일요일은 없어진것이 아니요. 잃어버린것도 아니요. 미군놈들을 이 땅에서 몽땅 몰아내고 진짜 일요일을 우리 마음껏 즐기요. 우리의 머리위에 어떤 전쟁의 소나크름이 드리워 있는지도 모르는, 불과 한시간후에 터져오를 전쟁의 폭음도 느끼지 못하고 즐기려고만 했던 일요일이 아니라 더는 이 땅에 전쟁의 위험도 미군놈들도 없는 통일된 조국땅에서 진짜 일요일을 즐기요...》

그렇다. 이것은 지난 세기 50년대 화선병사가 고향의 안해에게 보낸 편지의 한구절이지만 반세기가 지난 새 세기 우리 새세대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며 명심해야 할 심각한 대답이다. 지금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해 그 어느 일요일에, 바로 오는 일요일 새벽에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폭음이 울릴지 어떻게 알겠는가.

돌이켜보건대 나,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채 많은 일요일을 맞고 보냈었다.

작품은 이 지구상에 미제가 있는 한 그 어느 일요일도 진정한 평화의 날로 될수 없으며 그 일요일을 진정한 일요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특히 일단 유사시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진다면 결사의 각오안고 이 지구상에서 미제를 송두리채 없애버림으로써 우리의 일요일을 진정한 일요일로 되게 해야 한다는 투쟁의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지난 시기 작품들에서도 6월 25일, 바로 전쟁이 일어난 이날이 일요일이었다는것, 따라서 절대로 일요일의 평화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특징적인것은 일요일, 평화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사상을 지난 세기 50년대와 새 세기의 오늘, 우리 혁명의 2세와 3세, 4세와의 호상관계속에서 심오히 밝히고있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1950년대 화선병사가 고향의 안해에게 보낸 편지를 《나》와 경팔이, 성철이를 비롯한 새세대들이 보게 되는 생활을 그리었다.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생활-일요일의 생활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인 주체39(1950)년 6월 24일 토요일 저녁의 생활과 새 세기 다섯번째로 맞는 해의 어느 토요일 저녁 새세대들의 생활, 이러한 호상관계속에서 1950년대 화선병사가 고향의 안해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나》와 경팔이, 성철이에게 보낸 편지로 받아들이는 새세대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2세들의 혁명정신은 새세기에도 곳곳이 이어져야 하며 또 이어지고 있다는것, 미제가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결사의 각오안고 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침

략자를 단매에 쳐부시고 조국을 통일할 복수의 새세대들이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의 작가가 발표했던련속단편소설 《채조지 못한 총탄》이 생각난다.

락동강모래불에서 숨을 거둔 순재상등병, 또 기어이 복수를 다짐하는 《나》와 《작은 순재》-혁명의 2세들, 그들의 뒤를 곳곳이 이어나가는 새세대들의 믿음직한 모습...

이 두 작품은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새 세대들에게 조국수호정신, 원썩격멸의 불타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으로 하여 의의있는것이다.

물론 단편소설 《어느 일요일에》가 손색이 없는 완전히 성공한 작품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일부 형상에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작품이 제기한 사회적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나 그 해명에 있어서 필자-나만이 아닌 우리 선군시대인간들에게 다시금 새겨주는 진리가 있는것으로 하여 인상적이다.

절대로 일요일-평화에 대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자,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신들메를 바짝 조이자, 그리고 일단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일어난다면 우리 혁명의 수뇌부-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며 이 지구상에서 전쟁의 근원인 미제국주의, 일본반동들을 비롯한 모든 원썩들을 송두리채 없애버리고 진정한 일요일-진보적인류가 념원하는 영원한 평화를 찾으리라.

가사

우리가 찾는 사람

장학림

인생의 머나먼 길 같이 가고픈 사람
언제나 찾게 되는 믿음이 가는 사람
그대여 아는가 내가 찾는 사람
아 우리가 찾는 사람 조국이 찾는 사람

가는 길 어디서나 남먼저 찾는 사람
고난도 웃으며 헤칠줄 아는 사람

그대여 아는가 내가 찾는 사람
아 우리가 찾는 사람 조국이 찾는 사람

준엄한 마당에서 신념이 강한 사람
붉은기 추켜들고 앞장서 가는 사람
그대여 아는가 내가 찾는 사람
아 우리의 장군님 기억속에 사는 사람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방문기

미곡벌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홍철진

우리는 오늘 떠난다.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새해 첫 전투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대한 집중창작편집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떠나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도 열띤 흥분속에 휩싸여있다. 우리가 맞고 보낸 3박 4일.

많은것을 보았고 많은것을 깨달았으며 또 자기 자신과 많은 말을 나눈 잊을수 없는 날들이었다.

황해북도작가동맹 작가들이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를 바래우려 따라나섰다.

이번처럼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편집부들에서 강력한 편집력량을 무어가지고 나오기는 도작가동맹에 있어서 처음이었다.

우리 일행은 현지에서 작가들과 창작도 함께 하고 의견도 함께 나누었다.

우리를 태운 빠스가 서서히 움직이자 손과 손들이 차창에 무수히 얼른거렸다.

그 정다운 손들의 바래움속에 빠스는 점점 멀어져갔다. 현실에 나와보니 정신이 거뜨한게 기분이 다 상쾌해졌다.

현실은 인간을 웅대하게 만드는 학교이기도 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인민을 끊임 없는 위훈과 혁신으로 부르고있다.》

차창으로 수려한 산발들이, 눈덮인 벌이 언뜻 언뜻 지나간다.

허나 나의 눈엔 산천이 보여오지 않았다.

사리원에서 헤여진 작가들, 그 시인들이 차창 밖에서 그냥 우리와 함께 가는것이 아닌가.

시인 권태여, 전쟁로병이다.

미곡벌에 도착한 첫날 일을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첫 《전투》

우리가 황해북도 시인들과 함께 미곡협동농장에 도착했을 때 관리위원회마당앞에는 술한 사람

들이 관리위원장을 에워싸고있었다.

영농물자를 가지고온 성, 중앙기관 일꾼들, 취재하러 온 기자들, 농업과학원 연구사들... 미처 다 헤일수 없는 직종의 사람들이 관리위원장을 놓아주지 않았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시고 장군님의 남다른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으니 대변에 온 나라가 다 아는 관리위원장이 되었고 누구보다 《단련》을 받는 몸이 되었다. 저 겹겹속을 뚫고 들어가 관리위원장을 만난다는것은 하늘에 사다리를 놓는거나 같았다. 모두가 난감해하고있을 때 시인 권태여가 나섰다. 《저 〈철조망〉을 이 공병이 뚫어야지.》

그렇지, 전쟁때 공명출신시인.

《조선문학》지면에 《공병의 추억》을 자주 하는 시인이었다. 그는 다짜고짜로 사람들을 헤집고 녀성관리위원장을 향해 뚫고들어갔다.

기골이 장대한 시인은 놀랄만치 여간 패기가 있지 않았다. 물려섰던 사람들이 아연해했다.

그러나 시인에겐 이미 마이동풍이었다.

관리위원장이 시인을 보고 반색을 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미곡벌에 달려나와 좋은 시를 창작하여 농장원들을 고무해준 로시인을 관리위원장은 늘 고맙게 생각하고있었다.

《관리위원장동무, 우린 여기 왔다가 관리위원장동무에게 인사도 못하고 갈번 했습니다.》

왔다고 인사하는게 아니라 간다고 인사하니 주위사람들은 다소 마음을 놓는듯 했다.

시인은 관리위원장을 자연스럽게 주위사람들에게서 떼여냈다. 때늦게 기미를 알아챈 사람들이 야단을 한다.

《아니, 어딜 가는겁니까?》

시인은 벌써 관리위원장을 뒤에 달고 태연히 리합속쪽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제껴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뒤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관리위원장은 《우리의것》이 되었다.

관리위원장은 한껏동안이나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 농장에 모시였던 그날의 감격을 자초지종 이야기해주었다.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가슴치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취재수첩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어놓았다.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한마디가 다 값진 보석이였다.

그런데...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독차지했으니 밖에서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여간 미안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싸움》의 첫날은 이렇게 저물어갔다. 시인 김창호, 정열적인 인간이였다.

미곡혁명사적관 책임강사 김영애동무를 데려오느라고 고생을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 사적관강의를 잘 해드려 기쁨을 드린 김영애동무가 급한 일로 자리뜰 사정이 제기되었는데 시인의 불같은 성미에 끝내 지고말았던것이다.

이리하여 책임강사는 모든것을 뒤로 미루고 작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미곡혁명사적관의 문을 열었다.

잊지 못할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은 겨울추위치고도 제일 추운 날이면서도 또 일요일이였습니다.

전날에 눈이 내린데다 이날따라 날씨가 여간 맵까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오실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영애동무가 우리에게 들려준 첫 말이였다.

그날 미곡혁명사적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총서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전광사진앞에서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벼이삭설레는 가을날 미곡벌을 찾으시여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의 영상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뒤에 서계셨다가 또다시 앞으로 나가시여 찬찬히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시였다.

분명히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과 마음속 대화를 뜨겁게 나누시였으리라. 위인과 위인의 감격적인 상봉이였다. 강사동무의 말에 의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번 발걸음을 멈추시였는데 첫번은 수령님께서 무더운 여름날 미곡벌을 찾으신 사진앞에서였고 두번째는 험한 논두렁길을 걸어가시는 사진앞에서 그리고 세번째는 깊은 밤 길가에 차를 세우시고 벼알을 세여보시는 사진앞에서였다.

30도를 헤아리는 무더운 여름날 미곡벌을 찾으신 수령님께서 웃옷까지 벗으시고 흰내의차림새로 서계시는 사진앞에서 장군님께서서는 발걸음을 못떼시고 생각깊으신 시선으로 사진을 보고 또 보시였다.

두번째 사진앞에서는 수령님 걸어가신 좁은 논두렁길에서 시선을 못 떼시며 수령님의 자욱을

더듬어보시였다. 그리고 사적관을 다 돌아보시고 가실 때에는 또다시 수령님의 전광사진앞에 서시여 수령님의 모습을 오래도록 우러르시였다.

아마도 가시겠다고 말씀올리시는지 누가 알랴.

지난날 물이 없어 고생하던 미곡리사람들에게 전번의 새 력사를 안겨주시기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심혈을 말과 글로야 어떻게 다 전하랴. 16차례나 미곡리를 찾아오시여 사랑의 력사를 새겨주셨으니 미곡리는 수령님과 땀해야 땀수 없는 복받은 고장으로 되였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다섯번째로 찾아오시여 복우에 더 큰 복을 덧쌓아주시였다.

사적관을 나서며 시인 김창호동무는 책임강사에게 약속하였다. 미곡리에 오시여 나누신 두분의 마음속 대화를 꼭 세상에 전해가리라는것을...

시인 우광복, 지난해 《조선문학》지면에 《가을시초》를 써서 시문단의 이목을 집중시킨 40대 중반의 시인.

우리가 미곡벌에 온 이튿날 함박눈이 소담히도 내렸다. 그때 시인은 몹시 흥분하였다.

마치 처음 눈을 맞는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가 왜 그렇듯 흥분했는지 그 때에는 미처 알수 없었다.

눈내리는 설경

흰눈덮인 미곡벌은 마치 시집갈 딸자식때문에 원심쓰는 어머니들이 금시 햇숨을 누비려고 펼쳐놓은것만 같았다.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앞사람도 분간키 어려웠다.

산에도 눈, 벌에도 눈, 집집의 처마에도 눈... 모든것이 흰눈에 덮이였다.

그러나 도로에만은 흰눈이 내려앉지 못했다.

눈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도로에 눈이 앉을새없이 밀고 쓸고하였다.

혹시라도 우리 장군님께서 이 길로 지나실것만 같아 눈을 밀어내다가는 저 멀리 한곳에 눈길을 모았다.

그곳은 다름아닌 평양이였다.

장군님께서 미곡땅에 오셨을 때 타고 오신 야전차의 눈가루 묻은 차바퀴를 두고 온밤 잠들지 못했던 미곡리사람들이였다.

그래서 스스로 《태성할머니》들이 된것이다.

그속에는 군복입은 《태성할머니》도 있었고 넥타이를 맨 나이 어린 《태성할머니도》도 있었다.

시인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일별하였다.

오랜 농사군인듯싶은 저 아바이, 도로에 내려야 할 눈이 잔등에 다 없힌듯 눈사람이 되였다.

시인은 그의 마음속 심중을 읽고있었다.

장군님, 저희들이 백성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해 험한 날씨에 모시였으니 죄송하기 이룰데 없습니

다.

장군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들이 농사를 잘 지을테니 이 찬눈에는 부디 옥체를 적시지 말아주십시오, 장군님...

열살을 갓 넘긴듯싶은 나 어린 처녀애, 쌍까풀진 고운 눈망울에서도 그리움의 목소리는 울리고 있었다.

아버지장군님, 이제부터 눈길로는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눈을 꼭꼭 칠테니 눈을 친 길로만 다니십시오. 장군님의 야전차가 미끄러지면 선생님도 울고 우리도 옵니다...

시인은 모자를 벗었다. 머리우에 흰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들앞에서 모자를 쓰고 눈을 맞는다는것이 여간 죄스럽지 않았다. 인간들로 하여 아름다와진 눈내리는 미곡리설경이었다.

시인은 수첩을 펼쳐들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함박눈은 시인이 쓰는 시우에도 내려앉았다.

눈에 젖고 걱정에도 젖은 그의 시를 빨리 보고싶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시인 리영일, 이번 창작전투때 《락수물》이라는 좋은 시를 써서 우리들을 흥분시킨 재간있는 젊은 시인이다.

시합평회를 할 때 그의 눈에서는 알릴듯말듯 맑은 물방울이 고이였다.

락수물소리

《그날 우리 집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집 책장앞에 서시여 책이 많다고 못내기뻔하시며 우리 인민은 책을 좋아한다고, 앞으로 좋은 책을 많이 보내주겠다고 귀중한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집주인인 최제근동무는 그날의 감격이 어제런듯 흥분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어 장군님께서서는 집뒤뜰에 있는 토끼사앞에 이르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토끼사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토끼마리수를 하나하나 헤여보시였다.

토끼, 그것은 단순히 집짐승이 아니였다.

우리 장군님의 시야엔 그 토끼들이 커가는 인민의 행복이었다.

전선길에서 쌓인 피로를 이 토끼사앞에서 다 푸시려는듯 그리도 기뻐하시며 발걸음 못떼시는 장군님을 우리르며 일군들과 집주인은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였다.

그런데... 토끼사의 처마에서 전날에 내린 눈이 녹아 락수물이 툭툭 떨어지며 장군님의 야전복을 적시고있었다.

집주인이 몸둘바를 몰라하자 장군님께서서는 일없다고, 옷이야 젖은들 뭐라는가고 하시며 또다시 토끼사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시였다.

점점이 젖어드는 장군님의 야전복!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비에 젖은 장군님의 야전복인가.

그런데 오늘은 락수물에까지 젖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락수물은 소리없이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을 적시였지만 시인은 장군님의 야전복에 떨어지는 락수물소리를 들었다.

들어도 하늘과 땅을 흔드는 거대한 소리로 들였다.

몰어보자, 하늘아, 땅아, 처마에서 흐르는 작은 락수물조차 막아드리지 못했으니 이 땅의 눈과 비는 모두 우리 장군님의것이여야 한단 말인가.

인민의 가슴속에 오늘도 들리고 래일도 들리는 락수물소리.

어이 알랴. 위대한 장군님 바쳐가시는 그 로고에 감동되어 저 하늘이 흘리는 눈물은 아닌지...

×

우리를 태운 빠스는 평양을 가까이 한다.

평양이 가까와올수록 달리는 빠스에 채찍을 엮고싶은 심정이다.

쓰자. 그리고 다 이야기해주자. 이번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것을...

달려라, 빠스여. 빨리 더 빨리...

경구, 격언

●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단어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작가만이 진정한 언어의 능수이다

● 훌륭히 씌여진것은 어느때 가도 싫증나지 않는다

● 말은 함축되고 사상은 심오하게

● 간결성은 예술성의 첫째 조건이다

● 인민들의 기억속에는 오직 그 인민을 사랑하

는 사람만이 남아있다

● 음악은 아름다운 음속에 구현된 리성이다

● 사람은 모든것을 다 배워야 한다. 그러나 아첨과 거짓, 도적질만은 배우지 말라

● 위대한 예술작품은 그것이 알기 쉽고 누구에게나 이해되기때문에 위대한것이다

락수물

리영일

장군님 미곡마을 찾아오신 그날
산에 들에 집집에 흰눈덮인 그날
우리 집 살림살이 구석구석 다 살펴주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뜰안의 토끼사문을 여실 때
그이의 어깨우에 떨어지던
처마에서 녹아내린
눈석이 락수물

저물녘까지 초소의 병사들과 함께 계시고
온밤 전선의 눈길을 달려 우리 마을 찾으셨다
지
야전복엔 그대로 찬기운이 서려있는데
자꾸만 장군님 등을 적시던 락수물 락수물

물어보자 하늘아 땅아
그 작은 락수조차 막아드리지 못했으니
정녕 이 세월의 눈비는 모두
우리 장군님의것이여야 한단 말이나

똑, 똑, 똑, 락수물
이 좋은 새 집 햇빛밝은 처마아래서
내 가슴속에 불덩이로 떨어지는 소리
이 강산 이 들판을 깨치는 소리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장군님의 그 헌신 영원히 잊지 말라고
뜨거움에 젖어 전선길 하늘가 우러르는
내 심장을 치며 들려오는
아 그날의 락수물소리 락수물소리

귀밝은 땅

권태여

열두달 애무그리는 땅
말은 없어도
귀는 밝아
호미소리만 들어도 반긴다거니

숫눈길을 헤치며
거름짐을 지고 내닫던 발구름소리에
겨울잠을 먼저 깨는 땅

농장벌이 들썩하게
모내기를 도와준 병사들의 웃음소리
유치원 아이들의 노래 한절도
귀담아 간직한 너

미곡벌을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
이 넓은 벌을 낚가리로 채우라고 하신 그 말씀
너도 들어 이삭을 솟구느냐

신심드높이
발동소리 울려가는 이 벌에
알알이 영근 이삭을 가꾸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 그날

귀밝은 땅아
온 한해 네가 듣고 간직한 그 마음 다 기울여
가을오면 풍요한 벼바다 설레임소리로
말하는 땅이 되자

수필

일요일이 전하는 이야기

변월녀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미곡리를 며칠동안 취재한 나는 송윤희관리위원장님과 마주앉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과학농사를 해야 한다며 드넓은 벌을 주름잡아달리는 그의 온몸에서는 40대 여성일군의 체취가 풍겼다.

그와 마주앉은 시간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 요약된 취재를 하기 위해 준비를 갖춘 나였다.

한데 뜻밖에도 그는 나에게 물었다.

《작가선생은 일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일요일에요?》

예상밖의 질문이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기도 어렵다.

일요일에 나는 무엇을 하는가.

독서, 가정주부의 위생사업, 가정의 즐거운 휴식, 봄이면 꽃이 만발한 식물원으로 그리고 미술 작품전시회가 열린 미술박물관, 도예술단의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독창회관람...

생활의 향기가 풍기는 그 나날들이 눈앞에 화폭처럼 펼쳐지며 즐거움이 가슴속으로 물결쳐온다.

《그렇지요, 일요일엔...》

그의 예민한 눈조리가 나의 얼굴표정에서 속마음을 읽었다.

그는 말끝을 잊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창가로 다가갔다.

《그 일요일날도 즐거운 휴식일이었습니다. 한해 농사를 총화짓고 궁궐같은 새집에서 휴식일을 맞은 우리 미곡리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보십시오.》

창밖으로는 미곡리정경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땅이 꺼지게 무르익은 이삭들이 별가득 넘치는 풍요한 가을에 그들은 기다렸다. 새집들이를 하였을 때에도 이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싶어 기다리고기다리었는데 겨울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일요일에 뵈게 된 송윤희관리위원장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관리위원장은 추운 겨울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숫구치는 뜨거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저는 그때처럼 깊은 자책속에 모대긴적은 없었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였고 기뻐도 피로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울치고 제일 추운 날에 오신 그이를 만나 뵈오니 받아안은 은혜에 비해 보답한 일은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도 미흡한 구석들이 눈에 걸리는지 논밭의 버짙 한오리까지 저희들의 맑고 깨끗한 마음에 앓은 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미곡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고는 독특한 형식의 살림집들에 일일이 들어가보시었다.

한 제대군관의 집에서는 바닥깊은 부엌에 몸소 내려서시여 메탄가스의 불길까지 가늠해보시고 떠나실때에는 기념촬영을 하며 병사시절의 사진과 함께 가보로 남기도록 해주신 아버지장군님!

한 농장원의 집에서는 토끼장문을 여시고 흘러내리는 락수까지 맞으시며 토끼기르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사철 벌에서 일하는 농민들이어서 어느 틈자리에서 물이 새어들새라 방이 추울새라 보살펴주시었다.

궁궐같은 새집들의 어느 문을 열어보아도 아래

방에도 옷방에도 부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행복의 요람.

지난날 밥 한사발은 내주어도 물 한사발은 주지 못했던 고장, 비가 오면 고인 물은 큰 호수를 이루어 옆집에도 합지배를 타고다녀야 했고 사철 물이 차있는 방에서 병들어 단명한 혈육들을 붙들고 통곡하던 피절은 울음소리 숨배어있는 이 땅을 천지개벽시키시려 미곡벌에 여러차례나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송윤희관리위원장을 앞서우시고 마을길을 지나 논부리 아득한 미곡벌을 부감하실 때였다.

해빛논부신 푸른 하늘아래에 붉고 푸른 지붕을 떠인 궁궐같은 집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미곡리전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그이께서는 정말 아름답다고 로동당시대의 황홀경이라고 치하해주시었다.

송윤희관리위원장은 미곡리의 갈피갈피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어떻게 다 드릴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 자꾸만 목이 메어올랐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농장원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전해달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었다.

《작가선생이라면 이런 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나큰 감격과 환희의 소용돌이속에 휩싸일 때면 말문이 막히기도 한다.

아! 일요일에 온 나라 인민들을 파스한 집에서 휴식시키고 자신께서는 찬바람을 맞으시며 눈길을 헤치고 찾아오시여 사랑만 반아온 인민들이 감사를 드리기도 전에 인민들이 잘살게 되었다고 우리의 어버이께서 주시는 감사!

《작가선생! 감사란 은인이나 스승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로부터 사랑에는 보답이 따른다고 했다. 그런데 그 보답이 달기전에 도리어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장군님의 감사!

그것은 더 좋은 행복을 인민에게 약속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불같은 맹세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뜨겁게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불이 되어야 한다.

인민을 위한 불!

인민을 위한 불이라면 가장 뜨거운 불이 되어 휴식날까지 모두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미곡리의 일요일은 세월의 끝까지 전하고있다.



행복의조건

김진경

1

《손님여러분, 안전띠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캐나다 모론토에서 리륙한 비행기가 하늘높이 떠오르자 안내원이 하는 말이였다.

손님들은 안전띠를 풀다, 짐을 정리한다 부산을 피웠다. 시창옆에 앉은 고향의 녀인만은 하얀 머리를 창밖으로 돌린채 움직일줄 모른다.

《저- 손님...》

안내원이 다가가 독촉해서야 그는 자기 몸을 감고있는 띠를 보았다. 그것을 풀어내는 손이 가볍게 떨리였다.

캐나다에서 살고있는 리남숙교포이다. 남편을 만나러 평양으로 가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해방지역들에서의 인민정권 사업을 도와주러 서울로 나가는 남편과 헤어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반세기... 남편을 찾아 남으로, 거기서 다시 해외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리움과 애달픔속에 맞고 보낸 나날이였다.

아버지의 생사여부를 알자고 자식들은 또 얼마나 애를 태웠던가. 딸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언어학자가 되였다.

얼마전 꿈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시아의 어느 한나라에서 있는 조선어학국제토론회에 참가 하였던 아들이 북조선학자들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것이다.

아버지는 교수, 박사로 되였고 이름있는 언어 학자로서 말년에도 쉬지 않고 연구사업에 몰두하고있다고 한다.

그날 남숙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내 남편이 교수, 박사라니?! 혹시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아닐가.)

어쨌든 한시바빠 만나보고싶었다. 그는 평양방

문을 서둘렀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그 나라에 있는 동포교수 (아들이 알고있는)한테서 전화가 왔다.

평양에 갔다 방금 돌아왔는데 이번에 가보니 김수겸박사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있다는것이였다.

남숙은 눈앞이 아득했다. 인사불성이 되여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얼른거리였다.

생각할수록 억이 막히였다. 한생 남편없이 살아오다가 인생말년에 만나보게 되였는데 생사기로에 있다니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그러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것 같은 촉박감에 발이 어떻게 놓이는줄도 모르고 비행기에 올랐던것이다.

시창밖으로는 하얀 구름덩이들이 흘러가고있었다.

(내가 그때 남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달리 흘렀을것이다. 그이와 헤어지지도 않았을것이고...

하지만 그때 나로서는 다른 길이 없지 않았던가.)

남숙은 흰 구름에 생각을 얹고 반세기전의 그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1950년 10월 강동나루터는 대학교직원들의 가족들로 붐비였다. 적들이 평양가까이로 오고있었다.

조직적인 후퇴를 하는중이였다 모두 바빠 돌아갔으나 남숙이만은 어린 자식 넷을 거느린채 안절부절하고있었다.

(왜 아무 소식도 없는걸가?)

미제가 일으킨 조국해방전쟁의 발발과 함께 남조선으로 나갔던 교원학자들이 후퇴명령을 받고 모두 들어왔는데 남편만은 소식조차 없었던것이다. 기다리기에 지친 사람들속에서는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갔다.

일제시기부터 기업을 해온 부모의 덕으로 고생을 모르고 자란데다가 대가 약한 사람이니 이 전쟁판에 판 마음을 가질수 있다, 분명 남조선에 떨어질 잡도리이다, 더우기 전쟁전에 파오를 범하고 풀이 죽어다니더니 아직도 뭔가 맺혀있는 모양이다. ...

남숙은 할 말이 없었다. 남편으로 말하면 해방전에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명문대학 대학원까지 나왔었다.

20대초에 벌써 가치있는 논문을 발표하여 언어학계의 이목을 모았다. 이름있는 대학들이 저마다 오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때마다 남편은 묵묵부답이었다.

1946년 초여름 **김일성**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위촉장을 받아안았을 때 남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남숙이, 어서 빨리 평양으로 가자구!》

《저-어 꼭 가야만 하냐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연구사업을 할수 있을텐데 ...》

부모형제의 결을 선뜻 떠나게 되지 않는 남숙이었다.

수검은 선량한 두눈에 부드러운 빛을 담았다.

《물론 연구는 할수 있소. 하지만 언어학자로서의 참다운 명에는 얻을수 없을거요. 왜냐면 외세가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에서는 우리 말의 순수성을 지켜낼수 없기때문이요.

난 진정으로 내 나라 말을 연구할수 있는 북으로 한시바삐 가고싶소. 그래서 후날 풍부한 언어적재부를 후대들에게 넘겨주고싶단 말이요!》

북에 들어온 남편은 소원대로 대학교단에 서게 되었다. 아직 젊었던 남편의 열정은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그 열정이 뜻밖의 불행을 빚어낼줄이야.

수검의 실력을 알게 된 국가요직에 있는 한 간부(해방후 《문자개혁론》을 들고나온 대표적인물)가 자기밑에 편저라는 직책을 두고 그를 거기에 점직시켰다.

6개의 자모 (우리 나라 최초의 자모와 비슷한)를 새로 받아들일데 대한 리론을 내놓고 그것을 내리먹이다싶이 하였다.

수검은 《조선어문법》이라는 교과서를 썼는데 거기에 《6자모》를 받아들였다. 그의 리론을 합리화한셈이었다.

이것이 전국의 조선어관계학자들이 모인 《과학

평의회》에서 크게 문제시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6자모》의 부당성을 론증해나섰던것이다.

《6자모》는 문자의 창제원리와 어음론적원리에서 볼 때 과학적근거가 없다. 한편 지금의 문자보다 복잡하여 쓰기도 힘들고 읽는데도 불편하며 이렇게 해놓으면 갓 해방된 우리 나라 실정에서 나라의 과학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게 될것이다.

수검은 수치감에 머리를 들지 못했다. 집에 들어와서도 말 한마디 없이 의기소침해있었다.

남숙은 다른 사람을 통해 평회회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 역시 가슴이 아팠다.

교과서집필때문에 반년나마 교박 새우다싶이한 남편이었다. 그러니 품안에서 새 생명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언청이를 낳은 산모의 심정이랄가.

허나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비난은 더해졌다. 가정환경과 경력까지 꺼들다니 문제는 더 험악하게 번져졌다.

가뜩이나 내성적인 남편은 아예 병어리가 되어 버렸다. 수척해진 얼굴은 보기에든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무렵 수검은 **김일성**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장군님께서는 몇명의 언어학자들과 함께 자기 남편을 친히 집무실로 부르시었던것이다.

남숙은 희망을 안고 기다렸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책상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몹시 자책하는 모습이였다.

남숙은 조심히 말을 건넸었다,

《그 일때문에... 질책의 말씀을 받았는가 보지요?》

남편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받았소. 가슴이 아프오. 아마 이렇게 아프기는 ... 처음일거요.》

남편의 눈에는 눈물마저 글썽해졌다. 처음 보는 눈물이였다. 남숙은 가슴이 저려 더 말을 못했다. 그는 남편의 아픈 마음을 헤집는것 같아 황황히 말머리를 돌리고말았다.

그날 밤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녀인은 혼자 눈물지었다,

(어쩌면 운명은 이처럼 공교로운것인가. 차라리 남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

그 모든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민족의 언어를 지키겠다고 북으로 왔는데 첫걸음부터 이 모양이 되다니.

장차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찌 될것인가?)

며칠후 전쟁이 터져 남편이 집을 떠나갈 때에도 남숙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남편이 마음속고충을 애써 누르고 떠나는것만 같아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랐던것이다.

지금 남숙은 남편의 립장에서 다시 생각해본다.

그는 재부보다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언어학자로서, 인간으로서의 명예는 이미 상실당 한셈이다.

전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앞에서 규탄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남편의 출신성분과 경력까지 문제시하였다니 과연 우리가 갈 길은 어디란 말인가. 너무도 뻔하지 아닌가.

헌데 가족은? 필경 데리러 올것이다.

처자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지극한 그이가 아닌가.

남숙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대렬인술을 맡은 사나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자그마한 키에 등이 약간 굽고 행동거지가 싹싹한 사나이였다.

《며칠전에 들어온 우리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주머니 남편을 서울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아예 그곳에 눌러앉을 작정인가 봅니다.

어찌겠나요. 전쟁이란 그런거지요. 시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특수한 공간이랄가. 글썄 서울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수도 없고... 아주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것이 명백해진 이상 결심도 확고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그이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사나이도 긍정하였다.

《너자란 그래야지요. 그럼 여기 남아 남편을 기다려보지요. 어쨌든 애들건사를 잘 하십시오.》

후퇴대렬은 떠나갔다.

그후 남숙은 남편이 데리러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한주일이 지나갔다.

시내의 공기는 벌써 달라졌다. 밤새 포장도로를 물어뜯으며 무한궤도가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히 들리는가 하면 금시 온 도시를 날려보낼듯 포성이 쿵쿵거렸다. 성수가 나서 돌아치는것은 《치안대》놈들뿐이었다.

-공화국은 끝장이다. 미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고있다. 미군은 멀지 않아 압록강에 다달을것이다.

정말 끝장이란 말인가?-

남숙은 마음이 서글퍼졌다. 북에서의 행복했던 나날들이 이제는 지나가버린 꿈으로 되었던 말인

가.

너무도 청소한 공화국이였다. 인민정권이 자리잡았던 청사는 폭격에 무너지고 아이들의 요람이던 교사마저 폐허가 되었다. 후퇴해간 사람들이 언제 올지 기약할수 없다. 더이상 기다릴수 없었다.

《남편을 찾아가야 한다!》

젓먹이를 업고 오롱조롱한 세 아이를 이끌고 전쟁관에 서울까지 간다는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닐수 없다,

허나 다른 길은 없었다. 오직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남숙의 심장을 짹 뜰어잡고있었다. ...

서울에 도착하여 한달동안 찾았으나 끝내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그는 너무 실망하여 며칠동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가족을 데리러 북에 들어갔든가 (길이 어긋났을수 있다.) 아니면 남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수도 있다. 전쟁이니 무슨 일인들 없겠는가.

소름이 끼쳤다. 혼자서라도 다시 북에 들어가 남편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그런데 일이 안될세라 젓먹이가 폐염에 걸려 자리를 뜰수 없었다. 어찌된 일인지 애들이 번갈아 앓으면서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분계선이 막히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결국 50년이 지난 오늘에야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한결음을 잘못 내디딘것으로 하여 그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것을 잃었다.

생각컨대 남편은 행복의 전부라고 할수 있다.

철들어 세상을 리해하기 시작한 녀성이 자기 운명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것을 의탁하며 한생을 가꾸어나갈수 있는 품은 오직 남편밖에 없는것이 다.

그 품을 잃고 산다는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체험하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아픔속에 칠혹갈던 머리가 한오리, 한오리 다 세여버렸다.

인생은 그야말로 《구름인생》이였다. 한생 남편을 찾아 몸도 마음도 피롭게 떠다녔다.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고타른 닛을 잠재울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을수 있다면, 하여 행복한 감정으로 세상을 하직할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라.

하지만 자기를 맞아줄 품은 환희와 걱정으로 달아오른 남편이 아니라 로쇠하고 몽롱해진 병자

의 육체뿐일것이다.

남숙은 또 한번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었다. 그는 슬픈 마음으로 묵묵히 시창밖을 바라보았다.

2

고려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려장을 풀었다.

티 한점 없이 깨끗하게 생긴 처녀가 방에 들어와 생글생글 웃으며 안내원이라고 했다.

아무런 근심도 없어보이는 처녀가 부러웁게 생각되었다.

남숙은 수경의 병상태부터 알고싶었다. 처녀는 약간 신중해지는것이였다.

《병이 몹시 위중했다고 합니다. 급한 고비는 넘겼고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있으니 너무 걱정마십시오.》

한시름 놓였으나 한편 위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안심할수가 없었다. 어쨌든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고있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안내원처녀가 생각난듯 말하는것이였다.

《참, 수경선생님의 아들되시는분이 여기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남숙은 가슴에서 무엇이 툭 떨어져 내리는것 같았다.

(분명 아들이라고 했지?! 아, 그러니-)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은근히 가슴 한구석을 누르던 위구심이 끝내 현실로 찾아왔던 것이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것은 아니였으나 실지 남편에게 또 하나의 가정이 있고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이 있다는것은 참으로 감수하기 괴로운것이였다.

(내 한생 지켜온 사랑이 이것이였단 말인가.)

한생이 허무해졌다. 그의 심리를 눈치챈듯 안내원이 조용히 방에서 나가는것이였다.

남숙은 트렁크를 열고 정성스레 포장한 지팡이와 차잔을 꺼내놓았다. 남편과의 상봉을 앞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준비한 기념품이였다.

한생 남편을 받들어주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려마련하였다고 할가. 그는 지팡이를 쏘어보며 생각에 잠기였다.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같이 떠올랐다.

달밝은 밤 나란히 누워자는 어린것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느라면 왜 그리도 가엾어지는지 창밖에선 귀뚜라미가 울고 녀인의 베개엔 눈물이 고였다.

길가에서 비슷한 사람만 보아도 따라가보았고 한밤중에 발자국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것 같았다.

한번은 큰딸 혜성이가 학교에 갔다가 울면서 다시 왔다. 사연을 물으니 반장애가 너의 아버지 머리에 뿔난 빨갱이라고 하면서 잔등을 발로 밟아주었다는것이였다.

딸애의 하얀 샤쓰에는 운동화자리가 그대로 찍혀져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아 견딜수가 없었다.

남숙은 학교를 찾아갔다. 국민학교 교장은 령소를 지으며 애들 장난질로 치부해버리는것이였다. 《응당한 대접》이라는 속대사가 질게 깔려있었다.

그날 집으로 온 남숙은 옷방에 올라가 소리내어 울었다. 눈물이 펄펄 쏟아져내렸다.

옆집녀인이 와서 위로하는것이였다.

《그러게 재가하라고 내 몇번 말했어요? 지금은 그렇다쳐도 이제 애들이 자라면 전망문제가 막힐 거란말이에요. 그리구 〈아버지〉 소리 한번 못해보고 크는 애들생각도 해야지요.》

남숙의 가슴은 막 미여지는것 같았다. 허나 자기의 심장속에서 남편을 뽑아버릴수 없는것을 어떻게 하랴. 더우기 아이들이 다른 아버지의 성으로 불리운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날 밤 남숙은 베개밑에서 자그마한 시집을 꺼내었다. 리화녀고시절에 아직 총각이였던 남편으로부터 기념으로 받은것이였다.

그는 이것을 자기 몸가까이에서 떼어놓은적이 없었다. 시집을 번지노라면 남편의 숨소리가 들려오고 순박한 웃음이 어린 그 모습이 금시 보이는것만 같다.

그는 백지 한장을 꺼내어 자기 심정을 적어나갔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대 향한 그리운 정

내 어찌 잊으리요 내 어찌 버리리요

치솟는 활화산마냥 그칠줄을 몰라라

이것을 시집의 갈피에 끼워넣었다.

남숙은 이민의 길을 택하였다.

낯설고 물설은 타향에 짐을 풀어놓으니 자나깨나 그리운것은 못 잊을 고국산천이였다. 남편에 대한 추억은 더 자주 찾아왔다.

한때 수경은 집필사업때문에 출장지에 오래동안 있는적이 있었다.

남숙은 정성스레 보약을 만들어가지고 찾아갔

다.

그날 밤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키가 성큼한 달맞이꽃이 가득하게 널린 강변길로 다정하게 걸어갔다.

달이 떠오르자 달맞이꽃 꽃봉오리들이 일제히 너도나도 하며 여기저기서 툭툭 소리낼듯 망울을 터치었다. 신비하고 황홀한 밤이었다.

《혜성이 아버지!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뭔데?》 수검은 싱글벙글하며 남숙의 코등을 꼭 눌러주었다.

《저 - 즉흥시 한수 들어보세요.

세상의 부귀영화 내 어이 부러우랴
다정한 술바람에 싱그러운 바다내음
한쌍의 갈매기 되어 학문바다 날으리

호호, 아직은 욕망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애들의 잔시중을 끝내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얻게 되면 나도 책을 가까이하면서 당신을 힘껏 돕겠어요.》

《고맙소!》 수검은 그답지 않게 흥분되었다.

《난 그 바다에서의 장쾌한 해돋이를 기다리겠소.》

수검은 남숙이쪽으로 돌아섰다. 정으로 가득찬 눈이 이글이글 타고있었다.

《남숙이!》

남편은 남숙의 어깨를 꼭 그러잡았다. 금시 모든것을 바스르뜨릴듯 한 억센 힘이 느껴진다.

행복감에, 기쁨에 숨이 막힐것만 같았다. 장난기어린 생각이 꼬미락거린다.

《저기- 엿보는이가 있어요!》

남편은 힐끔힐끔 둘러보며 남숙을 놓아주었다.

《어디 말어요?》

《저기!》

남숙은 한손으로 밤하늘을 가리켰다. 쟁반같은 달이 새물새물 웃으며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럼?》

남숙은 머리를 까딱이고나서 호호 웃으며 달아났다. 수검도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

그 시절로 되돌아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갑자기 인기척소리와 함께 안내원이 문을 열었다. 함께 온 사람이 보이였다.

그 장년사나이를 보는 순간 남숙의 뇌리엔 번개가 일었다.

《어쩌면!》 그의 모상이 젊은 시절 남편과 같아 보였던것이다.

틀진 체구에 우뚝 솟은 키, 순박하면서도 지성이 느껴지는 얼굴, 준수한 몸가짐... 이름할수 없는 흥분에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찌보면 눈모습이 달라보이기도 했다.

사나이는 공손히 허리굽혀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큰어머니! 이국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몽클 가슴이 젖어들며 코등이 싸해졌다. 남숙은 마주가 사나이의 손을 잡아일으켰다.

《그만하라구.》 목소리가 갈리였다.

그들은 손을 잡은채 쏘파에 가 앉았다.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르나?》

《태규라고 합니다.》

남숙은 젖줄이 켜기는듯 한감을 느꼈다. 카나다에 있는 두 아들의 이름은 태정, 태성이다. 갑자기 자기 아들이 하나 더 불어난것 같은 감정은 실로 야릇한것이였다.

태규는 어느 연구소의 연구사로 있다고 한다.

그와의 이야기는 화기애애한속에서 흘러갔다.

그는 카나다에 있는 가족들에 대하여 무척 알고싶어했다. 그들과 함께 오지 않은것을 섭섭해하였다.

《아버진 큰누님이 노래를 잘 불렀다고 가끔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님의 노래소리를 들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간 남숙은 목이 꺾 메였다. 가장 아픈곳을 찔리웠던것이다.

혜성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 불치의 병에 걸려 오래전에 사망한 혜성이는 집안의 맏이로서 평양과 아버지에게 대한 표상이 뚜렷하였고 그로 하여 누구보다 아버지를 그리워했었다.

죽기 며칠전에도 병원침대에서 지력노을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하여 말했었다.

《어머니,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평양에서 아버지랑 함께 살 때였어요. 요즘은 왜서인지 그때 생각이 자주 나요. 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아버지가 계신곳으로 훨훨 날아갈수는 없을가요?... 날 좀 일으켜줘요, 아버지를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 딸이 끝내 큰 날개를 꺾게 될줄이야.

...풀어진 머리에 피골이 상접하여 누워있는 딸의 모양, 그 앞에 무겁게 드리워진 《사형선고》.

아, 이 악마의 너울을 걷어낼수는 없단 말인가.
남숙의 눈에선 피가 끓었다. 것처럼 착하고 것처럼 아름답고 이 어미에게 과분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딸을 정녕코 먼저 보내야 한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구나!

《어… 어머니》 가없는 딸은 힘겹게 말하였다.

《아… 버지 … 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 는데도…》

혜성이의 눈길로는 맑은것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혜성아!》 남숙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딸의 눈길을 손으로 훔쳐주었다.

딸은 웃으려고 하며 가슴에 안고있던 자그마한 함을 내밀었다.

《이 -거 … 아버지 …》

거기엔 정히 말리운 네잎토끼풀이 들어있었다.

혜성이는 어려서부터 잔디밭에서 놀기를 좋아했다.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집앞으로는 파아란 잔디밭이 펼쳐졌는데 거기엔 류달리 토끼풀이 많았다.

한번은 혜성이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대학으로 찾아간 일이 있는데 거기에도 길옆에 토끼풀이 있었다.

어린것은 하얀 꽃을 꺾어 엄마에게 내밀었다. 그것을 두개 잇대어 손목에 감아주니 그 양증스러운 손으로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것이였다.

《엄마! 나 시계꽃 아빠한테 보여줄래.》

카나다에 왔어도 조국이 그리울 때면 이 풀을 찾곤 하였다. 네잎짜리 토끼풀을 찾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잠만 있으면 공원이 나 강변으로 나가곤 했다. 해와 달을 넘기며 여직껏 찾은 네잎풀이 모두 다섯개였다.

그것을 아버지의 소식을 알게 되면 편지속에 보내겠다며 말리워두었던것이다.

《혜성아, 이것만은 네 손으로 보내야 한다. 년 죽어선 안돼!》

이제 아버지랑 만나면 온 가족이 대동강변에 모여앉아 오늘을 추억하며 노래를 부르자구나. 모란봉에 올라 꽃구경도 하고…》

허나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딸의 눈엔 재빛장막이 덮여있었다. 영영 오지 못할 길로 가버렸던것이다.

남숙은 굳어졌다. 함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는듯 했다.

네잎풀들이 방바닥에 흩어졌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는 가족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쪽지들이

매달려있는것이 아닌가. 혜성이가 그토록 바란 가족들의 행복이였다.

유독 한쪽지에만은 네잎풀이 없이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져있었다. 여섯식구의 마지막번째인 여섯번째 풀은 아직 찾지 못했던것이다.

그것을 집어드는 남숙의 손이 와들와들 떨리였다. 《혜성》이라고 쓴 두글자가 확대되었다가는 작아지고 또다시 커지며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아, 마음속으로나마 안아보려던 그 행복마저 찾지 못한채 너는 갔구나!) 막혔던 물목이 터지였다.

남숙은 딸을 와락 그러안고 마구 불을 비비며 몸부림쳤다.

《너를… 너를 어떻게 내 손으로 이국땅에 묻으란말이나-》

남숙의 눈에서는 피같은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

녀인은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갔다.

혜성이가 남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갔더라면 이다지 가슴허비지는 앓을것이다.

아버지를 찾겠다고 것처럼 희망하던 음악가도 마다하고 간호부가 되어 다른 나라에 팔려다니며 아버지의 행처를 수소문하던 딸이였다.

그 과정에 병을 만나고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것도 알지 못한채 타향의 한줌 흙으로 변하고말았다. … 이 아픔을 태규가, 아니 태규의 아버지가 어떻게 다 알수 있단 말인가.

남숙은 깊은 한숨을 내그었다. 딸을 잃고 방황하며 모태기던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듯 했다.

고요의 저녁빛이 살며시 내린 빈 들
양상한 나무가지 새떼마저 가버리고
갓 잃은 딸 모습 그려 초생달을 안는다

청초한 너의 모습 초생달로 웃는구나
너 놀던 동산이야 바람일던 가시밭길
한땀한 너의 큰 날개 새 하늘을 날으렴

자기가 쓴 《빈 들》이라는 시였다. 어쩌면 이것이 내 운명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빈 들… 80평생을 살았다고 하나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학문으로 남편을 돕자던 일루의 희망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험난한 인생길에 딸마저 가버렸다.

땅도 제 땅이 아니요 사람들도 제 나라 사람들이 아니다.

직업도 자기것이 없었다. 잡일과 청소부, 아이 보게 ... 무슨 일인들 안해보았으랴.

세상을 하직할 나이가 되어 남편을 만나게 되니 그 또한 남의 사람이 되고... 아, 내 인생엔 남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남숙은 몸부림치고싶도록 안타까웠다.

3

남숙은 방에 홀로 있었다.

태규는 아버지가 일어나면 (병원에서는 아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는것이다.)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환자가 갑자기 흥분하면 도리어 나쁠것 같아 남숙도 좀더 기다리기로 하였다.

태규는 가면서 붉은색표지를 한 책을 맡기었다.

집안의 가보라고 하였다.

(무엇을 적은걸가?)

남숙은 책을 펼치었다. 오래전에 너무도 눈에 익었던 남편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파르르 떨리었다.

김수겸이 자필로 쓴 수기였다.

갑자기 승업한 생각이 들었다.

《배낭속의 수첩을 펼치며》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 《나의 조국해방전쟁참전수기》라는 부제가 있었다.

《...부모형제들의 사랑만을 받으며 아늑한 집안에서 책 읽는것밖에 모르고 자라난 나에게 있어서 전쟁은 세찬 바람과 불의 도가니속에서 한 인간을 단련시켜준 학교이며 용광로였다.》

이렇게 시작된 수기는 자기가 꾸려준 배낭을 메고 평양을 떠난 때로부터 서울, 광주를 거쳐 전라남도 진도에까지 나갔던 일이며 거기서 후퇴명령을 받고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오던 일 그리고 인민군부대에 편입되어 싸우던 일들이 자세히 적혀져있었다.

특히 후퇴때 이야기는 남숙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진도는 우리 나라 최남단이면서 섬인것으로 하여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수겸이 후퇴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미 모든 인민군부대들이 북으로 들어간 뒤였다. 하여 줄곧 산발을 타지 않으면 안되었고 조직적인 연계도 가질수 없었다.

별의별 고생을 다하였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번 넘었다. 그러면서도 굴함없이 북행길을 걸었다.

단순히 북에 있는 처자때문이였는가, 아니었다.

남편은 이미 전쟁전의 그 남편이 아니었다.

그가 인민정권사업을 도와주려 나가있을 기간은 길지 않지만 그 기간 북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열렬한 동경을, 해방지역들에서의 민주개혁을 통하여 **김일성**장군님의 정치가 얼마나 좋은가를 절감한 그들의 존경과 흠모의 감정을 력력히 느낄수 있었다. 그 마음의 재부를 안고 후퇴길을 헤치였다.

하기에 타오르는 모닥불앞에서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못 견디게 그런것은 **김일성**장군님의 품이었다.

남편은 계속하여 이렇게 썼다.

...

한달동안 천신만고하여 북반부가 바라보이는 땅에 들어섰다. 여기서 놀라운 소식에 부딪칠줄이야.

적들이 평양까지 들어갔고 시민들은 모두 북쪽으로 후퇴해갔다는것이였다.

나는 증오감에 치를 떨었다. 우리 평양이 놈들의 더러운 군화발에 짓밟히고있단 말인가.

아침저녁 오가던 정든 교정길과 아이들이 뛰놀던 내 집 뜨락가, 모란봉의 산보길, 경치수려한 룡라도와 청류벽... 이 모든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적개심을 금할수 없었다.

후퇴길에 남숙은 또 얼마나 고생이 많을것인가.

일곱살난 혜성이는 혼자 걷는다쳐도 다섯살난 태정이는, 세살짜리 혜영이는 어떻게... 거기에 젖먹이까지 달렸으니 오죽하랴.

제발 앓지 말고 승리의 그날까지 곳곳이 이겨내야 할텐데.

이무렵 나는 락동강까지 나갔다 들어오는 인민군2사부대와 만나게 되였다. 자원하여 입대하였다. 처자와의 상봉을 앞당기는 길이며 평양을 해방하는 길이였기에.

그때부터 나는 부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다.

1950년 11월 25일.

밤에 있는 군관회의 보고와 토론들은 나를 흥분시켰다.

사단은 군단으로 승격되고 최현동지가 군단장으로 임명되였다.

2군단은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적후에 들어가 강력한 2전선을 형성하여 적들을 배후에서 족칠데 대한 명령을 받아안았다.

다시 적후로! 새로운 싸움을 앞둔 우리의 가슴

은 부풀어올랐다.

군단장동지가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섰다.

엄하면서도 소탈한 최현동지는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이런 말을 하였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한가지 의논할 것이 있어오라고 했다, 적후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대학교원들을 비롯하여 후퇴도중에 입대한 사민들을 모두 돌려보내자고 한다, 그러나 선생만은 우리와 행동을 같이해야 할 것 같다,

영어와 그밖의 외국어를 선생만큼 아는 사람이 부대에는 없다, 이제 적후에 들어가면 미군놈들을 비롯하여 추종국가군대와 직접 싸우게 되는데 통역이 없어서는 안된다,

물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

이때 나의 눈앞에는 대학에서 함께 일하던 교원들이며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의 모습이 엇갈려 떠올랐다.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추운날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색하여 대답하였다.

《군단장동지! 미제놈들과의 싸움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까지든 부대와 함께 있겠습니다.》

1950년 11월 28일.

남진하는 길에서 나는 오늘이 태성이의 돌날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가슴이 찢르르해졌다.

가족에 대해 생각할 때면 늦어도 태성이 돌전에는 처자와 만날 수 있고 생일상도 차려줄 수 있지 않을가 기대를 가지곤 했었는데 허사로 되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남숙과 아이들을 소리쳐 불렀다.

(남숙이! 기다려주오. 애들아! 아버지는 원썬놈들을 쳐부시러 또다시 남으로 나간다.

승리하고 돌아와 태성이의 첫돌상을 본때있게 차리자구나!)

1951년 2월 28일.

나는 대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부대를 떠나 열흘만에 38도선에 도착하였다.

우리를 태울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마중 나온 강좌의 차교원을 만났다. 강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그는 나를 언제나 스승처럼 대하며 따랐었다.

《오늘 선생님이 들어오신다기에 하던 일을 쫓겨놓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

그도 전선에서 싸우다가 얼마전에 대학으로 왔다는 것이다. 전쟁을 겪고보니 이런 상봉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한참 열이 나서 이야기하던 차 선생이 갑자기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다.

《저 ... 가족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마음이 불안해졌다.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으니 아마 남에 떨어졌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대렬인술을 맡은 자가 교활하고 나쁜 놈이었는데(이번에 판명되었다고 한다.) 그놈의 작간에 그만 아주머니가...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됐단 말이요?》

남숙이 아이들을 데리고 남으로 나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까맣아졌다. 딛고선 땅이 흔들리는 듯 한 환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읽어내려가던 남숙은 머리를 싸쥐었다.

(그러니 나를 후퇴대렬에서 떼어내자고... 썩썩하게 발라맞추던 그자의 속심이 그렇게 검은줄 내 미쳐 몰랐구나. 아, 내가 무슨 인생의 실책을 범했던 말인가!

줄지에 가족을 잃은 그이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가. 그이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것이 이렇게 한생의 리별을 가져왔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용서를 바라며 용서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불행해졌다고 생각해왔으니 ...)

쓰디쓴 눈물이 나무진처럼 배어나왔다.

남숙은 힘줄까지 드러난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은 아픔을 부여안고 다시 굴줄을 더듬어나갔다.

4

나는 그때 한시간나마 풀밭에 앉아있었다. 차 선생이 안타까이 지켜보는 것도, 나때문에 차가 떠나지 못하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무슨 생각인들 안했으랴. 그길로 서울에 달려가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이 열백번도 더 들었다.

2차서울해방전투때 옛 집앞을 지나면서도 들러보지 않은 것이 통탄할 정도로 후회되었다. 거기에 처자가 있으리라 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제 평양 가면 덩그런 빈집이 나를 맞아줄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기가 막혀 눈물이 핑 돌았다.

리성은 대학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쳤으나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나는 북반부에서의 4년생활을 조용히 더듬어보았다. 제일 속에 걸리는것은 《6자모》로 하여 나라와 민족앞에 오점을 남긴것이였다. 한 간부의 권력에 맹종하여 학자의 량심마저 저버린채...

이때 나를 건져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나의 손을 따뜻이 잡아 자리에 앉혀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선생이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선생이야 일제에게 빼앗긴 조선의 말과 글을 찾자고, 민족의 넋을 지키자고 언어학을 전공하신분이 아닙니까!》

불시에 눈굽이 쿵 젖어들었다.

《그렇게 애국의 지조가 높은분이 한순간 관직에 놀리워 마음이 흔들린것이 더 가슴아프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나라가 분열된 조건에서 〈문자〉를 받아들이면 북남사이에 오가는 편지나 출판물도 서로 알아볼수 없게 될것이고 오래 지속되면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동성이 점차 없어질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진것만도 통분한데 민족까지 갈라져서야 되겠습니까?!》

너무도 절절하신 말씀에 나는 눈앞이 흐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가슴이 막 비틀리는것 같았다.

(민족어의 우수성과 순수성을 지키자고 나선 내가 오히려 민족앞에 죄가 되는 일을 하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없이, 그러면서도 내 나라 말을 연구한다고 자부해왔으니 나아말로 속이 빈 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얼드려 땅을 치며 통곡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언어학자들을 둘러보시며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인것만큼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언어와 민족은 량립될수 없는것이 아닙니까. 더우기 조국이 분열된 조건에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성을 가지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문자개혁론〉을 들고나오기에 나는 이미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그 어떤 문자개혁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교과서에서 고유한 우리 말문자에 〈6자모〉를 섞어쓰고 그에 대하여 구구히 그릇된 설명을 한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문법교과서의 개작방향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나는 그제서야 《6자모》를 주장한자들의 더러운 공명심에 대하여, 이것이 민족의 공통성을 파괴하는 반민족적행위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부대를 떠나올 때의 일도 돌이켜졌다.

최현군단장은 나를 불러다세우고 그 매눈같은 눈을 부라렸다.

《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부대에 있겠다고 했다면서? 전선에 있는 대학교원들과 대학생들을 평양으로 올려보내라는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감히 ...》

언젠가 부대에 남으라고 하던 때와는 판판 달랐다.

《하긴 나부터가 잘못했소. 본인이 안간다고 밀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

선생의 걸음을 지체시킨걸 진심으로 사과하오.》

나는 코허리가 시큰했다. 솔직하고 소탈하면서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집행을 절대화하는 투사동지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감복되었다.

최현동지의 목소리는 한껏 부드러워졌다.

《오늘 전선형편을 료해하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학교원들의 소환정형에 대하여 물으시는것이였소.

나는 선생생각이 나서 주뭇거리다가 사실그대로 보고드리었소.

그러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수점선생은 자기께서도 아는 교육자라고, 아주 실력있고 량심적인 지식인이라고 하시면서 빨리 대학에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소.》

(장군님께서는 벌써 승리한 앞날을 내다보고계시누나. 우리가 이겼다!)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길수 없었다. 심장이 뛰었다,

포연이 흐르는 평양의 하늘아래 다시 열릴 강의실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다릴 대학생들을 생각하니 눈굽이 따라와졌다.

가슴이 훈훈해진다. 이것은 분명 사랑이 주는 힘이었다.

사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웁고 가장 열렬하며

더없이 순결한 인간의 뜨거움!

허나 개별적사람들의 사랑은 하나의 초불같이 하나의 방안밖에 밝히지 못한다.

오직 위대한 위인의 사랑만이 만사람을 보살피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줄수 있는것 아닌가.

전쟁전의 일이 떠올랐다. 언어문제는 곧 민족문제라고 하시며 조국의 분열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던 장군님의 말씀... 그 준절한 말씀이 이 순간 가슴을 아프게 두드린다.

그때의 아픔이 백이었다면 지금은 천, 만으로 가슴이 저린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는 비로소 그 《매》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것이다.

항일의 혈전만리 피로써 찾은 조국이 분열주의 자들에 의하여 둘로 갈라질줄 생각이나 하셨으랴.

헌데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조국을 하나로 이어야 할 사람들이 신념의 대가 없이 흔들리는것을 보셨을 때 그이 마음 얼마나 괴로우셨으랴.

나는 가슴저미는 죄의식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최현군단장이 다가와 나의 어깨를 꼭 잡았다놓는것이였다.

《선생이 부럽소. 나도 대학공부를 하고싶구만. 허허 ... 아무쪼록 최고사령관동지를 잘 받들기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에게 민족간부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인사를 선생에게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나같은것이 뭐라고...) 나는 크나큰 감격에 어쩔줄을 몰랐다.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 사랑이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끝없는 행복감에 눈물이 짙짙 흘러내리는것도 알지 못하였다.

최현군단장이 전화로 후방부사령관을 찾는 소리가 방안을 드렁드렁 울리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우리 선생님을 잘해서 보냅시다!

새 군복과 필요한 소지품을 일식으로 갖추어주고 평양까지 무사히 가도록 대책을 해야겠소. 인민군대차를 리용할수 있게 〈특별통행증〉을 하나 써주도록 하오. 지원군차를 맞다들릴수도 있으니 중국말로 쓴것도 말이요.》 ...

이렇게 떠받들려 여기까지 온 나였다.

하다면 내가 잘나서인가. 애국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애국이 무엇인지 다 몰랐던 내가 아닌가.

그런 허물을 용서해주신것만도 한량없는데 이렇게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니 진정 나의 애국의 하늘은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신가!

나는 내가 갈 길을 알았다.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자기를 지킬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김일성**장군님을 따라가는것이다!

나는 이것을 남숙과 이이들이 언제든지 리해해 주리라고 믿었다.

...

남숙은 책을 덮었다.

걱정의 파도가 밀려와 흥벽을 황황 두드렸다.

(아. 나는 너무도 많은것을 몰랐구나.

남편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남편을 보살피주는 위대한 품이 있다는것을 미처 다 몰랐으니...

그 품이야말로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모두 안아 인생의 먼먼 앞날까지 책임져주는 돌도 없는 아버지품이라는것을 더더욱 몰랐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다 안다고 자처하였으니 인생의 착오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였다.)

남숙은 생각이 깊어졌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바란다. 나 역시 무한히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였다.

허나 행복은커녕 한생 지경밖에 밀려나 외로움속에 살아오지 않았던가.

인생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부평초마냥 한뼘 떠다녔다.

반세기전 평양을 등지고 돌아섰던 그 걸음속엔 얼마나 무서운것이 있었던가. 나는 스스로 어머니를 버린 못난 자식이 되였다. 인생의 실책이기는 하나 이미 었지른 물이었다.

남편의 한생은 어떠한가. 그도 한때 신념이 없이 인생의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던가.

하지만 남편에게는 자기의 정신적지주가 있었다.

인생의 가치는 재부가 아니라 애국과 잇닿은 참다운 명예에 있으며 그 길이야말로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이라는것을 폐부로 절감하고있었던것이다.

하기에 해방후 그는 부모형제의 곁을 떠나 서슴없이 평양으로 왔고 그 길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한길을 걸었다. 오늘은 남들이 부러워할만 한 성공의 높이에 올라섰다. 조국에 대한 순결한 헌신으로 하여 그는 조국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되었다.

가장 값높은 행복은 이런것이 아닌가!)

남숙은 판이한 두 인생의 대조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알았다.

그것을 깨닫고보니 이미 한생은 다 지나가고...

복도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남숙의 생각은 끊어졌다.

문이 열리며 꽃같은 두 처녀와 태규와 안내원의 얼굴이 동시에 나타났다.

두 처녀는 커다란 꽃뭉음을 안고있었다. 질은 꽃향기가 남숙의 가슴에 확 실리었다.

《조국에 오신 할머니를 환영합니다!》

자기에게 팔랭이 두 딸이 있다고 하던 태규의 말이 생각났다. 할아버지의 성격과는 달리 쾌활하기 그지없는 손녀들이었다.

그들이 가져온 소식 또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모두 경사가 난듯이 기뻐하고있어요.

할머니, 빨리 가지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기다리고있어요! ...

남숙에게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병원마당이다.

차에서 내린 남숙은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남편을 인차 알아보았다.

산뜻한 처마아래 목중해보이는 출입문, 그앞에 서있는 백발의 로인... 그도 자기를 알아보았다.

헌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남숙은 발을 허둥거렸다. 뽕안 운무속에 가리워지군하는 남편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얼마만에 만난 남편인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리도 자기를 현혹케 하던 지식인청년, 그후 북반부에서의 생활,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바래우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앉아 노래를 부르던 행복의 순간들.

전쟁시기 헤어질 때 이렇게 장장 반세기동안이나 갈라져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막내가던 태성이라도 이제는 50고개를 넘어섰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그 자식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제라도 자식들의 마음속슬픔을 가서줄수 있다면, 네 자식을 나란히 아버지앞에 내세울수 있다면 무슨 한이 있으랴. 허나 이것은 꿈이었다.

(모든건 내 탓이에요. 당신앞에 면목이 없어요.

혜성이한테서 아버지를 찾아내고 그 애 목숨을 빼앗아간것도 바로... 나란 말이에요!)

왈칵 울음이 북받쳤다. 남숙은 저도 모르게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그 자리에 선채 흐느꼈다.

금시 오열이 터질것만 같았다.

누군가 가까이 와서 남숙의 손을 부여잡았다.

《아픈 심정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부턴 웃으며 사셔야지요. 그래야 아버지도 기뻐하실거고...》

태규였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남숙의 마음은 어지간히 진정되었다.

그는 눈물을 씻고 바라보았다. 몇걸음앞에 남편이 오고있다.

30대 헤어질 때의 모습은 찾아볼수가 없다. 머리카락에 무겁게 얹은 백발이 눈뿌리를 지저준다.

방금전에 차를 타고오면서 태규는 말했었다.

《사실 난 친아들이 아닙니다. 전후 아버지는 재취하라는 사람들의 권고를 마다하고 양부모가 없는 나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남숙은 남편의 심정이 이해되기도 남음이 있었다. 자식들에게 주지 못하는 사랑을 태규에게 고스란히 쏟아부었으리라.

어느새 남편이 앞에 와섰다.

《남숙이!》

석십하면서도 갈린 목소리이다. 그것이 천만근의 무게를 가진듯 남숙의 가슴을 뻘근하게 한다.

눈앞이 확 흐려진다.

(혜성이 아버지!) 남숙은 목메여 불렀으나 아무말도 나가지 않는다. 그저 눈물만 그렇그렇 차오른다.

그는 옷매무시를 바로 하고 그렇게도 만나고싶었던 남편앞에 다소곳이 절을 하였다.

남편이 그의 손을 잡아일으켰다. 후더운 정이 전류처럼 흐른다.

남편의 눈에도 물기가 번쩍이었다.

《남숙이, 보고싶었소!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느라 고생인들 얼마나...》

다정한 그 목소리, 살뜰한 손길, 잊을래야 잊을수 없었던 부드러운 체취... 남숙은 웃음을 지으며 수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순박하면서도 열정적인 두눈!

자기가 모든것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끝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 녀인은 온몸이 물먹은 솜

처럼 찾아드는 것이었다. ...

한참만에야 그는 자기가 남편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토록 안기고 싶던 품, 한생 사랑하고 또 사랑해온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피여오른다.

다시는 놓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품이 아니라 꿈에도 그려보던 조국,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는 내 나라의 품이었기에...

남숙은 행복의 진미를 처음으로 느끼는 듯 하였다. 그는 돌아가면 자식들에게 말해주리라 생각하였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안아주는 품이 있다고. 어머니에게는 고운 자식, 미운 자식 따로 없는 것이라고...

불현듯 혜성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여섯번째 네잎꽃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모습이다.

남숙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혜성아! 네가 것처럼 찾아헤맨 행복을 나는 여기 와서야 알게 되었다. 행복은 그 어떤 신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데 있다는 것을!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그 품과 떨어질 때 민족과 멀어지게 되며 그 길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80평생 오늘에야 내가 찾은 뼈저린 교훈이며 후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

이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앞에는 류다른 꽃다발이 하나 놓여있었다. 하얀 작은 꽃이 다문다문 섞인 소담한 들꽃 묶음이었다.

조국과 나무 한그루

장명길

조국산천에
나무 한그루 크던가 작던가
나는 지금 애어린 나무를 심으며
가슴속에 크나큰 조국을 안는다

이 나무 다 자라면
청고운 새들 우듬지에 품어주며
이 땅에 아름다운 선물을 더해주리
아지마다 주렁진 천만잎새는
정든 산천에 푸르름을 보태주리

산에 등산 온 아이들
《보물》 찾는 숲속에도
이 나무 아이들의 웃음속에 서있으리
화가들이 저마다 그려내는 화폭에
이 나무 멋지게 한 자리를 차지하리

정녕
나의 즐거운 시절이 뛰놀았고
오늘도 내가 안겨사는 조국산천
가슴에 새긴 그 밝은 모습이 있기에
내 지금 애기나무를 심고서도
앞날을 눈앞에 그려보는 것 아닌가

오늘을 위해 심는 나무가 아니라
나에게 다함없을 사랑을 키워준
그림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 강산
태를 묻고 자라는 후손들에게

세월을 넘어 물려줄 채부이기에

해살 파사로운 이 봄날
나는 나무를 심는다
돌기돌기 어김없이 새겨질 년륜속에
이 땅의 오늘과 래일을 이으며
나는 나무를 심는다

누구나 가꾸고 빛내야 할 조국에
외면하고 비워둘 땅 한치도 없으라
우리 한그루 또 한그루 심어
조국강산 더욱 수려해질수록
마음속에 래일은 더 빨리 다가서고
사랑은 더욱 열렬해지리니

아름드리거목은 앞날에 서있고
지금은 야들한 가지를 펼치고있어도
조국을 다시 한번 간직하기엔
이 나무 한그루
결코 작지 않아 어리지 않아

나는 지금 애어린 나무를 심고
가슴속에 크나큰 조국을 안는다
선군의 세월에 더욱 가꿔진 애국의 마음들로
날이 갈수록 푸르러질 산천의 모습
세월이 갈수록 번영할 조국의 모습
찍어둔 사진마냥 생생히 그려보며...

고기떼가 흘러든다

조광원

버들잎 흐느적이는 대동강에
병사들 조용히 물통을 기울인다
억세인 그 손에 어리광치며
새끼고기들 꼬리치며 내린다

아직은 작은 새끼고기들
장알진 손에 입맞추며 땀돌제
병사들 얼굴에 피어나는 밝은 미소
물속에도 웃고있는 구리빛 얼굴들
그 볼도 애무하며 고기떼 떠난다

수면으로 조용히 떠가는 고기떼
이 가슴에 굶이치는 걱정 물이랑은
훈련길에 인민의 행복을 자태우며
병사들이 흘러온
후더운 땀의 이랑 아니던가

간다 저 강북판으로
병사들의 손에서 고기가 간다
총을 잡은 손에서 깨워낸 고기
인민의 가슴에 파도를 일으키며

간다 꽃뿔트 헤엄치는 대동강에
청춘들의 정겨운 속삭임도 감돌며
병사들의 땀젖은 사랑이 간다
수호자의 뜨거운 마음이 흐른다

아 병사들은 작은 고기를 놓아주고
다 자란 큰 고기는 인민이 낚으리니
대동강에 고기떼가 간다
병사들의 손에서 고기떼가 간다

동해의 배길

리창식

혈육이 오가던 동해의 배길
배길이 끊기웠다

한 하늘을 이고 못살
사무라이의 후예들이
동포애의 길마저 또다시 동강냈나니

참을길없는 가슴속 분노를 안고
동해가 노호한다
길길이 솟구치며
절벽을 들부시며
최악의 섬나라로 증오는 격랑쳐간다

《제재》와 《봉쇄》를 미친듯이 떠들며
민족의 순결한 정을 우롱하는 놈들아
오늘은 네놈들의 덜미를 끌어내여
세기의 결판을 끝장내고싶구나

보느냐
세세년년 쌓인 원한이
노도로 터진 우리의 동해를
렬도의 등허리를 단숨에 짓부실듯
무섭게 들뛰는 바다의 격노를-

고역의 사슬을 차고
왜나라로 끌려가던

겨레의 비통한 울분이 함께 일어서노라
순결을 짓밟히고 창파에 몸을 던진
꽃나이 처녀들의 원혼이 섬섬히 고패치노라

세기가 바뀔다고 우리 잊을소냐
고향길에 오른 수천의 목숨을
잔인한 폭음으로 통채로 수장한
살인마 오랑캐들아
그날의 피타는 절규가
우리의 바다길우에 일어번지고있노라

동해의 배길이 끊기웠다고
동강날 겨레의 정이 아니다
백천번 칼질을 해도 바다를 가를수 없듯
민족의 더운 피는 더더욱 사품치나니

네놈들이 가로막은 바다길우에서
우리는 무자비한
천백배의 복수를 선언한다

아, 세기를 이어 쌓이고쌓인
분노의 화염이 쏟아져내리는 날
인류앞에
력사앞에 최악많은 너 섬나라오랑캐의 아성은
이 바다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리라!

꽃밭을 가꾸는 안해여

최인덕

마당의 나무순 돌는 소리 들리는듯 한
해빛 따사로운 3월의 봄날
내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니
손자를 데리고 꽃밭을 가꾸는 안해여

벌써 세월은 멀리도 흘렀구려
신혼살림 마당의 꽃밭을 가꾸던 날 어제같은데
안해의 머리에도 흰서리...
나의 머리에도 흰서리...

함께 살자 약속한 결혼이었던만
우리는 많은 나날 헤어져 살았지
내 당신이 정성껏 꾸려준 배낭을 메고
공장으로 농촌으로 먼 개발지로 자주 떠났지

그 배낭에 언제나 가득히 챙겨준것은
생활의 필수품만이었던가
수령님의 교시와 장군님의 말씀집
그리고 회상기와 하모니카...

내 그대에게 살뜰한 정 못주어도
당신은 배낭을 메워주고 받아주며
늘 하던 말 가슴을 후덕게 해주었소
조국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치자고

언제 한번 자신의 몫을 남긴적 없는 그대

하여 내 따로 당신에게 준 그 진정마저
초소의 군인들과 조국의 건설장에 바쳐가며
언젠가는 나에게 말했지

주부는 가정일을 래일로 미루는적 없고
주부는 가정일을 남에게 맡긴적 없듯
언제나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해가는 길에서 행복
을 찾자고

하기에 우리는 남편과 안해이기전에
혁명동지였고 당원이었소
우리는 자식을 둔 가정의 부모이기전에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아들딸이었소

마당가에서 꽃밭을 가꾸는 안해여
뿌리없는 나무에서 꽃과 열매 바랄수 없듯
바치기만 하는 그대의 정깊은 손길이 없었다면
내 어찌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할수 있었겠소

이해따라 봄날의 해빛은 더 따사로워
나무의 새순돌는 소리 들리는듯 하오
그 소리 젊음이 약동하는 그 기슭으로 우리를
부르고있소
젊은 시절 그날처럼 손잡고 한생을 달려갑시다
밝아온 강성대국의 려명에 온몸을 붉게 물들이
며...

우화시

《보증》 선 까마귀들

문영철

외꾸눈이 까마귀와 번대까마귀
먹을것을 찾아 날아가던중
어느 한 지붕우에 내려앉았네
문득 긴 장대기끝에 축 처져 눈물을 흘리는
낮익은 왜나라의 일장기를 보았네

《아니 자네 일장기가 아닌가?
그런데 왜 초절임한 풋배추 모양인가?》
외꾸눈이 까마귀의 물음에
번대까마귀도 덩달았네

《어서 말하게 자네의 고민거리를...
지난날 자네 주위를 맴돌면서
송장냄새를 맡은 〈신세〉를
우리가 톡톡히 갚을테니》

그러자 일장기 《동정자》들을 만난 《감격》에
울음섞인 목소리로 떠엽떠엽 하는 말
《우... 우리가 유엔상임리사국이 되려고
하... 하는데 ... 누구도 찬성하지 않아!
지... 지난날 죄가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
돈뭉치도 맥을 못취》

그말 듣고 외꾸눈이 까마귀
한눈에서나마 눈물이 흐르고
번대까마귀 반들거리는 이마 어루쓸다
불쑥 내뱉었네
《그까짓, 〈유엔상임리사국〉에 들어야만 맞인가?
차라리 〈유골상임리사국〉에 들게》

《폭탄》 기사

리철만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아직까지 본적이 없는 이상한 흑점을 관측하게 되었다.

흑점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있었다.

천문학자들을 놀래운것은 흑점이 소행성도 아니고 우주왕복선이나 행성간로케트가 아니라 그보다 비할바없이 작은 비행체라는것이였다.

혹시 우주인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소형비행기구를 타고 지구에 오는것이 아닐가?

천문학자들은 고도의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흑점의 정체가 밝혀진것은 그때로부터 며칠후였다.

X

한선미는 평양에 본사를 두고있는 《빛소식》통신사의 기자이다. 그는 세계 5대륙을 메주 밟듯하며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어제야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는 며칠 폭 쉬라는 책임주필의 권고를 사양하며 서둘러 본사를 나섰다.

그에게는 빛속도도 느낄만큼 한달음에 달려가고싶은 곳이 있었다.

모든 처녀들이 한번은 빠진다는 거기에 한선미도 빠진것이다. 빠진것이 지극히 당연한것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선의 지능컴퓨터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잠시 망성이지 않을수 없었다. 처녀에게는 자제력이 있어야 하는것이

다.

물론 사람들은 흑진주를 련상케 하는 류달리 검은 두눈이며 도고함과 아련함이 서로 어울린듯한 입술, 흠잡을데 없이 세련된 옷매무시를 보고 이 처녀가 매우 풍부한 자제력을 가지고있으며 빠져도 왕청같은데 빠질 처녀가 아니라는것을 대뜸 알아볼것이다.

한선미는 자제력덕분에 가고싶은 곳이 아니라 집으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용로봇 《잠자코》가 제법 반가운 기색을 보이며 인공눈을 유순하게 깜빡거렸다.

《잠자코》는 혀끝으로 상이탑을 쌓는 수다군들을 질시하는 한선미가 품을 들어 생각해낸 이름이였다.

결과를 산생시키지 않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은 이름이였다.

《우리 선미가 돌아왔구나.》 어머니 영녀가 반기며 빠른 걸음으로 나왔다.

《아이, 어머니!》한선미는 철부지 소녀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겨들었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몰라...》

한선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아직도 엄마만 보고싶으니 야단이구나. 내가 네 나이때 엄마가 두번째로 보고싶을 때가 있더구나.》

《뭐? 〈유골상임리사국〉?》

일장기 기절하듯 온몸을 펄럭이자
외꾸눈이 까마귀 번대까마귀의 말에
키질했네

《암, 왜나라야 아시아나라들에
술한 유골들을 산더미로 쌓았는데
〈유골상임리사국〉이 되는거야 응당하지
그런 기구가 없다면

혼자서라도 만들라구

우리가 〈보증〉을 서주지》

그러자 두 《보증자》앞에 일장기
목소리를 낮추어 다짐하듯 말했네
《절대로 다른 나라들은 (미국제외)
〈유골상임리사국〉에 받아주지 않을테다
패شم한것들!》

《응? 그건 무슨 말씀이예요?》 한선미의 흑진주 같은 눈이 울통해졌다.

《참, 현우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

한선미는 전기에 감전된듯 와들 놀랐다.

《아니, 그 동무가 어머니에게 왔었어요?》

《아니다. 네가 없는새 몇번 전화가 왔었다. 네가 돌아왔는가고 묻더구나.》 이러며 영녀는 딸을 결눈질해보았다. 한선미의 상큼한 목덜미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홍조를 일별하는 순간 영녀의 마음속엔 기쁨이 샘솟는것 같았다.

《자, 그럼 쉬거라. 내 곧 특식을 만들어오지.》

《아니, 어머니, 전 좀 갈데가 있어요.》

《...》 영녀는 말리지 않았다.

《그럼 어서 옷을 갈아입고 갔다오너라. 내 기다리지.》

한선미는 자기 방에 들어가며 잠시 생각을 더듬었다.

《나의 도착을 그 동무에게 알려줄까?》

한선미는 휴대용다매체통화기를 쥐고 망설였다. 이제 빨간 단추만 누르면 그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날것이다.

그러나 한선미는 빨간 단추를 누를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의 《특별지시》를 수행하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렸던것이다.

《선생님!》

한선미는 《잠자코》가 자기를 찾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현우선생님이 전자우편을 보내여왔습니다.》

때로는 어느정도의 애교가 사람들의 기분전환에 효능높은 촉매제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잠자코》는 무뚝뚝하게 관절식으로 된 두팔을 쑥 내밀었다.

《뭘, 현우선생이?》

한선미의 쌍꺼풀진 고운 눈에서 내뿜는 환희의 빛이 방금 인쇄해낸 전자우편에 가닿았다.

《선미동무,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성남동무가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완강하게 침묵하고있는 이상 저도 단호하게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리수민원사의 참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를 동무도 미리 예상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실험과정은 나에게 성남동무가 그토록 비밀에 붙이고있는 리수민원사의 마지막유언을 알게 해줄것입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7-05〉를 성공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그것을 찾게 된다면 이번 실험이 결코 무모한것으로 되진 않을것입니다.

리수민원사는 생전에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때려눕힌자는 세지만 일어서는 사람은 더 강하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에게는 무서운것이 없는 법

입니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인간의 정신력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저는 이번 실험이 그 어떤 종말을 가져올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실사 그렇다고 하여도 그것은 보다 새것을 탄생시키기 위한 연소과정일뿐입니다.

선미동무,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바라지 않았던 일이 끝내 생기는 경우 저의 두뇌에 잠재해있을 실험수치들을 동무가 해독해주길 바랍니다. 그속에는 동무가 알고싶었던 문제들에 대한 대답도 들어있을것입니다.

리정로박사의 방조를 받으면 해독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성남동무에게 주십시오.

이제와서 〈7-05〉를 성공시킬 사람은 그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의 웅졸한 처사가 원망스러울수 있지만 보다 더 큰것을 위해 그를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선미동무.

동무가 돌아오면 이번에 있었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한 청년이 한 처녀에게만 줄수 있는 소중한 마음으로 깊이 사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계가 우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은것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그러한 추억으로 래일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김현우울림》

한선미는 자기 눈앞에 모든것이 이그러지고 균형이 파괴된 몽롱한 세계가 펼쳐지는것을 의식했다. 콕 차오르는 눈물이 그런 화폭을 그려낸것이다. 아마 《잠자코》가 사람이였다면 자기 주인을 울리는 현우에게 달려가 마깝지 않게 쏘아보며 좀 조용한 곳으로 나가자고 의미심장하게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우정... 그러니 우정이었던 말이지...)

그는 실성한듯 중얼거렸다. 다정하고 깨끗한 곳에서만 울리던 《우정》이란 말이 심장을 아프게 찌르는 비수가 될 때도 있다는것을 상상조차 못해본 선미였다.

사랑을 바라는 사람에게 우정을 주는것처럼 가혹한 행위는 없다.

비상한 두뇌와 섬광처럼 번쩍이는 발견력을 가진것으로 하여 학계는 물론 리수민원사의 사랑을 받던 제자, 과학탐구에 대한 불같은 정열로 한 처녀의 심장에 사랑이 가진 신비한 열광의 세계를 알게 한 인간.

한선미는 이런 인간에게 빠졌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지퍼놓은 불을 내가 끄라는건가요?... 동문 날 펴루 아는거예요. 무엇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는거예요.)

한선미는 황황히 뛰쳐일어났다.

현우가 지금 심상치 않은 독한 마음을 품은것 같다. 그를 만류해야 한다.

한선미는 다급히 비행선을 타고 소립자연구소로 날아갔다.

X

한선미가 김현우를 알게 된것은 리수민원사의 참사와 관련되어있었다.

초중력분야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들로 하여 현대물리학의 무시할수 없는 권위자로 불리우던 리수민원사는 중력무너짐현상을 관찰하는 실험도중 가속장치에서 원인모를 립자가 분출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급사했다. 원사의 희생은 과학계를 깜짝 놀래웠다.

전 세계가 리수민원사의 참사에 대해 제나름대로 보도했다. 각이한 추측과 억측이 담긴 전파들이 우주공간을 배회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과제가 한선미에게 위임되었다. 그는 세계를 진정시켜야 했다.

그러나 취재는 첫 단계에서부터 쏘얀 안개속에 휩싸여버렸다.

리수민원사는 그 누구도 모르게 단독으로 실험을 하였으며 그 어떤 실머리조차 남겨놓지 않았던것이다. 다만 원사의 립종을 지킨 병원 소생과 장 리정로박사가 이런 말을 했을뿐이다.

《그의 몸은 세포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해명되지는 않았지만 무서운 죽음의 립자가 그의 육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소. 나는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싸고있는 이 거대한 물질세계에서 그와 같은 립자가 존재할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소. 이런 때는 현대의학도 자기가 도달한 높이를 두고 수치를 느껴야 할거요.》

리정로박사는 103 살의 장수자로서 한세기이상의 년륜이 새겨진 이마를 설레설레 저으며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끝까지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로박사이다.

아직 돌아온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온 로인이었다.

(무서운 립자...)

한선미는 입속으로 되뇌었다.

《저 원사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없습니까?》한선미는 맥폴린 어조로 물었다.

《없소. 다만 원사의 뇌수에서 살아있는 몇개의 세포를 찾았는데 지금 거기서 발산한 뇌파를 성남이가 해독하고있소.》

《그가 누구니까?》

《원사의 아들이요.》

한선미는 성남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는 최근에 우리 과학자들이 달의 위성으로 전환시킨 소행성의 《특수구역》으로 갑자기 출장을 떠난것이였다. 왜 갔는지는 아직 알수 없었다.

선미는 현우를 다음 취재대상으로 선택했다.

리수민원사는 《7-05》체계개발조의 고문이였으니 그 직접적발기자인 현우가 이번 참사의 흑막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던져줄수도 있는것이였다.

기자란 남들이 흘리는것을 주어서 그들이 바라는것을 주는것이라는 다소 유모아적이지만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있는 선미이기도 했다.

현우를 만나는 첫 순간 한선미는 자기의 상상화가 너무 량만적이였음을 깨달았다. 증기에 체소한 몸집, 자기까지 시샘이 날 정도로 해말썽한 살결, 그러나 범상치 않는 빛을 발산하는 두눈에는 리지적인 지성인의 기품이 엿보였다.

《동무는 내가 거짓말을 할것을 바랍니까?》

한선미의 물음에 현우가 한 첫 대답이였다.

(대답을 물음으로 하는가?)한선미는 불쾌감을 느꼈다.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건가요?》한선미도 물음으로 공격했다.

현우의 눈빛이 뻥뻥해졌다. 다행히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우는 자기앞에 나타난 이 미모의 처녀가 《빛소식》통신사의 쟁쟁한 세소식전문가임을 잘 알고있었다.

인간생활의 다면사를 빗처럼 빠르고 생생하게 보도해주는 《빛소식》통신사의 보도시간은 현우의 고정취취프로였다.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과학연구상황들과 저명한 교수, 박사들과의 인터뷰를 능란하게 조직해나가는 한선미의 기자적재능에 내심 감탄도 했었다.

그러나 오늘날만은 이름있는 너기자의 방문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자기가 세계여론의 화제거리로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기자들한테 잘못 걸리는 경우 괜히 사람들의 귀맛이나 돋구어주는 일화감으로 제공될수도 있는것이다. 하지만 현우는 다른 생각도 해보았다.

이 너기자의 능력이면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무의 질문에 지금 당장 대답한다면 나로서도 그 진실성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동무가 저를 좀 도와준다면 알고싶은 문제들에 정확한 대답을 줄수 있습니다.》

현우는 난감한 기색을 보이며 한선미의 반응을 주시했다.

한선미의 두눈에 짙은 의혹의 그림자가 비쳤다.

(이 동무가 나를 어디로 유도하자는걸가? 내가 무엇을 돕는단 말인가?)

그러나 일은 땡땡하게 번져졌다. 한선미는 《함정》에 빠진것이다. 그것도 제발로 걸어서...

그는 자기가 《함정》에 빠진데 대하여 일종의 기쁨까지 느꼈다. 상대성원리에 따르면 이런 경우 누가 진짜 《함정》에 빠졌는지 절대적인 결론은 할수 없기때문이다. 상대성원리는 언제나 두가지 가능성을 주는것이다. 도리어 현우가 《함정》에 빠졌다고 해도 《상대성원리》에 모순되지 않는다.

그가 《합정》에서 나오자면 자기가 말한 《정확한 대답》을 찾아야 할것이다.

그때부터 이들사이에는 류다른 인연이 맺어졌다. 인연이란 참 별난것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갈수록 한선미는 자기가 빠진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 와서 현우는 무슨 일이 제기되면 한선미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내려먹이곤 했다.

《선미동무, 난 리수민원사의 유언을 알아야겠소. 성남동무가 다 해득했을게요.》

여직까지 한선미는 《정확한 대답》을 위해서 현우에게 복종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다. 화가 치민 그는 발끈해서 내소았다.

《전 동무가 마음대로 조종할수 있는 〈로보트〉가 아니예요.》

그는 자기의 헌신이 《순종》으로 모욕당하는것을 참아야 한다는 그 어떤 지식도 배우지 못한것이다.

《리수민원사의 유언이야 동무가 알아볼수도 있지 않아요.》

《아, 미안하오. 내 말을 좀 들어보오. 성남이가 나에게 정식 통보해왔소.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더이상 신경을 쓰지 말라고 리수민원사는 비록 쓰러졌지만 원사의 두뇌속에 잠재해있는 실험과정에 대한 자료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있는것이요. 그 자료속에 동무가 알고싶은 진실도 숨어있을거요.》

《호호호...》한선미의 입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 웃음속에는 《가시》가 들어있었다.

처녀들은 자기의 진심이 우롱당했을 때 이런 《가시》를 뽑아드는것이다.

《나에게는 동무의 <침착>훈련을 받은 경력이 없어요. 그런 인물이 요구된다면 저 대양건너 한복판에 있는 두뇌도굴자들에게 의뢰해보세요. 리수민원사의 두뇌를 놓고는 그 〈거미〉들도 가만 있지 않겠으니까요.》

《동무!》

우뢰같은 목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한선미는 흠칫 몸을 떨었다. 현우의 두눈에는 지금껏 본적이 없는 격렬한 광채가 번뜩이었다.

한선미는 온몸이 오싹해지는감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눈을 내리감았다. 그의 귀전으로 현우의 성난 목소리가 사정없이 날아들어왔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말해도 참을수 있소.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동무가 모르고있는데 대해서는 참을수가 없소. 지금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탐구자가 아니라 향유자의 립장에서 인정하고있다는거요.

과학을 그 어떤 선발된 사람만이 하는것으로 인식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소. 만일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다면 리수민원사의 참사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알수 없을거요.》

현우는 목이 갈려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선미는 다년간의 기자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투시할줄 아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 현우도 진정될것이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는것을 느끼게 될것이다. 그러나 한선미는 현우의 행동에서 너무 심도가 얕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았다. 그리고 그 어련애다운 단순함이 자기의 날카로운 《부리》를 무디게 만들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표면에 로출시킬 때 얼마나 윤색가공하는가를 체험을 통해 알고있었다. 로출된 감정과 행동과의 불일치, 그에게서는 이런 《깊이》가 보이지 않았다.

한선미는 다시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리수민원사의 유언을 알아낸다는것은 한다하는 탐방기자인 한선미에게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성남은 집요하게 유언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현우에게서 긴급통신이 날아왔다.

《선미동무, 오늘 북아메리카의 오리곤주에 있는 리론물리학자 제임스 코더가 아주 흥미있는 자료를 가지고 성남동무를 초청했다고 하오. 성남동무가 그리로 떠난것 같은데 따라가서라도 그를 만나보시오. 만약 예상치 못했던 정황이 생기는 경우 통화기의 긴급구조체계를 동작시키요. 내 주파수를 고정해놓고 있겠소. 그럼...》

한선미는 자기가 언제 태평양을 횡단했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한선미를 태운 곱등어형지능비행선은 굉장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가 오리곤주상공에 도착했을 때였다. 갑자기 비행선에서 이상한 정후가 나타났다. 비행선이 기수를 꺾으며 땅을 향하여 좁은 원을 그리면서 선회하기 시작했다. 비행선의 동체가 부르르 떨렸다. 《악!》한선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에 차고있는 다매체통화기의 빨간 단추를 눌렀다.

비행선은 알수 없는 괴물의 힘에 끌린듯 바위투성이의 야산을 향해 무서운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졌다. (아,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그것이 이렇게 빨리 나에게 닥쳐온단 말인가.)

어머니의 모습과 현우의 얼굴이 번갈아 머리에 스쳤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 내 몸은 산산조각이...)

이때 통화기의 호출신호가 울려왔다.

(아, 현우동무!)

《선미동무, 내 말을 들소. 비행선의 예비발동기를 가동시키요. 그리고 모든 가스분출구를 수직

으로 돌려놓소. 동무는 지금 중력이상지대인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들었소. 빨리!》

한선미는 가까스로 비행선에 지령을 주었다.

순간 무중력상태에 빠진것처럼 강한 현훈증을 느꼈다. 거대한 가속도를 가지고 자유낙하하던 비행선이 흠뻑하며 허공에 멈춰섰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비행선은 또다시 강한 인력에 끌리어 돌박산으로 떨어져내렸다.

에비동력이 가동했기때문에 가속도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선미는 눈안으로 날아들어오는 빠른 바위를 일별하는 순간 온몸이 부서지는듯 한 충격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한선미는 지금 조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허공을 켜며 날아오는 초고속로켓의 아찔러운 소음도 듣지 못한채 비행선의 앞시창에 쓰러져있었다.

한선미가 의식을 회복한것은 얼마후였다.

그는 자기가 현우의 품에 안겨있다는것을 의식한 순간 처녀의 본능적인 수집음에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왜서인지 뿌리치고싶은 용기는 생기지 않았다. 함께 온 리정로박사가 극소형초음파검진기로 그의 몸상태를 진찰하더니 청록색의 교감알약을 주었다. 약을 먹자 신기하게도 온몸이 거뜰해지고 정신이 맑아졌다.

《참 다행이요. 기자선생, 저 현우가 아니었다면 난 오늘 또 하나의 애젊은 생명과 마지막대화를 나눌번했네. 요새 젊은이들은 마치 자기들의 생명에 여별이라도 있는듯이 서슴없이 이런데 뛰어 들기 일쑤거든... 자네들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로박사는 진정으로 성이 난듯 한선미를 밉지 않게 흘겨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감사의 정이 어린 눈길로 로박사를 바라보던 선미는 그제야 자기결에 현우가 있다는 생각이 되살아났다.

순간 가슴이 활랑거리며 아까 느꼈던 수집음이 온몸에 다시 퍼져올랐다.

그 어떤 경우에조차 한선미는 곧잘 상대방을 자기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할수 있는 재치있는 명구들을 생각해내곤 하였다.

그것이 그의 《사업》이며 《직업》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입은 지금 꼭 다물려져있었다. 그에게는 이런 순간에 해야 될 말이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았던것이다.

현우도 역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행동을 설명할줄 모르는 사람이다. 현우는 지금 한선미를 지나치게 《혹사》시킨 죄의식에 휩싸여있었다.

《선미동무, 날 용서하오. 난 동무를 너무 혹사시켰소.》

한선미는 곱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이 퍼그나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곱살긋게 《애정》을 주입시키려고 하거나 뒤가 뻘드러운 감정조작을 하는데 진저리를 느낀 한선미였다. 대상해볼수록

현우에게는 그런 《수준》이 없었다.

혹시 그에게는 과학 이외에는 그 무엇도 사랑할 용의가 없는것이 아닐가?

한선미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어쩌서 자기에게 이런 우려가 갑자기 생겨났는지 그 까닭이 그를 부끄럽게 하였던것이다.

선미는 자신을 수습하며 온화하게 말했다.

《혹사시켰다고 이제 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 이미 혹사당한걸요. 동문 그에 대해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해요. 세상에 맹목적인 사람은 없는거예요. 물론 무엇을 위해 <혹사>당하는가에 따라 비참해질수도 있고 행복해질수도 있어요.

저는 그 보상을 절 더 혹사시키는것으로 받고 싶군요.》

현우는 그를 만류할수 없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서로 공통점이 많았던것이다.

그후 한선미는 성남을 만나기 위해 세계를 일주했지만 끝내 만날수 없었다.

성남이가 오리곤주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X

한선미를 태운 비행선이 소립자연구소에 도착했다. 한선미는 지금처럼 마음이 급해본적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굳어지게 한것이다.

실험실에서는 낮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엇인가 정리하고있었다.

한선미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와당은 《불행》을 본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한테까지 능글맞게 덤벼들리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그는 연구소소장을 알아보았다.

반나마 희어진 머리칼이 로회한 소장의 인품을 더욱 기품있게 다듬어주고있어서인지 한선미는 다소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소장은 말없이 한선미의 손에 신문을 쥐여주었다. 한선미는 다급히 글줄을 더듬었다.

《〈인간과 로봇의 대결〉

어제 소립자연구소의 〈7-05〉 체계개발실험실에서는 연구사인 김현우선생과 조수인 로봇 〈훔별〉과의 대결이 있었다.

밝혀진데 의하면 〈7-05〉 체계개발의 직접적 담당자인 김현우선생은 322 번째 실험을 남몰래 하려고 최종준비를 하던 순간 돌발적으로 로봇 〈훔별〉이 김현우선생을 쓰러뜨렸다.

〈훔별〉에게는 최첨단레이자침발사가 있었다고 한다. 〈훔별〉은 명수급선수들도 무색할 정도로 높은 사격술을 소유하고있었던것으로 추측된다. 발사된 레이자침은 정확하게 김현우선생의 뇌중추에 명중되었다.

김현우선생은 전신마비와 함께 최면상태에 빠져들어갔다. 그후 〈훔별〉은 모든 실험자료들을

걸어안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김현우선생은 지금 병원에서 리정로박사와 텔레파스(뇌파)대화를 나누고있다.

우리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321 번째의 실험에서 리수민원사가 애석하게도 희생되었다. 과연 〈7-05〉는 모든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검은 구멍으로 불리우는 천체, 중력이 너무도 강해 빛 까지도 탈출할수 없는 무시무시한 별)이란 말인가? 로봇트 〈흰별〉! 너는 어디로 날았는가? 혹시 자기 이름의 고향으로 날아간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로봇트의 이름조차 매우 상징적이라는 데 우리는 주위를 돌리지 않을수 없다. 우주에 있는 완홀(흰별)은 검은별과 반대로 반중력이 존재하는 별이다. 완홀은 모든것을 뿌려던지고 토해버리는 천체이다.

우리는 이 로봇트 〈흰별〉이 리수민원사가 생전에 자기 실험실에 두고 애용한 능력있는 조수였으며 원사의 희생후 그의 아들 리성남이 아버지의 유물이라면서 김현우에게 선물하였음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인간과 로봇트와의 최초의 대결인 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과연 〈흰별〉은 자체의지에 따라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가? 아니면 그 누구의 조종을 받았는가? 〈흰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답을 주기 위해 최신형컴퓨터들이 〈모의추적〉에 진입했다.

조만간에 사건의 진상은 밝혀질것이다.》

한선미의 손목에서 뻑! 뻑! 경보신호가 울렸다.

자동검진기가 스트레스위험신호를 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소리도 들을 정황이 없었다. 그는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가 소생과 앞에 도착했을 때 출입문에 붙어있는 희유스름한 액정화면에는 선미의 마음을 아닌보살하듯 이런 글이 띄어져있었다.

《환자와의 일체 면회를 거절함. 기자들의 취재도 당분간은 허용되지 않음. 가족측만이 면회를 허용함.》

한선미는 규칙적으로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글자들을 난처하게 쳐다보았다.

그 글자들마저 자기를 희롱하는것 같았다. 되돌아서려던 한선미는 발걸음이 떼지지 않았다.

(아니다. 그의 얼굴이라도 보자. 그의 마음속 한쪽 귀퉁이라도 들쳐보자.)

한선미는 입술을 앙다물고 초인종을 눌렀다.

액정화면에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게 생긴 로봇트의 얼굴이 나타났다.

최근에 환자치료에 널리 리용되는 《유모아치료법》에 의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간호용로봇트들은 다 이런 얼굴을 하고있는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로봇트는 제법 점잔을 빼며 삐딱하게 물었다.

《면회를 왔어.》

《환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한선미는 갑자기 할 말이 궁해졌다.

《가족측에서 오셨습니까?》

《응.》

한선미는 불쾌감을 느끼며 대답했다.

《아버지입니까?》

로봇트는 진지하게 물었다.

《뭘라구!》

한선미는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로봇트의 얼굴을 보고는 리해할수밖에 없었다.

《난 긴말할 새가 없어. 난 환자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아, 그러니 아드님이시군요.》

《뭘!》

한선미는 로봇트의 시각이 매우 희귀하게 되어 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유모아로봇트》 제작자들의 숨씨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로봇트들의 사명은 가능한껏 사람들을 웃기는것이다.

왕청같은 판단과 오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론들을 도출해냄으로써 환자들이 웃지 않을수 없게 하는것이다.

그러나 한선미만은 웃을수 없었다.

《난 그의 애인이야.》

그런데 로봇트의 대답이 가관이였다.

《아, 그럼 면회대상이 아니군요. 그런 이름은 가족명단에 없습니다.》

한선미는 로봇트의 전자뇌수에 친혈육만이 프로그램화되어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부인은 있습니다.》

로봇트가 먼저 다행이라는듯 큰소리로 말했다.

《부인》다음에는 명단에 더는 이름이 없었다.

이제 《부인》마저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제가 바래드리겠습니다.》하고 대단히 친절하게 말해야 하는것이다. 한선미는 난처해졌다. 그는 로봇트가 이제 어떻게 나오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래 부인이야.》 한선미는 재빠르게 대답했다.

부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이 시각 현우를 만나는것보다는 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그런 용단을 내리게 한것이다.

《아! 그럼 어서 들어오십시오. 부인님!》

로봇트는 수선을 떨며 문을 열어주었다.

한선미는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확 달아오르는 얼굴로 소생실에 들어섰다.

현우는 침대우에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고르롭게 오르내리는 가슴만이 그가 살아있다는것을 보

여쭙다. 현우의 얼굴은 놀람게도 태평스러웠다.
《부인님, 선생님은 지금 편히 주무시고있습니
다. 아무일도 없답니다.》

한선미의 두눈에 맑은 물이 고여올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을 초월한 따뜻한 애정
이 솟구치고있었다.

한선미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다. 뇌수전
체에 썩은 소편자수감기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
보았다. 그옆에 놓인 컴퓨터화면에는 현우의 뇌
파신호를 수록한 글자들이 띠엄띠엄 흘러가고있
었다.

《...성남이, 넌 모진 인간이야. 넌 한평생 내가
머리를 들고 살수 없게 했다. ...선미동무, ...난
...동무에게...》

한선미는 가슴을 조이며 다음 글자를 기다렸으
나 더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현우의 사색이 중단
된것이다. 한선미는 비몽사몽간에 성남이를 원
망하고있는 현우의 고통을 보느라니 아버지의 유
언을 집요하게 물어두려는 그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다.

리성남!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과연 어
떤 심장을 지녔기에 과학탐구에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려는 저런 고결한 인간을 욕되게 할수 있단
말인가?)

한선미는 지금까지 비평기사를 써낸적이 없었
다. 물론 그가 취재길에서 《저명하고 훌륭한》인
간만을 빼돌렸기때문에 그런것은 아니었다.

그는 모든것을 아름답게 보는데 적응되어있었
으며 그것으로 하여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행복
한 순간을 사랑하였다.

그는 리수민원사의 참사에 대한 취재를 위임받
았을 때 아직 자기가 찾아내지 못한, 아직 인류
앞에 비밀로 남아있는 그러한 미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는 기대로 하여 비통한 감정에 앞서
숭고한 마음에 휩싸였던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들치면 소름
이 끼칠만큼 참혹하고 어지러운 그 무엇을 보게
될것 같은 섬뜩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부디 나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간의 약
점을 들추어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리수민원사의 참사와 현우에 대한 로보트
의 기습사건, 리성남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서로
한고리에 맺혀있으나 그들이 추구한 목적은 같지
않다는데 생각이 모아졌다.

로보트는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현우를 쓰
러뜨렸는가? 물론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불행중
다행인 일이기도 했다. 만일 로보트가 《기습》하
지 않았다면 현우가 살아남지 못했을수도 있는것
이다. 그런데서 문제는 로보트가 현우의 생명을
노린것이 아니라 그의 실험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선미는 생각
했다. 로보트가 과연 《명예》나 《재부》를 위해
이런것을 저질렀단 말인가? 아니, 선미는 곧 자
기의 판단을 부정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모든것
을 아름답게만 보려는 자기의 기질을 쉽게 뒤집
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어쨌든 성남을 만나보자.

이 시기를 놓치면 모든것이 늦을수 있다. 겨울에
얼음이 귀하지 않듯이-

《로보트! 박사선생이 어디 계시니?》

《박사선생님은 성남선생님을 칼로 찌르려고 간
것 같습니다.》

《뭐라구?!》 로보트의 천연스러운 대답에 한선
미는 어찌나 놀랐던지 손에 들었던 가방까지 떨
어뜨렸다.

로보트는 얼른 가방을 주어들어주면서 한선미
의 귀에 대고 속삭이었다.

《아마 성남선생님과 〈결투〉를 하려는것 같습
니다. 현우선생님의 뇌파를 분석하시던 박사선생
님이 화를 내시더니 수술칼을 가방에 넣고 성남
선생님한테 간다며 떠나셨습니다.》

한선미는 바짝 긴장해졌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러니 성남이가 드디
여 나타났단 말인가? 그런데 로보트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있는가. 《결투》!)

로보트가 지금 선미를 웃겨보려고 아무 말이나
망탕 주어섬기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선미는 급
히 현우의 모습을 한번 더 보고는 소생실을 나섰
다.

한선미의 출현에 성남은 되게 놀란 모양이었
다.

마치 못할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눈살이 쏙
쏙해서 그를 맞이했다.

그는 곤청색의 중형트렁크에 이상하게 포장한
물건들을 넣고있었다.

한선미는 성남의 왼쪽팔에 흰 붕대가 감겨져있
는것을 보고 리정로박사가 왔다 갔음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박사선생과 끝내 충돌했던 말인가?)

한선미는 왜서인지 모멸감을 느끼며 그의 얼굴
을 바라보았다. 둥글넓적한 모양을 띤 그의 얼굴
에는 특별히 부각장식을 한듯싶은 술잡은 눈썹이
쳐마처럼 드리워 마음의 비밀이 눈에 비치는것을
감싸주고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 무엇을 빨아
들이는듯 깊숙히 잠겨있는 눈동자에서는 순간도
고분고분 살지는 못하겠다는 암시를 은연중 내비
치는것이였다.

한선미는 그가 길들이지 않은 야생말처럼 매우
세찬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찾아온 사연을 덩덤
히 듣고있던 성남은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말이
나오자 아니나다를가 사납게 돌변했다.

《뭐라구요! 나더러 아버지의 유언을 내놓으란
말입니까. 히! 기자동무, 이거 어벌이 너무 큰데
요. 기자라고 해서 남의 가정문제에까지 간섭해
도 되는가요.》

《전 간섭하는게 아니예요. 리수민원사의 유언
에는 동무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아
니 더 정확히는 조국의 과학발전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바치려는 한 인간에게 성공의 단
서를 줄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는거예요. 동
무도 현우동무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지요. 저에
게는 그 동무가 무엇때문에 리수민원사의 참사를

되풀이하는 실험을 단행하려고 했는가 하는, 그가 죽음을 각오한 순간에 남긴 편지가 있어요. 물론 전 동무의 심정을 이해할수 있어요... 그러나 원사선생님을 잃은것만 해도 너무 큰 손실인데 이제 또 그런 희생을...》

선미는 병원에서 본 현우의 모습이 떠올라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숨가쁜 정적이 두사람 사이에 흘러들었다.

선미는 성남이가 결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인간이 아니기를, 이 순간에만은 자기의 판단이 정확치 않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며 그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남의 대답은 그를 더 아연하게 만들었다.

《기자동무, 나역시 동무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버지의 유언에는 현우동무를 도와줄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동무가 믿든 안 믿든 난 진실을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기대는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시간이 없어서...》

성남은 더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을 띠우는것으로 선미에게 돌아갈것을 요구했다. 선미는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지금껏 이런 랭대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니 끝내 자기의 울타리를 허물지 않겠다는건가.) 한선미는 결코 호락호락 물러설수 없었다.

폭풍은 잔불은 죽여도 큰불은 더 세계 일구는 법이다.

《동문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군요. 제가 리수민원사의 유언속에서 인간의 사발사적인 흥미거리나 들춰내어 <새로운것>에 들뜬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만족시켜주는 그런 기자로 보이는데요!》

《허!》

다시는 열릴것 같지 않게 꼭 다물렸던 성남의 입이 반쯤 벌어지며 그속에서 숨소리인지 아니면 그 어떤 노성의 전주곡인지 분간키 어려운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선미는 다시 긴장해졌다. 불난 집에 마른 나무 던진적이 될수 있었다.

성남이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게 번뜩이며 얼굴색이 컴컴하게 죽어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지금 음산하고도 무시무시한 폭풍전야를 예고하고있는 듯싶었다. 그러나 성남은 얼굴표정과 는 너무도 판이하게 랭정한 어조로 말을 했다.

《동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나에게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동무가 언제까지 돌아가지 않고 나를 괴롭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반복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발 내가 자신을 지킬수 있게 해주시오.》

성남은 결쾌있게 말을 끊고는 제먼저 성큼 문가로 다가갔다.

(아! 저 거동.)

생활에서는 별치 않은 하나의 세부가 잊혀졌던

기억을 되살리는 경우가 있다. 항상 그 누군가를 따라 앞서려는듯 숙여진 몸자세며 장애물을 건너뛰듯 폭이 넓게 큰걸음을 내짚은 어찌보면 좀 별스러운 그의 걸음세에서 그가 결코 생소한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피득 생각했었던것이다.

선미는 자기가 언제 성남이의 방을 나섰는지 미처 의식하지 못한채 통신사로 줄달음쳤다.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자기의 문서고에서 하나의 원판을 찾아냈다.

잠시후 컴퓨터 액정화면에 하나의 장면이 펼쳐졌다.

1 년전 우리 나라 과학원이 주최했던 국제과학토론회 록화자료였다.

《인류와 우리 행성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던 세계적규모의 대화였다.

세계과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대회장은 뜨거운 열기를 띠고있었다.

화면에 《환상이 실현된 세계》라는 제목으로 토론하는 리수민원사의 모습이 비쳤다.

중력의 인공조종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해박하고 설득력있는 론거들로 설명하는 원사의 저력있는 말소리가 들려온다.

《...중력의 인공조종이 현실화되면 인류사회는 물질문명에 대한 전혀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에네르기분야만이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는데서 많은 사변들이 일어날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석탄이요, 원유요 하는 에네르기자원이 이미 고갈되었다는데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을것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발전소들을 해체해버려야 할것입니다. 에네르기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대국들의 전략적인 목표들이 휴지로 변할것이며 인류는 에네르기라는 고민거리에서 완전히 해방될것입니다.

중력의 인공조종이 성공하게 되면 현대과학은 보다 새로운 물질세계에 접근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를 정복하기 위한 투쟁도, 자연을 변혁하고 현대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우리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원사의 토론은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온 대회장이 환희의 열풍에 휩싸였다.

다음토론은 북아메리카의 오리곤주에서 온 리론물리학자 제임스 코터가 했다. 백인특유의 갈색머리, 매부리코, 깊숙한 눈확속에 잠겨있는 파란 눈동자에는 일종의 거만기가 엿보였다.

《...지난 세기 즉 인류력사에서 <좌절과 붕괴>의 세기라고 명명되던 시기에 조선에서는 과학중시기풍이 확립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은 세계선진국들을 압도하는 과학대국으로 분출했다는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오늘의 조선은 세계과학의 제일선을 달리고있습니다. 이제 조선에서 중력의 인공조종을 성공시키면 세계는 넓을 잃고 조선을 쳐다보게 될것입니다. 세계가 넓을 잃는다는것은 많은 변수를 가진 상대적개념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탄도 있고 환희도 있으며 두려움과 경계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의 기적에는 조선이 패권주의에로 나가지 않으리라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는 불안이 깔려있는것입니다. 리수민원사는 방금 토론에서 이 연구가 성공된다면 우주를 정복할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쥐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세계를 제패할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된다는것으로 이해해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국가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모든 과학적성과들은 전쟁이라는 <촉매>의 덕분입니다. 지난 시기에도 일부 특정한 계급이나 민족, 정치가의 위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장 고급한 두뇌진들의 연구성과가 대량살륙무기로 전환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langle E-m \cdot c^2 \rangle$ 의 비극적교훈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는 건초로 만족해야 한다>. 19 세기의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론회장에서 예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서서 연단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흰칠한 키에 앞이마를 덮은 교수머리,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

(그러니 그가 성남이. 원사의 아들이었던 말인가.)

한선미는 자기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것을 제삼 확인하며 화면을 주시했다.

성남은 고성능증폭마이크앞에서 주석단을 향해 약간 머리를 숙였다.

《의장선생, 저에게 언권을 주십시오. 조선소립자연연구소 리성남입니다.》

잠시후 그의 제의가 수락되었다.

《제임스 코터선생, 나는 지난 시기 선생이 이룩한 초중력분야에서의 연구성과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방금 한 선생의 연설은 과학에 대한 모독이 아닐가요? 선생자신이 의심하고있는 것을 다 해결해내는것이 우리 과학자들이 아닐가요?

물론 우리는 당신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난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이룩해놓은 첨단과학의 패권적지위를 그 누구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과학의 패권을 쥐자!> 이 구호는 오늘도 우리 젊은 과학자들의 피를 끓게 합니다.

제임스 코터선생! 선생의 연설에 시 한구절로 대치해볼가 합니다. 선생의 모국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쵸뻬르니크는 한생을 애썼지
지구가 돈다는것을 증명하려고

바보, 술에 취해있었으면
아무런 의심도 없었을것을

선생은 오늘날의 바보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있는지 정확히 가려보아야 할것입니다.》

신랄한 야유였다.

한선미는 그때 기자석에서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얼마나 속이 후련했던가.

《위선자!》한선미의 입에서는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생활에서는 배우의 연기술에 감동된 나머지 무대에서의 역형상을 그 사람의 실체로 혼돈하는 때가 있는것이다.

한선미는 못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지나치게 많다고 추어주던 그 《남다른 재능》이 이렇게 빨리 거덜이 날줄은 몰랐다. 본사에서는 벌써 한선미가 그 《남다른 재능》에 있어서나 취재대상의 그 충격적인 《비극성》에 있어서나 사람들이 《아, 그게 바로 인생이다!》하고 웨칠수 있는 《폭탄》기사를 준비하고있다는 말들이 돌고있었다.

한선미는 허구쁜 웃음을 지었다. 《폭탄》기사는 고사하고성남의 마음 하나 휘여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자신이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걷어온 자료들을 종합해보았다. 무엇하나 석연히 안겨오는것이 없다. 다만 명백한것은 성남이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유언을 자기들 부자에 관한 문제로 고집하는 경우 리수민원사의 참사에 대한 비밀은 영원히 종적을 감추고말리라는 그것이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명백한것은 그렇게 되는 경우 현우가 다시 그 위험한 실험을 누구도 모르게 다시 할수 있다는 것이였다.

한선미는 그것을 허용할수가 없었다.

현우는 이미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고통도 무런도 없이 헤여질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한선미는 자기의 심장속에서 타오르는 그에 대한 남다른 감정이 종당에는 무엇과 련결되는것인가를 모르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에 대한 한선미의 모든 희망이 이제부터는 《그와 함께》라는 조건부를 가지며 그 행로에 벌써 첫발을 들여놓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니 결국 나도 한갓 리기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말인가!)

한선미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종착점이 극적으로 뒤바뀔수 있는 심각한 갈림길에 서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과연 누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성남이를 허용한다면 한선미는 의무와 랑심을 잃게 되며 현우를 허용한다면 사랑과 행복을 잃게 된다.

한선미는 불과 물을 한그릇에 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느끼고 그만 자체모순에 빠져들었다.

한선미가 한참 인생관에 대한 철학적문제에 직면하여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있을 때 다급한 전화종소리가 귀따갑게 들려왔다.

그는 사무실 일력에 붙어있는 영상전화기에 나타난 인물을 보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국제과학토론회에서 성남이에게 망신을 당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제임스 코터였던 것이다.

《기자선생,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씨의 불행에 대한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리수민원사의 참사로 해서 세계가 주눅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제자를 쓰러뜨렸군요. 세계가 왜 까무러치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이죽거렸다. 한선미의 두눈에 적의가 번뜩였다.

《당신이 방금 한 말은 곧 신문에 공개될거예요. 더 할 말이 없는가요?》

제임스 코터가 히죽이 웃었다. 한선미는 진화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단세포동물들 마주한 것 같아 당장에 속이 메스거렸다.

《신문에만 내준다면 할 말이 많지요. 저는 리수민원사의 유언을 사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과는 지금 교섭중인데 우리의 제의에 무척 흥미있어하더군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달라는것이 아니니까요. 거대한 교환가치를 가지고있는 그 보물을 조국이니 량심이니 하는 추상적인 비물질과 맞바꾸리만큼 그도 어리석지 않을테니까요. 아마 성남씨도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침묵하고있을것입니다. 그도 인간이니 어찌겠습니까. 현시대에 인간의 정신력을 지배할수 있는 힘은 오직 황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 말이 이해됩니까?》

한선미는 정상적인 사고가 완전히 불경기에 빠져버린 이런 추악한 인간의 궤변을 듣고있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당신은 아직도 많이 진화돼야겠어요. 아메바도 세상을 당신처럼 보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럼 좀 더 진화된 다음에 저를 찾으세요.》 한선미는 전화를 끄려고 일어섰다.

《아, 기자선생, 너무 흥분해서 그러지 마요. 내가 말하자는건 이제부터요. 우리 회사의 화물로켓트가 목성에서 채취한 금강석을 싣고오던 도중 어느 한 소행성에서 로보트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왔소. 그런데 그 로보트가 당신들이 찾고있는 《흰별》과 비슷하단 말이요. 자, 보시오.》

사진을 보는 순간 한선미는 숨이 딱 막힐뻔 했다. 저도 모르게 사진을 쥐려고 손을 내밀던 한선미는 맥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흰별》이 옳지요!》 이죽거리던 제임스 코터의 표정이 샅시에 변하며 무엇인가 초조해하는 기색이 얼굴전면에 드러났다.

순간 한선미는 제임스 코터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룡각적으로 알아차렸다.

《잘 모르겠어요. 정 알고싶다면 당신이 직접 그 로보트에 물어보세요.》

한선미는 전화를 꺼버렸다. 그는 갑자기 갈증

을 느끼며 탁자우에 있는 고뿌의 물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사진에 있는 로보트는 분명 현우를 기습한 그 《흰별》이었다. 제임스 코터는 그걸 확인하자고 선미에게 전화를 걸어온것이다.

《흰별》에게는 현우의 귀중한 실험자료들이 있다. 그런데 로보트는 왜 그 자료들을 가지고 황량한 소행성으로 날아갔단 말인가.

문득 책임주필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내가 어제 로켓트발사장에 친구를 만나러 가니 거기에 성남이가 와있더군요. 아마 우주로 날아가려는 모양이야. 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가 타고갈 로켓트가 특수한 실험실을 장비한 최신형로켓트라고 하더군요.》

한선미는 갈래가 복잡하게 뒤엉킨 동굴속을 헤매다가 드디어 밖으로 나온듯 앞이 탁 트이는감을 느꼈다. 지금껏 그의 머리속에서 몽롱하게 떠돌던 그것이 이제야 룡박을 드러내며 형태를 가지기 시작한것이다.

(그러니 《흰별》을 조종한것이 다름아닌 성남이였구나!) 한선미는 자기의 판단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아버지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성공의 열쇠를 현우에게 고스란히 넘겨준다는것이 그에게는 무척 리해하기 어려운 《허무한 양보》가 될수도 있는것이다.

그래서 성남은 현우를 밀어제끼고 자기가 주인공역을 하기로 결심했을것이다. 관중의 환호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에게 가는 법이다.

성남은 벌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있다.

현우가 없이도 《T-05》를 성공시킬수 있는 확신을 가졌기에 자기만이 알고있는 비밀을 현우가 파헤치려고 하자 《흰별》을 시켜 그를 쓰러뜨리며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실험장소를 그 누구도 알수 없는 황량한 소행성으로 선택했을것이다.

이제 와서 성남이가 《T-05》를 성공시키는것은 시간상문제라고 선미는 생각했다.

(설마 리수민원사의 아들인 그가...)

선미는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을 생각하고는 쓴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결코 아들의 정신까지 승화시켜주지는 않는것이다.

한선미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지었다. 《T-05》를 위해 현우가 바친 피와 땀이 흔적도 없이 이름없는 황야에 묻힐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던것이다.

한선미는 현우가 그리웠다. 이 순간처럼 현우에 대한 애정이 열렬하게 그의 심장을 불태운적은 없었다. 리성남에 대한 증오가 현우에 대한 그의 사랑에 반작용을 한것이다.

한선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한시바삐 그를 만나지 않고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이 너절한 인간들의 속심을 발가놓지 않고는 숨을

걸것 같지 못했다. 소생실에 들어선 한선미는 현우의 품에 뛰어들수 없었다.

현우의 기상이 자기를 받아줄 잡도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실성한 사람 같았다. 이제야 의식을 회복했다고 한다.

한선미는 조심스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리정로박사가 한선미를 반겨맞았다.

《기자선생이 왔구만. 마침 잘 왔소. 이제 나의 치료는 끝났소. 이제는 동무의 〈의술〉이 현우동무를 완쾌시킬거요.》

한선미는 박사의 말을 이해했다. 로박사는 로보트에게 가볍게 눈짓하며 호실에서 나갔다.

눈치 무딘 로보트마저 동기적거리며 호실에서 나가자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현우동무.》

흐리멍텅해보이던 현우의 두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애절하게 부르는 선미의 목소리가 사랑의 침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른 것이다.

《선미!》 현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두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그들사이에 넘지 못할 계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선미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다사해질 줄은 몰랐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지금 벌여지고 있는 성남이와 제임스코터의 비렬한 《음모》를 현우에게 알리고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우의 반응은 예상외로 조용했다. 그는 모든것을 포기한 듯 했다.

현우는 꼭 그러쥘였던 한선미의 두손을 놓아주며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망연자실해하는 현우의 행동이 선미의 가슴을 아프게 헤집어놓았다.

그의 고통, 그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무엇으로 가져준단 말인가.

《선미, 난 할수 있는것 다했소. 그러나 이젠 늦었던 말이요.》

갑자기 현우가 돌아서며 격하게 웨쳤다. 선미는 현우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의 기색이 어찌나 선명했던지 차마 그를 마주보지 못하고 눈길을 떨구었다.

그는 현우를 위안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현우가 그 고통을 분노로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분노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인간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그 비렬한들이 알게 하고싶었다.

한선미는 연구소소장을 찾아갔다. 그는 이 문제가 결코 현우의 대법한 양보로 해결될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연구소소장은 한선미의 그 마음을 미리 넘겨다보았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아주었다. 한선미는 왜 그런지 마음이 산란해졌다.

소장의 안경너머에 있는 눈동자에는 세상만사를 다 겪은 로회한 사람의 자신감이 어려있었기 때문이었다.

(늙은이의 눈에는 보석이 숨겨져있다고 했지. ...)

《기자선생을 기다렸됐소.》

소장의 석실한 목소리에는 뜻밖에도 기쁨이 어러있었다. 한선미는 온몸의 힘이 발밑으로 새어나간듯 자신을 지탱해낼것 같지 못했다. 소장의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고있는가를 깨달았던 것이다.

《기자선생, 이걸 좀 보시오!》

소장은 밤색탁자위에 놓여있는 전자수신문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소행성 〈X-02〉호에서 X립자를 포획했음. 성공.》

(성공? 그러니 리성남이가 성공했단 말인가?)

실마 하고 가졌던 실오리같은 기대마저 끊어져 버린것을 깨달은 한선미는 소장에게 들이댔다.

《소장동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장동지도 아시겠지요. 이걸 한 성실한 인간을 산체로 매장시켜버리는 무서운 죄악이예요.》

소장은 한선미의 항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제 말만 한다.

《기자선생, 세상에세 제일 알기 힘든게 무엇인 줄 아오?》

한선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허허허... 그럼 내가 말하지. 그건 사람의 본심이요.》

소장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한 동작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문서고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붕! 문서고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선미의 귀를 아프게 자극했다. 한선미는 판전을 부리는 소장의 처사에 억이 막혀 가쁘게 숨만 몰아쉬었다.

《자! 보시오. 이제는 기자선생이 모든것을 알 때가 되었소.》

소장은 붉은색 도금을 한 금속함을 선미에게 주었다. 한선미는 열결에 받아든 금속함과 소장을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리수민원사의 유언이요.》

《예?!》

한선미는 예리한 물체에 가슴을 찔리운것처럼 흠칫 몸을 떨었다.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고 자기 앞의 모든것이 흔들거리는듯 한 착각이 일어났다. 손목에서 울리는 자동검진기의 경고신호에 정신을 차린 한선미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붉은색함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에게는 지금 그로록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그리고 현우가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보려고 했던 리수민원사의 유언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차마 꺼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실망과 좌절감에 몸부림치고있을 현우를 생각하니 눈물이 견잡을수 없이 흘러내렸다.

《저, 이것을 현우동무에게 먼저 보여줘도 됩니까?》

《아니, 동무가 먼저 보아도 되오. 현우동무 좀 더 쉬웁시다. 이제부터 모든게 그에게 달렸으니까.》

《예?》

한선미는 점점 자기가 끝을 알수 없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듯 한 생각이 들었다. 어망결에 원사의 유언을 펼쳐들었으나 도무지 읽을수가 없었다.

《그럼 리수민원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오.》

한선미의 심정을 알아본 소장이 록음기를 들고 나왔다.

고요한 방안에 현대과학이 재생한 원사의 웅글고도 깔린 목소리가 울렸다.

《소장동무, 일이 이렇게 될줄은 저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우의 뒤바라지를 해주려고 그도 모르게 혼자 실험을 시작한 노릇이 그만… 이미 〈그것〉을 포착했을 때 나는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쩔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선미는 더 참지 못하고 《흑!》소리내어 흐느꼈다.

《그 립자는 가설속에서만 존재하던 립자였습니다. 그 립자가 실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대전하는 모든 물질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허수립자> (질량을 가지고있지 않는 립자, 가속도가 커질수록 질량은 점점 미누스부호를 띠게 된다. 빛속도를 초월한다.)라는것을 알았을 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세계는 아직 이 허수립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빛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상상하기 힘든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이 립자가 물질세계에 존재한다는것은 현대과학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줄것입니다. 중요하게는 현우의 〈7-05〉를 성공시킬수 있는 중요한 립자라는것입니다. 허수립자가 중력파도 소멸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동시에 발생한다는것은 지금까지 하나의 역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립자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인간의 〈과거로의 여행〉도 곧 현실화될것입니다. 그때가서 우리의 후대들은 이미 력사무대에서 사라진 많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것이며 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는 귀중한 산 증거들을 보게 될것입니다.

소장동무,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생의 마감을 생의 시작과 연결시킬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는 얼마나 끝없는 젊은 인재들이 있습니까.

소장동무, 〈7-05〉의 마지막실험을 하자면 허수립자의 인체침투를 차단할수 있는 실험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실험을 저의 아들에게 시키려고 합니다. 성남이는 꼭 해낼것입니다.

소장동무, 현우를 잘 도와주십시오. 그의 재능은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저는 그의 두뇌가 나의 두뇌를 훨씬 능가하고있다는것을 이미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인재를 위해서라면 설사 저의 부자가 다 목숨을 바친다 해도 별로 손해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리익〉이 어떤것인지 소장동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남이가 위험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현우가 실험하게 해야 합니다.…》

(아! 원사선생님!)

한선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인재뒤에 인재가 있다더니… 우리는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의 화원속에서 살고있는것인가.)

한선미의 흐느낌소리가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현시인듯 조용히 울려 퍼졌다.

소장도 안경을 벗고 눈가에 수건을 가져갔다.

《기자선생, 용서하십시오. 이 비밀을 이제야 내놓는것을 말ियो. 성남동무의 간절한 부탁이었소. 이번 현우에 대한 로봇의 기습도 성남이의 〈작간〉이라오. 현우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었지. 하지만 현우가 먼저 이것을 알았다면 그는 성남이를 기습했을거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말ियो.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

소장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긍지가 어려있었다.

《…지금 리수민원사의 희생과 성남의 행동을 놓고 제임스 코터를 비롯한 인간추물들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의 과학발전을 짓눌러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지만 어림도 없소.

이제 곧 성남동무가 도착할거요. 리수민원사의 희생에서 새로운 단서를 잡아온 리정로박사가 새로 개발한 세포재생기를 그의 팔에 이식했으니 무사히 살아 도착할거요.》

이런 때는 그 어떤 찬양의 말이 도리어 비속해진다것을 한선미는 알고있었다.

아니 한선미는 이미 그런 자격을 상실했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선미는 자책과 회오의 눈물이나 흘리고있을수는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구상과 미지의 화폭이 새롭게 탄생하고있었으며 이러한 인간들을 만난것으로 하여 자기가 일약 세계적인 기자로 성장한듯 한 희열을 느끼고있었다. 그는 드디어 《폭탄》 기사를 써낼수 있는 충분한 체험을 한것이다.

×

드디어 그 흑점의 비밀이 밝혀졌다.

《우주인》은 성남이었다. 로봇트 《흰별》도 함께 왔다. 한선미가 상상속에서 그려보았던 미지의 화폭이 현실로 세상사람들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성남이와 현우와의 상봉이 왜 그리도 격렬하고 뜨거운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못했다.

며칠후 한선미의 《폭탄》기사가 《빛소식》통신사의 보급망을 통해 전세계에 퍼져나갔다.

기사에는 《7-05》를 성공시킨 주인공들의 사진도 나란히 올라있었다.

《후세는 매 사람에게 그에 알맞는 경의를 표한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하였다.

산-녀인

리연희

산이 무섭지 않던가고
그 말에도 빙그레 웃기만 할뿐
힘들지 않던가고
고생스럽지 않던가고
그 말엔 더더욱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웃기만 하던 녀인

벽두골 무주채골
골깊이 산높이 오를수록
오를수록 녀인은 흥겨웁게 말합니다
힘겨웠던 그날은 다 잊은듯

왜 무섭지 않았겠나요
개간의 첫 발파를 울려
천년 잠자던 산을 흔드니
쌍바위 절벽은 하늘을 가리며 막아섰어요
걸음걸음 바위돌을 들어내며
억척같은 뿌리들과 싸워야 했어요
한자육도 그양은 열어주지 않는 산이었어요

그래도 힘겨운줄 몰랐어요
캄캄 깊은 밤에도
해불을 앞세우고 한치한치
한겨울 미끄러운 눈속에도
불도젤을 떠밀며 한굽이 또 한굽이
방목길을 다져가던 15리

여기는 인공폴판
또 저기는 자연폴판...
한뜨락 살림인듯 녀인은 말합니다
자주꽃자리, 큰조아재비...
풀중에도 풀을 골라 씨앗을 뿌려
자식처럼 산을 가꾼 그날의 이야기
성미세찬 골개물도 내물처럼 길들여
등판마다 골고루 적셔주던 이야기

연두봉, 구름봉...
녀인과 함께 올라선 굽이굽이
내 벽찬 숨을 뿜으며 돌아보니
첨첨 산마다 휘여감은 저 길들은
그날에 풀새없던 녀인의 허리띠가 아녘니까

히나 녀인은,
영웅관리위원장은 또 오르고있습니다
앞산의 염소무리 양무리 소리쳐 불러도 보며
울봄에도 더 늘어난 《식구수》를
기쁨속에 헤여보며 걱정도 하며
100정보 칩산으로 개간할
구름속의 봉우리를 바라도 보며

정녕 이 산을 위해 있는것 아녘니까
힘겨워도 진할줄 모르는 녀인의 힘이
고생이여도 고생인줄 모르는 녀인의 행복이
기울인 그 정보다 바쳐야 할 그 정은 그 얼마인
지
따로 헤아릴줄 모르는 녀인의 사랑이

그는 혼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손을 들어 가리키는 무주채골 갈밭골이
또 다른 손을 들어 가리키는 벽두골 금바위골이
우우- 설레며 화답하며 메아리치며
녀인의 품에 달려와 안기는 산...산

녀인이 산을 안습니까
산이 녀인을 안습니까
나에겐 보여줍니다
굽이굽이 산허리를 휘여감은 길들은
그대로 녀인의 손길처럼
주름주름 푸르려 흘러내린 산자락은
이슬에도 땀에도 눈비에도 함께 젖던
녀인의 그 치마자락처럼

산이 웃어 녀인이 웃습니까
녀인이 웃어 산이 웃습니까
해빛속에 내리는 봄비속에
일새마다 반짝이며 폴판이 자랍니다
햇일을 뜯는 염소무리
이산저산 한가로이 오릅니다
누런 소무리 움쉴웁쉴 숲을 헤칩니다

아
녀인의 품에 안기여
태연히 웃고있는 산
나는 산의 표정을 그리고 싶습니다

포쇄별감

류몽인(1558-1628) 작

리원희 윤색

채수는 사람됨이 행실이 바르고 청렴결백하기로 널리 일러오는데 특히는 녀색에 전혀 관심이 없는것을 큰 장점으로 여기면서 자기스스로도 자부하는터이었다.

자기가 맡은 나라의 역사를 편찬하는 일에서나 임금의 지시문을 작성하는데서나 채수는 근실한 노력을 보여주어 어느때인가는 포쇄별감의 자격으로 전주에 내려가게 되었다.

나라의 여러곳에 은밀히 간수하여둔 력대왕들의 실록이나 국가의 중요한 문헌이나 서적, 기록들을 수년에 한번씩 해별을 쪼이면서 그 보관정형을 료해대책하는 일을 하는 포쇄별감이라는것이 림시벼슬이요 또 그리 큰 직무는 아니로되 임금의 특별한 신임이 없이는 아무나 할수 없는 요긴한 자리라 할수 있었다.

흔히 어명을 받고 고을들에 내려가면 객사에서 기생들을 끼고 호색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는 랑반사대부들에 대해 항상 《질시》하면서 《경멸》해오던 채수인지라 자기가 이번에 전주에 가서는 《랑반님네의 고상한 도덕성》을 남김없이 시위하리라 굳게굳게 마음다지였다.

《객사마당에 기생그림자만 보여도 되게 다스리겠다》는 공문을 먼저 내려보내고 전주길에 오른 채수앞에서 지나는 고을마다 원들은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전전궁궁하였다.

이렇듯 《도덕군자》인양 하며 전주에 이르렀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것이 달포가 되도록 멎지를 않았다.

처음엔 먼길의 피로도 풀겸 잘되었다 했더니 그것도 하루, 이틀인지라 날이 오래됨에 몸이 거북한 감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 비가 멎지 않으니 실록이나 문서들을 해별에 쪼이기는 고사하고 서고의 문조차 열지 못하고 할일없이 날을 보내려니 것처럼 객적고무료한 노릇도 없을상싶었다.

채수의 이런 모양을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해야 하는 전주부윤의 마음 역시 민망할 때가 점점 많아졌다.

어느날 전주부윤이 판관을 불렀다.

《여보게, 애젊은 사람이 처음으로 고을에 왔을즉 여복이나 적적하겠나? 제가 물론 기녀는 절대 금하라고 말은 했지만 이렇듯 오래동안 밥먹는것으로만 소일하자니 오죽할텐가. 그러니 자네가 어떻게 머리를 좀 써서 귀한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려는 주인의 성의를 다하도록 하게.》

부윤의 간곡한 부탁에 판관은 이번 일을 자기가 마땅히 잘 조치하겠노라고 장담하고 행수기생과 무릎을 마주했다.

고을의 기생중에서 금방 이칠을 넘긴 애티가 찰찰 흐르면서도 아름답기가 비길데 없는 기생하나를 골라 요란한 분장식은 그만두고 체모습그대로 소복단장을 시켜 객사앞 한 집에 들어 이리이리하라고 일러주었다.

판관은 그런 다음 객사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신신당부하였다.

《너 만일 서울랑반이 저 기생에 대해 묻거든 반드시 관가기생이 아니라 서울 채상집 종으로서 홀어미의 상사를 치르러 와있는중이라고 여쭙거라.

그리고 얼마 안있으면 거상을 벗구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는것두 잊지 말구.》

줄금줄금 내리는 비가 그치지 않던 어느날 이른 저녁을 치르고 양치질을 하며 객사퇴마루에 나선 채수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언듯언듯 비쳐졌다.

객사앞 아담한 초가집토방에서 소복차림의 한 녀인이 수심에 찬 표정으로 절구질을 하고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다 거동이며 자태가 여간만 뛰어나 보이지않았다.

멍청해서 정신을 잃은듯 한참동안이나 그쪽을 바라보던 채수의 입에서 호령소리가 튀어나왔다.

《여봐라, 게 누구 없느냐?》

《예-잇》하며 심부름꾼아이가 대령하였는데도 채수는 초점잃은 두눈을 여전히 소복녀인에게 못박아둔채 얼마나 사람마냥 물었다.

《애야, 저기 저 절구질하는 계집이 도대체 웬 계집이냐? 설마 이 고을 기생은 아니겠지?》

아니라는 대답만 정녕 바라는듯 한 그 물음에 심부름꾼아이가 얼른 대답하였다.

《웁소이다. 서울 김판서덕 종이온데 모친 상사를 치르러 왔소이다.》

《도대체 어느때에 상사를 만났느냐?》

《이젠 거의 백날이 되었사온데 그러면 거상을 벗고 서울로 간다고 하오이다.》

《네 어찌 그리도 자세히 아느냐?》

《이놈이 량친을 다 잃은 뒤로 친동기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웁기에 이리도 잘 아오이다.》

부절을 맞추듯 묻는 말에 척척 대답하는 심부름꾼아이의 말을 듣고난 채수는 이날 밤을 뜬눈으로 새우며 마음속으로는 절구질소리가 또 났으

면 하는 부푼 기대속에 새날을 맞이하였다.

《아야, 저 녀인이 기생은 아니라니 하는 말이 다만 네가 어떻게 잘 일러서 내게로 데려다주렴. 관가에서 모르게 말이다.》

조반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다시 심부름군아이를 부른 채수는 이제는 《계집》이 아니라 《녀인》이라고 말투까지 달리하며 눈에 달이 떠서 보채었다.

《하오나 그가 아무나 막 꺾을수 있는 길가의 버들은 아니오니 어이하리까. 절개 또한 높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를 어떻게 그리 쉽게...》

제 몸에서 돈푼이 될만 한것은 다 쥐여주며 채수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소원을 풀어줄것을 심부름군아이에게 애걸하면서도 절대로 이 말이 다른데 새나가지 않도록 당부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소복입은 녀인》과의 밀회가 자기를 위한 계획에서 마련된것임을 알리 없는 채수는 지금까지의 고적감과 무료감을 털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채수에게 어느날 전주부윤이 자기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려 한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줄비하게 늘어진 상마다에 다리가 휘어들도록 산해진미를 그득히 고여놓고 붉고 푸른 저고리자

락들을 펄럭펄럭하며 장고소리와 함께 《지화자, 지화자》의 풍류가락이 울려퍼지는속에서 부윤과 함께 상좌에 높직이 올방자를 틀고앉아 기생들의 치마꼬리를 불긋느라 여념이 없던 채수의 눈에 낮익은 녀인의 모습이 이날따라 유별나게 아름다운 자태로 안겨왔다.

어제밤의 《소복녀인》이 전주고을의 제일가는 기생인줄을 비로소 알게 된 채수는 좀 계면쩍은데가 있기는 하나 얼마후에는 그것마저 없어져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이 기생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그 후로는 채수와 기생과의 사이가 야교와 같이 된것은 더 말할것도 없는 일이다.

만나자 리별이라더니 환락속에 깊숙이 빠지고 만싶은 채수의 심정에는 아랑곳없이 날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견우와 직녀의 리별의 눈물은 은하수로 되었다더니 채수가 흘리는 눈물은 치마끝의 락수마냥 줄줄이 끊어질줄을 몰라 기생의 온몸을 훌쩍 적실것만 같다.

이 아니 목두기도 웃지 않고는 못배기리로드.

아무려나 량반자의 《도덕》과 《바른 행실》이 그네들의 허끝에서 놀아나는것임을 구태여 부언하지 않으려 한다.

고전소개

고전의인소설 《연래자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과 함께 지난날의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꽃피워나가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민족문학예술유산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자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고전문학예술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문학예술유산 가운데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씌여진 사상예술성이 높은 고전의인소설들이 적지 않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의인소설 《연래자전》도 그중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연래자전》은 19세기말에 작가 김병수에 의하여 창작된 단편소설로서 제비왕국의 태자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대를 이어 강국으로 위용떨치던 연(제비)나라 왕국이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망하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부패한 봉건왕정을 비판하고있다. 사실 봉건사회에서 봉건통치배 특히 봉건왕정을 비판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봉건통치배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지배를 유지하

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진보적인 사상과 견해를 가진 문인들을 탄압하였으며 지어 하나의 작품을 걸고들어 처형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진보적인 문인들은 량반통치배들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동식물들로 의인화된 성격형상을 창조하여 사회정치적으로 예리한 문제를 제기하고 당대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할수 있었다.

고전의인소설 《연래자전》은 날짐승들을 의인화하여 형상적비유를 통해 현실적인 봉건왕정을 비판하고있다.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기본을 이루는 봉건왕정에 대한 비판은 주인공 현금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태자 현금은 대대로 흥하여 온 연나라의 23대 왕인 현미자의 아들이다. 현금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현미자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들었고 학문을 높이 쌓아 박식하였으며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대해주어 천하의 뛰어난 무사들과 재능있는 선비들이 그를 찾아와 나라가 흥하였다.

그러나 간신인 황폐꼬리를 만난 후 정사를 그르치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풍류객인 황폐꼬리가 찾아와 태자와 백화주를 마신 후 《여치가》를 부르고 이렇게 말한다.

《태자님, 여치를 아시오이까? 여치는 보잘것없는 미물입니다. 그는 하루종일 찌르륵 찌르륵 노

래를 부르다가 기운이 진하면 땅바닥에 쓰러져
딩굴다가 운명하고맙니다. 인간생활도 여치와 다
를바 없사옵니다. 그러니 어찌 즐거움을 한껏 누
리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태자님이시야 상왕의 손자이시고 왕의
아드님이시며 왕의 대를 이을 사람이 아니오니
까? 한나라의 국력은 재부에 달려있습니다. 무릇
궁전이 웅장화려하면 그에 맞게 구미에 맞는 음
식을 먹고 위풍있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오
이다. 그리고 음악은 우아하고 선율이 좋고 녀색
은 고울수록 좋은것이나이다. 이 소임을 신에게
말겨주시오면 제 어찌할바를 모르겠소이까?》

황피꼬리의 말에 넘어간 태자는 그후부터 무용
가 장나비, 미인이며 명가수인 초매미와 함께 가
무놀이로 세월을 보낸다. 뿐만아니라 술풍을 조
장시키는 황벌을 가까이 하면서 항상 술에 취하
여 노래부르고 춤추며 부화타락한 생활에 푹 잠
겨있었다. 그러나 태자의 행실을 바로 잡아주어
야 할 왕인 현미자는 자기는 이제 늙었다고 하면
서 그의 방탕한 생활을 저지시키지 못했다.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진 태자는 간신들을 가까
이하고 충신들은 늙었다고 정계에서 내쫓거나 자
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가차없이 처형하였다. 하
여 나라는 무질서하고 백성들은 도란에 빠져 신
음하였다.

이때 강남의 기러기는 팽려를 도움으로 정하고
국호를 《대초》로 선포하였으며 장소리개를 발호
장군으로, 러매를 절충장군으로 임명하고 제나라
를 멸망시켰다. 그후 러매는 울썰미군 5천명을
거느리고 연나라를 공격하였으며 연나라의 왕 현
미자는 도망치다가 장소리개부대의 병사들에게
불잡혀 처형당했다. 그러나 태자는 아무것도 모
르고 초매미를 끼고 자다가 객청조가 깨워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중을 날
아예다가 황피꼬리를 만나 중요사직을 위한다고
평계대면서 달아났으며 결국 수천년강국이었던
연나라는 침략자들에게 강점되었다.

태자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자신을 후회하여
이런 노래를 지었다.

유모아

《그 령감을 깨우지 마십시오》

암답이 병아리를 거느리듯 한 귀부인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마크 트웨인을 찾아왔다.

부인은 자기의 큰 딸을 마크 트웨인에게 인사
시키며 자랑삼아 말했다.

《이 애의 속에는 위대한 작가의 령감이 잠자고

옛적부터 우리 왕조
대를 이어 미덕을 빛냈거늘
내대에 나라가 망했구나

봄풀은 파릇파릇
강산을 덮었는데
고국산천 볼수록
가슴이 터지는구나

그후 태자는 타향에서 운명하고 나라를 빼앗긴
자손들은 때를 지어 정치없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져 백성들의 집치마에 동지를 틀고
살았다고 한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연태자의 형상을 통하여 간
신을 가까이 하고 충신을 배척하면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 나라의 정사는 문란해지고 국력은
더욱 약해져 나라까지 망하게 한다는것을 교훈적
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주제사상적내용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도록 작품은 날짐승들의 생태적특성에 맞게 황
피꼬리를 풍류를 즐기는 아침군으로, 황벌은 꿀
술을 만들어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난봉
군으로, 장나비를 무용가로, 초매미를 명가수로
형상함으로써 작품의 진실성을 높이는데 적극 이
바치고있다.

작품은 작가의 세계관의 제한성으로 태자와 연
왕, 간신들을 비판한데 머물고 극복방도를 밝히
지 못한 제한성은 있으나 의인화의 수법으로 당
대 봉건왕정을 비판한 여기에 이 작품의 진보성
이 있다.

소설은 19세기말엽의 의인단편소설로서 이 시
기 소설문학형태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보여주었
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류윤화

있는게 분명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가만,
그 령감을 절대로 깨우지 마십시오.》마크 트웨인
은 부인이 더 말을 할수 없게 하였다.

개성은 문을 열고... 외 1편

전광원

오년이 가는데 손잡아 맞으며
언제나 활짝 열려있으라고
이름조차 개성인가
내 나서자란 고향이여

가리마 곁에 내서 쌍태머리 늘이고
파주로 나들이간 딸을
다시 못보고 떠나간 어머니의 원혼이
서리서리 넝쿨채로 남대문에 엉켜있고

고무신 사오마고 서울간 아버지를
날마다 마중하던 소년의 짚신자욱
오늘도 동대문에 지워지지 않은 곳
기다려 기다려
아래목 늦바리는 오늘도 식지 않은 곳

언뜻 새벽바람 창문을 스쳐도
서둘러 일어나 마중하던 아침은
기나긴 반세기도 넘어 밝아오건만
송악산의 나무숲도 키를 솟구며
그리움에 기다림에 잠 못드는 고향이여

소리쳐 부르면 화답할듯
손내밀면 잡힐듯
앞뜰의 시내물도 흘러흘러

함께 적시는 저 땅이
그리도 오랜 세월 갈라진채
아프게만 눈에 밝혀오느냐

기다린다고
집집의 문이 열렸다고 오는것도 아니여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 민족끼리 마음 합쳐
6.15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의 문을 열어야 오는것이니

그날엔
천년토록 말없던 만월대도
밝은 달 복처럼 높이 걸고
통일복소리 높이 울리리라
광-광-박연폭포도
온 강산에 환희의 함성 울리리라

선군의 해빛아래 기어이 오고야말
그날을 마중해
개성은 오늘도 문을 열고 마중하나니
바다건너 산너머 낯선 길로 오던이들
눈감아도 선한 이 길로 오시라고...

함께 지읍시다

류은화

풍덕벌 큰집 흰참쌀에
박연 외가집 뒤산 도토리
만월대 정갈한 박우물을 길어다
남녘의 아버지 오시면 드리려고
어머니가 담그는 술입니다
술이름 짓고저
귀를 대어봅시다
여기서 저기서 모아왔어도
떠오르며 가라앉으며 하나로 합쳐
신이 나게 끓는 소리에
전지불과 백록담이 열싸안고
부딪치며 뒤집히며 들끓는 소립니까
술거품처럼 커보여도 가벼운
양키외세 걸어내고 기뻐뛰는 소립니까

내 지금 술향기에 취했을가

오, 통일!
그 한마디에 취해서
눈을 떠도 감아도
신통한 술이름 떠오르지 않으니

여러분
함께 지어봅시다
우리 다 함께

토마스 하디와 그의 창작

토마스 하디(1840-1928)는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시기의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소설가이며 시인이다.

1868년에 하디는 처녀작 장편소설 《가난한 젊은이와 귀부인》을 썼다. 소설은 당시에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노동운동을 직접 묘사한것으로 하여 부르조아언론계의 드세찬 공격의 대상으로 되었다. 작품의 진보적경향성에 놀란 지배계급은 작품의 출판을 각방으로 반대해나섰다. 끝내 소설은 빛을 보지 못하였고 이때부터 하디는 도시생활을 포기하고 농촌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만을 탐구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장편소설 《궁여지책》(1871), 《푸른 나무밑에서》(1872), 《한쌍의 푸른 눈동자》(1873) 등을 려이어 내놓음으로써 소설가로서의 나무랄데 없는 기량을 뚜렷이 보여준 하디는 어릴적부터 간직해온 뜨거운 향토애와 농촌주민들에 대한 한없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담은 《귀향》(1878), 《캐스터 브리지의 시장》(1886), 《숲속 사람들》(1887) 등을 창작발표하여 소설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그러나 부르조아사회의 희생자의 성격을 통해 사회를 해부하는것으로 하여 그 비판이 보다 예리하고

보다 철저한 그의 소설들은 부르조아평론계와 독서계의 적의와 증오의 대상으로 되었다.

특히 장편소설 《더버빌가문의 테스》(1891)와 《미친한 주드》(1896)는 발표되자마자 악의에 찬 혹평을 받았다. 하디는 알렉크와 같은 파렴치한 악당들, 엔젤과 같은 교활한 위선자들이 주인공으로 되고있으며 법률마저도 돈있고 권세있는자들을 위해 복무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테스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대중은 인간적존엄을 무참히 짓밟힐뿐아니라 불행과 고통, 파멸에서 헤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친한 주드나 슈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을 통해서는 계급사회의 법률 및 교육제도뿐아니라 도덕적, 종교적편견에 거슬러 나선 근로인민출신인물이 겪는 사회적비극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착취사회가 필연적으로 강요하는 비극이라고 주장해나섰다. 하디의 소설들에 차넘치는 강한 사회비판정신에 소스라쳐 놀란 부르조아사회계의 격렬한 비난과 증상으로 인하여 하디는 1898년 이후부터는 소설을 쓰지 못하고 시창작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사회비판적태도는 의연히 강하게 나타내었다.

토마스 하디는 50여년간의 창작생활기간에 14권의 장편소

설과 4권의 단편소설집, 918편의 시를 수록한 8권의 시집, 2편의 극시를 창작하였다.

하디의 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레외없이 근로하는 하층인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그들의 꿈과 지향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여져나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자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라면 돈없고 권세없는 하층인민들을 모욕하고 희생시키는것쯤은 꺼리낌없이 자행하는 특권계급들과 그들을 법적으로 옹호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를 신랄하게 폭로비판한것이다.

토마스 하디는 주인공들을 착취자, 압박자들에게 보다 대담하게 항거해나서는 인물들로 그리지 못했던가, 자본주의사회악의 모순과 출로를 모르는 데로부터 비판과 염세적색채를 나타낸것과 같은 제한성을 발로시키기는 하였으나 찰스 디킨즈(1812-1870)와 윌리엄 셰커리(1811-1863)이후에 침체하였던 영국문학에 사회적주제를 들고나오고 자기 교유의 창작적개성과 작가적량심을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이 시기 영국과 서유럽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명성